

文學碩士 學位論文

佛國寺 殿閣과 伽藍配置 變化에 關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材學科

신재수

2021年 6月

佛國寺 殿閣과 伽藍配置 變化에 關한 研究

指導敎授 오 세 덕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신 재 수

신재수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장영수



審査委員

도진영



審査委員

오세덕



慶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6月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내용	3
3. 선행연구 분석	4
II. 불국사 연혁	9
1.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9
2. 조선시대	11
3.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5
III. 불국사 가람배치의 변화	22
1. 1490년 가람배치	30
2. 1767년 가람배치	43
3. 1918년 가람배치	45
4. 2018년 가람배치	48
IV. 전각별 변화	71
1. 주전각의 변화	77
2. 부전각의 변화	83
3. 기타 전각의 변화	87
V. 맺음말	93
<참고문헌>	96
<부록>	101

i) 불국사 고금창기	101
ii) 동경유록(불국사 편)	151
<국문초록>	156
<영문초록>	158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	8
<표 2> 불국사 연혁	16
<표 3> 한국 사찰 건축 배치 유형 도표	25
<표 4> 불국사 가람의 규모와 장엄	32
<표 5> 불국사 중창 요약(조선시대~현재)	72
<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1~3)	74
<표 7> 주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83
<표 8> 부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87
<표 9> 기타 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91
<표 10> 불국사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	92

그 립 목 차

<그림 1> 불국사 고금창기 전체전각 추정 가람배치도	33
<그림 2> 문수전 터	41
<그림 3>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	42
<그림 4> 불국사 고도	44
<그림 5> 1767년 불국사 가람배치도	46
<그림 6> 극락전 앞 주지실, 응접실(1925년)	47
<그림 7> 불국사 경내 실측도(1918년)	48
<그림 8> 불국사 배치도(1938년)	48
<그림 9> 19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	49
<그림 10> 전체 사역	50
<그림 11> 일주문	51
<그림 12> 천왕문	51
<그림 13> 가구식 석축	52
<그림 14> 청운교·백운교	52
<그림 15> 불국사 다보탑	55
<그림 16> 불국사 삼층석탑	55
<그림 17> 연화교·칠보교	61
<그림 18> 사리탑	61
<그림 19> 범종각	63
<그림 20> 불국사 박물관	63
<그림 21> 20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	65

<그림 22> 고금역대기 토함산 불국사도(1767)	68
<그림 23> 불국사 시기별 가람배치 변화(1490년 기준)	70
<그림 24> 대웅전	78
<그림 25> 극락전	79
<그림 26> 비로전	80
<그림 27> 관음전	81
<그림 28> 무설전	82
<그림 29> 나한전	85
<그림 30> 자하문	88
<그림 31> 범영루	89
<그림 32> 좌경루	90
<그림 33> 안양문	91

I.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불국사는 경주시 토함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문화재의 보고(寶庫)¹⁾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찰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는 토함산 석굴암과 더불어 신라 불교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찰이다.

경내에는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안양문, 극락전, 범종각, 박물관, 충지당, 미술관, 종무소, 강원, 후원, 선원, 정혜료 등의 전각과 8세기 중엽에 축성된 2단의 대석단이 있고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 사리탑 같은 석조물들이 조화롭게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불국사의 창건 문헌자료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천에 의해 1708년에 개간된『佛國寺事蹟』²⁾과 활암동은에 의해 1740년에 작성된『佛國寺古今創記』이다. 두 문헌은 모두 창건기와는 너무 시차가 큰 후대의 자료들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눌지왕 때 아도화상의 초창³⁾과 법흥왕의 모후인 영제부인에 의한 초창⁴⁾으로 기록하고 있다. 1966년 발견된 석가탑 사리장엄구에서 나온「무구정광탑중수기」(1024)와「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에는 경덕왕 원년(742)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三國遺事』⁵⁾에 따르면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한 창건으로⁶⁾ 그 연대가 각각 다르게

1) 국보 7점-제20호 불국사 다보탑,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 제22호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제23호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제26호 금동비로자나불 좌상, 제27호 금동아미타불 좌상, 제126호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보물 6점-제61호 사리탑, 제1523호 석조, 제1744호 대웅전, 제1745호 가구식 석축, 제1797호 영산회상도·사천왕벽화, 제1933호 삼장보살도.(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일: 2020.12.15.)

2) 『화엄불국사事蹟』에는 “慶歷 6년 병술(丙戌 1046) 2月日에 國尊 曹溪宗 圓鏡沖照 大禪師 一然 지음 강희 47년 무자(戊子 1708) 8月日에 개간하다. 繼天이 삼가 쓰고 재숙이 교정하다.”라고 되어 있다. 中觀海眼, 조용호역, 『화엄 불국사 事蹟』, 국학자료원, 1997, p.166. (원문, pp.258~280)

3) 『佛國寺誌 外』, 韓國寺志叢書11輯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3, pp.10~16.

4) 『佛國寺誌 外』, 위의 책, pp.43~44.

5) 1281년 편찬하고 조선전기 간행된 고려 후기 승려 일연(1206~1289)의 역사서.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4.10.)

되어 있어 창건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가람의 규모도 오늘날의 사역(寺域) 규모로는 수용이 어려운 2천여 칸의 건물 규모로 열거되어 있어⁷⁾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해당 사찰을 돋보이게 하려는 측면에서 여러 관련 문헌과 구전을 취합하는 과정에 의해 파생된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히 허구에 의한 것은 아니다.⁸⁾

불국사는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하는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대가람을 이어왔다. 조선전기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가람을 유지해 왔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람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 200여 년간에 걸친 대웅전과 극락전 일곽을 복구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가람 모습을 갖추었으나, 옛 모습대로 복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사세가 기울면서 쇠락기에 접어들어 일제강점기에는 가람 전체가 심각하게 퇴락하게 된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두 차례에 걸친 사역 정비공사가 진행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정부의 주도로 대대적 수리 및 복원공사를 거치면서 쌍탑가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하지만 중수와 복원은 일부 중심 전각만이었고 임진왜란 전 대가람의 모습으로 복원되지는 못하였다.

불국사 가람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을 중심 축선으로 청운교·백운교·자하문·불국사 다보탑·불국사 삼층석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대웅전 영역과 연화교·칠보교-안양문-극락전으로 이어지는 극락전 영역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영역은 남-북 축선이며, 이 두 축선은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고정 축선을 기본으로 주변 전각의 변화와 시기별 전각 규모의 증감에 따른 가람배치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임진왜란 전·후의 가람배치와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와 전각 규모 변화를 시기별 가람배치도로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三國遺事』, 권5, 『기이편』, 「대성효이세부모」 조.

7)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8) 엄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8~9.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고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상을 현장 조사와 그 밖의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기본 문헌으로 삼은 『佛國寺古今創記』는 창건시기와 관련한 신뢰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각의 규모와 장엄에 있어서 현전하는 자료 중에는 가장 체계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본고의 기본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상을 1490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8년까지를 4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별 가람의 변화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다.

1시기 조선전기는 성종 21년(1490) 대웅전 및 각 전의 중수를 기점으로 일본해서, 임진왜란 전의 전성기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를 결정하고 본고에서는 이를 가람배치의 원형으로 삼았다.

2시기 조선후기는 영조 43년(1767) 대웅전을 중창하고 단청한 기록 「大雄殿重創丹靨記」,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토함산 불국사 도면, 박종(朴琮)의 「東京遊錄」기행문 작성을 기점으로 일본하여,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고 다시 중수, 복원한 내용을 문헌과 자료로 확인하고 그 변화상을 배치도로 그렸다.

3시기 일제강점기(1918)는 불국사 수선공사를 위한 경내 실측도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창건 이래 가장 쇠락했던 구한말⁹⁾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택하여 살펴보고 그 변화상을 그렸다.

4시기 현재(2018)를 기준으로, 가람배치와 함께 비교하여 봄으로써 가람배치 변화상에 대해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신라의 창건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불사 내용을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를 4시기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배치 유형과 불국사 가람배치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다. 또 고금창

9)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1897~1910)까지의 시기.

기에 나타난 가람의 규모와 장엄을 통해 주요 전각 18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가람의 변화를 현장조사,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서로 비교 분석하여 전각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가람배치도를 그려 변화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IV장에서는 『불국사고금창기』를 주 내용으로 전각의 규모와 가람배치를 창건 이래 이어지고 있는 두 축선을 기초로 주전각¹⁰⁾과 부전각¹¹⁾, 기타 전각(문루)¹²⁾으로 구분하여 전각의 불사 내용과 규모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불국사의 시기별 가람배치도를 통해 주요 전각의 위치 변화와 규모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요약 기술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불국사에 대한 연구는 천년의 범등¹³⁾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날까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 등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⁴⁾ 특히 건축사 분야는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대한 교리적 해석

10)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 5동.

11)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학장강실 - 8동.

12)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 - 5동.

13) 부처님 앞에 올리는 등불(불법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함).

14) 설동선, 「佛國寺 多寶塔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정, 「佛國寺 外部空間의 比例體系 分析」,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남용희, 「佛國寺의 坐向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한지윤,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的 要素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수현, 「佛國寺 多寶塔 造成의 佛敎思想的 意義」,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강선혜, 「佛國寺 大雄殿 復元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재완, 「慶州 佛國寺 多寶塔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버들, 「佛敎經典과 曼荼羅에 나타난 多寶塔의 造營特性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최강국, 「佛國寺 金銅毗盧遮那佛坐像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소라, 「불국사 대웅전의 조선 후기 불상·불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姜友邦,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 문명대, 「佛國寺 金銅如來坐像 二軀와 그 造像識文의 研究」, 『美術資料』19, 1976. ; 김상현, 『韓國古代宗教思想史』,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동국대학교 출판사, 1989. ;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 오세덕, 「新羅 石槽 展開와 佛國寺 石槽(石花)의 意味」, 『문화사학』 53호, 2020. ;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 조성 장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第93輯, 2020. ;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2020.

을 바탕으로 한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단 등 석조물들과 불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기적으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창건 이후 1300여 년간의 시간을 지켜오고 있는 사찰의 가람배치 변화상을 일정시기로 국한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국사의 가람배치 변화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변화상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선행 연구사를 살펴보면, 안중모는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研究」¹⁵⁾에서 고대 사찰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를 통해 당대의 시대 사상이나 교리의 철저한 인식 하에서 논의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져 온 형식이나 양식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찰 건축의 건축사적 흐름을 정확히 규명하고 불국사의 가람배치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배경을 통하여 당대의 경영 원리인 불교사상이 가람배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또 복원적 측면에서 당대의 창건에 따른 가람배치를 추정하였다.

이종석은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¹⁶⁾에서 불국사의 입지 선정 배경과 배치구성에 있어 창건 시기가 문헌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유구와 건물지가 없기 때문에 창건 시 입지선정 배경과 좌향, 진입 등은 앞으로의 연구로 남겨 두었다. 창건 당시의 사회, 문화 및 사상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이 같은 작용 요인들이 불국사의 배치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고 불국사의 배치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파악했다.

이강근은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¹⁷⁾에서 불국사의 대석단 위쪽 중심사역에 있는 목조 건물은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등이 통일신라시대 석조물의 위용에 가려서인지, 18세기 후반의 재건 사실을 주목받지 못하고 그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었다. 18세기 조영된 다른 사찰 불전은 대부분이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국사의 전각은 현재까지 지방문화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¹⁸⁾ 극락전과 비로전 터를 제

15) 안중모,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전공 석사학위논문, 1987.

16) 이종석,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경북산업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17) 이강근,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18) 불국사 대웅전은 유적건조물·불전으로 2011년 12월 보물 제1744호로 지정 받음. ; 문화재청.

외하고는 고대 불전의 주칸(柱間) 설정법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웅전이나 극락전의 올바른 복원 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홍광표는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¹⁹⁾에서 대웅전 일곽을 구성하는 조형 원리가 두 탑을 잇는 동·서 축과 전각을 잇는 남·북 축의 교차점에 설정되어 탑·금당병립형 사찰의 공간 구성은 여전히 탑의 중심선을 유지하려는 규범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탑 중심형 사찰들과는 달리 공간 구성의 중심성이 어느 정도 금당으로 전이된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탑·금당병립형 사찰은 탑 중심형 사찰의 조절 형식으로 나타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박학길, 이중우는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²⁰⁾에서 건축에 남아 있는 조형 언어의 흔적인 전각, 금당, 탑, 계단, 당우들에 대해 시대 사조적 측면, 소의경전적 측면 및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불국사의 사상적 상징성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전반적인 근원에 대해서 신라인의 정신세계와 심미관을 조명하고 불국사가 당시에 국가적 종교적 이념에서 건설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염중섭은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²¹⁾에서 불국사의 가람배치 중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 관한 측면을 불교의 우주론인 수미산 우주론과 불교의 다양한 사상적인 입각점들을 통해서 고찰했다. 불국사가 국찰이면서 본래 명칭이 화엄불국사라는 것은 ‘화엄’과 ‘불국’이라는 양자를 공히 성취할 수 있는 사찰의 구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게 했다. 가람배치와 관련된 인도와 중국적인 요소에 신라적인 문제의식이 더하여 짐으로 불국사는 우리 문화만의 독창적인 완성을 이루었으며 이의 가람배치적인 표현이 바로 극락전 영역을 통해서는 안양즉적광(安養卽寂光)을 나타내고 대웅전 영역을 통해서는 사바즉적광(娑婆卽寂光)을 현시하여 이중 축선에 의한

불국사 대웅전, <https://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12.03.15. ; 九品蓮池會, 『九品蓮池要覽』, 대양기획, 2017, p.31.

19) 홍광표,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20) 박학길 외,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 『석당총론』 제28집, 1999.

21) 염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완성을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를 종합하게 되면 신라는 일상성 그 자체로 불국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염중섭은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²²⁾에서 불국사의 비로전과 관음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다소간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에 대한 타당한 해법도출을 시도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창건과 영조 변천 등, 교리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람의 조영 원리에 대해서도 시대 사조적 측면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가람배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표 1>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가람배치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전각의 규모와 가람배치 변화를 문헌자료와 대비하면서 현장 답사를 통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부터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22) 염중섭,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 『불교학 연구』 제25호, 2010.

<표 1>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시기(출처)	연구 내용
안중모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研究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건과 영조 변천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가람배치의 복원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
이중석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1996 경북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입지선정 배경과 배치구성에 있어 창건 당시의 사회, 문화 및 사상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와 이 같은 작용 요인들이 배치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고 배치 및 외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파악.
이강근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1997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대웅전과 극락전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장엄이 우수한 불전인데 지나치게 과소 평가됨. 같은 시기의 불전들과 비교, 재건역의 건축적 성격을 규명. 극락전과 비로전 터를 제외하고는 고대 불전의 柱間 설정법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향후 대웅전이나 극락전의 올바른 복원안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
홍광표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	1997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대웅전 일괄 구성하는 조형 원리가 탑을 잇는 동서 축과 전각을 잇는 남-북 축의 교차점에 설정. 탑-금당 병립형 사찰의 공간 구성은 여전히 탑의 중심선을 유지하려는 규범성이 보임. 탑중심형 사찰들과는 달리 공간 구성의 중심성이 어느 정도 금당으로 전이된 구성 형식을 취함. 탑-금당 병립형 사찰은 탑중심형 사찰의 조절 형식으로 나타난 것임.
박학길 이중우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	1999 『석당총론』 제28집	건축에 남아 있는 조형 언어적 흔적인 전각, 탑, 계단, 당우들에 대해 시대 사조적 측면, 소의경전 측면 및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사상적 상징성의 의미를 찾고 그 근원에 대해 신라인의 정신 세계와 심미관을 조명하고 가람배치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공간의 상징적 특성 연구.
엄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2009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가람배치 중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 관한 측면을 불교의 우주론인 수미산 우주론과 불교의 다양한 사상적인 입각점을 통해서 연구.
엄중섭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關한 타당성 高찰 -伽藍配置의 상호 關係성을 중심으로-	2010 『불교학 연구』 제25호	비로전과 관음전에 대해 불국사의 위상에 걸맞게 다소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현재 영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위해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해법을 도출함.

II. 불국사 연혁

1.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국사 연혁의 창건기록은 석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1024)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 역사서『삼국유사』(1281)가 있고 불국사의 사적을 기록한 『불국사사적』(1708)과 『불국사고금창기』(174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묵서지편²³⁾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무구정광탑은 경덕왕 원년(742)에 조성하였고 혜공왕 대에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⁴⁾

일연(一然)이 저술한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조에는 ‘경덕왕 10년(751) 대성이 공사를 착공하여 혜공왕 대에 완성했다’라고 하여 묵서지편의 불국사 창건 년도와 차이가 나고 있다. 일연이 저술하였다는 『불국사사적』에는 눌지왕 아도화상이 도래하기 전 불국사가 창건된 것으로 나온다.²⁵⁾

활암 동은이 저술한 『불국사고금창기』에는 ‘신라 법흥왕 15년(528)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이 출가 후 불국사를 창건하고 진흥왕 36년(574) 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이 절을 중창하고 비구니가 된 뒤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 2구를 주조하여 불국사에 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와 『불국사사적』은 불국사 창건기록이 각각 신라 경덕왕과 눌지왕대로 약 300년 가까이 차이나며 1046년에 저술되고 1708년에 개판(改版)된 『불국사사적』은 일연의 생몰연대(1206~1289)와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석가탑에서 출토된 묵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는 찬술 시기가 각각 다른 문헌에 비해 불국사 창건시기에 가장 근접하다. 또한 불국사 창건이 신라 경덕왕 원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창건한 것임을 암시함으로 다른 문헌기록보

23) 석가탑 해체수리 때 2층 사리공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은 「보협인다라니경」,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보시명공중승소명기」(布施名公衆僧小名記)를 말한다.

24)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대한불교조계종, 2009, p.51, 67.

25) 남시진 외 15명,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p.9.

다 더 사실적인 사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²⁶⁾

불국사는 김대성 개인의 원찰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원찰로 건립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²⁷⁾ 창건 당시 불국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지장전 등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다. 이 밖에도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건물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 큰 건물로는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이 있고, 이 두 개의 건물만큼 크지는 않아도 중요한 건물로는 시왕전, 십육응진전, 문수전 등이 있다. 또한 승방이라고 생각되는 동당, 서당, 동별실, 서별실, 청풍료, 명월료, 객실, 영빈료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누, 각, 문, 고, 욕실 등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불국사 창건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보수기록은『삼국유사』, 『불국사고금창기』, 『불국사사적』, 석가탑 출토 문서지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소장 복장기에 의하면 개요원년 신문왕 원년(681) 4월 8일에 낙성되었다. 석가 주존상과 좌우에 미륵, 갈라, 가섭, 아난 도합 5구의 상이 있다. 신문왕이 선왕의 명으로 이것을 조성하도록 했고 표훈으로 하여금 상주하면서 예참하도록 했다. 경덕왕 10년(751) 중창하고, 경명왕 6년(922) 때는 경명왕비가 악지공에 명하여 전단향목으로 관음상을 조성했다.

고려시대의 보수기록은 석가탑 문서지편의 석탑 보수 내용과 『불국사고금창기』의 비로전과 극락전 중수에 관한 기록 정도가 있다. 석가탑 문서지편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는 무구정광탑과 서석탑의 중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1024년과 1038년까지의 석탑 보수 및 재해로 인한 중수²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1024년 훼손된 불국사 서석탑(석가탑)의 부재를 교체하기 위해 2월 17일 탑 해체를 시작하여 사리를 수습했고, 절석 등 깨어진 탑 부재를 다시 만들어 사리를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에 기록된 「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1036년에 일어

26) 亦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成立 | (爲)白乎矣_惠恭大王矣代良中沙□成立爲白教事是置在赤.

국립중앙박물관,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대한불교조계종, 2009, p.51.

27) 불국사에 대해 일부 願刹說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성낙주, 「歸納推理에 의한 석굴암과 불국사 관련 문헌사료의 연구」, 『東岳美術史學』 제2호, 2001.) 이에 대해서는 역시 국찰설이 주류가 된다고 하겠다. 엄중섭, 앞의 책, pp.3~4 ; 추상훈, 「佛國寺 九品蓮池의 影池의 특징과 煙霧效果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pp.11~12. ; 강우방,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제66호, 2001, pp.13~14. ; 김남운,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pp.40~41.

28) 대규모 수리를 말하며 본고에서는 중건과 같은 의미로 정의한다.

난 대지진으로 하불문, 행랑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은 서석탑에 버팀목을 대놓았지만 1038년 석탑 복구 작업과 사리를 재봉안하는 도중에 지진이 다시 발생하여 미력상회동량을 결정하여 재물을 모아 중수 준비를 착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더불어 하층 옥개석, 금당석을 해체하고 지대를 복원하였다는 등의 부재의 명칭을 자세하게 언급하며 석가탑의 중수과정을 기록했다.²⁹⁾ 그러나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 ‘國修理義无在沙良’(나라에서 수리할 뜻이 없을 뿐더러)라는 기록이 있듯 새로운 건물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의 것들을 보수하며 사찰을 유지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³⁰⁾

『불국사고금창기』에는 고려 1172년 관옥과 수란 두 선사를 불국사에 머무르게 하고 비로전과 극락전의 기와를 갈아 중창했으며 1312년에 도량을 중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¹⁾ 목서지편과 사적에 기록된 신라~고려시대의 보수기록은 불국사의 창건³²⁾과 중창,³³⁾ 무구정광탑 보수에 관한 기록, 문헌만으로 당시 불국사의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진성여왕이 재위(887~897)했던 통일신라 말까지 왕실 사찰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사찰을 보수 및 유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1차례와 고려시대 3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 불국사는 10차례 걸친 중창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불국사 보수기록은 『불국사고금창기』, 『불국사북역공덕기』 조선시대 선비들의 시문과 기행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국사고금창기』에 기록된 임진왜란 이전의 보수내용은 세종 18년(1436) 의흥이 대웅전과 관음전, 자하문을 중수했고, 세조 원년(1455) 석가주존 및 좌우보처 개금과 단확했다. 성종 원년(1470) 관음전을 중수했으며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이 대웅전과 각 전각들의 중수와 명전 중수가 이루어졌다. 연산군 원년(1495) 왕의 명으로 상궁 권씨가 관음보살 개금을 했다. 중종 9년

29)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108~118.

30)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5.

31) 김상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p.25.

32) 최초 건립으로 초창을 말한다.

33) 창건 수준의 재건립을 말한다.

(1514) 월청이 극락전 벽화를 중수했으며, 이후 명종 19년(1564) 문정왕후와 인성왕후가 잇따라 대웅전을 중수했다. 선조 26년(1593) 5월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국사의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석축과 석탑을 제외한 2천여 칸이 모두 불타버렸다.³⁴⁾ 복구는 약 1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복구 작업은 선조 37년(1604) 관음전 중창을 시작으로 비로전, 안양문, 자하문을 중수했으며 청운교·백운교, 좌경루, 수미범종각을 잇달아 중수하는 등 약 200년 동안 복구와 중수의 불사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국사복역공덕기』³⁵⁾는 임진왜란 이후 1779년에 있었던 불국사 중창 내역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료이다. 사찰의 중창에 승려와 순찰사 및 경주 부윤이 함께 참석하여 사찰 복구를 이끌었다는 기록은 불교계와 조선후기 향촌 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후기 불교사와 지방사 연구에 흥미로운 관점을 갖도록 한다.

조선시대의 불국사 모습은 선비들이 쓴 시문과 기행문에서도 나타난다. 김종직의 ‘소나무로 둘러싸인 불국사’³⁶⁾ 김시습의 ‘돌 다듬어 만든 계단 작은 연못 누를 듯, 높고 낮은 누각들 잔잔히 아롱지네.’³⁷⁾

1580년 불국사를 방문했던 간재 이덕홍(1541~1596)이 남긴 『동경유록』에 ‘바위 위에 연지가 있고 연못 북쪽에 나무 흙통의 비천이 수리를 홀러 석조에 떨어지고 있었다. 비천을 넘어 구름다리에 이르니 다리는 돌을 깎아 무지개와 같았다. 절문으로 들어서니 전각과 석탑과 옛 불상 등이 천태만상으로 기이하다 모두 신라의 유물이다.’³⁸⁾

34) 임진왜란으로 인한 불국사 피해 상황은 『불국사고금창기』, 宣祖大王26年 癸巳 5월조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35) 불국사공덕복역기 탁본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4.1cm×가로 139cm이다. 탁본한 자료는 전체 450행으로 해서, 행서, 초서가 섞여있다. 제1행은 기문의 제목, 제2행~제37행까지는 복역의 내용, 제38행은 문장을 찬술한 날짜와 찬자에 대한 기록, 제39행~제50행은 경상도 관찰사 이하 관내 읍과 사찰들이 출연(出捐) 한 금액을 전(錢)단위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 자료는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의 유일한 탁본으로 조선 후기 불국사의 중창과 변모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남동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자료」, 『美術資料』 제88호, 국립중앙박물관, 2016, pp.138~141)

36) 爲訪招堤境。松間紫翠重。青山半邊雨。落日上方鐘。語與居僧軟。杯隨古意濃。頽然一榻上。相對鬢鬢松。(金宗直, 『占畢齋集』卷之三詩佛國寺。與世蕃話)

37) 石爲梯壓小池。高低樓閣映漣。昔人好事歸何處。世上空留世上奇。秦宮隋殿魏招提。剩得當時俗眼迷。人去代殊俱寂寞。夕陽唯有老烏栖。(金時習, 『梅月堂集』卷之十二遊金鰲錄 詩 佛國寺條)

구사맹의 ‘보배로운 돌계단과 우레로 인한 탑의 손상 흔적’³⁹⁾이라 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까지 유지되던 사찰의 모습을 통해 연못의 존재 여부와 함께 임진왜란 이전에 발생한 탑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불국사 상황은 박종(1735~1793)의 『東京遊錄』(1767)에서 ‘백운교와 청운교가 끝난 곳에 자하문이 있고, 서쪽 10보쯤에 수미범종각이 있다. … 누의 서쪽에는 안양문이 있는데 자하문과 같은 제도이지만 좀 작다. … 자하문 내부는 대웅전 뜰로 되어 있으며, 뜰의 동서에는 탑이 있어 동쪽 것을 불국사 다보탑이라 하고 … 서쪽의 것은 무영탑이라 한다. …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고 뒤에 극락전과 원통전, 원편에는 응진전, 오른편에는 명부전이 있다. … 삼미교, 화장교, 육도교 등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 석물, 누각, 불전이 10분의 1만 남아 있다.’라 하여 임진왜란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들이 이때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삼미교, 화장교, 육도교와 같은 다리가 있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국사 가람의 형태는 위 내용처럼 조선초기까지 큰 변화 없이 일부 전각의 중수, 중건 등을 거치면서 사세를 유지해 오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소실된 이후 1779년에 가서야 크게 중창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세도정치 시기인 순조 5년(1805)까지 부분적인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신라 때 같은 가람의 면모는 회복하지 못했다.⁴⁰⁾ 전화(戰火)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불국사의 복구 작업은 선조 37년(1604) 관음전 중창을 시작으로 광해군 4년(1612) 범종각과 좌·우 경루, 남행랑 중건 등을 했다.

인조 4년(1626)에는 안양문 중건과 만월당(승당)을 창건했으며 인조 6년(1628)에는 문수전, 향로전, 동서 행랑을 중건하고 인조 8년(1630) 자하문을 중수했으며 인조 25년(1647) 십육응진전 창건과 등상(나한상)을 건조했다. 이듬해 인조 26년(1648) 설법전 중건, 현진당(승당)을 창건했다. 효종 4년(1653) 극락전 후불탱을 조성했으며, 효종 10년(1659) 대웅전 중수와 단속했다.

38) 步入蓮花上。香風襲我裳。飛泉木咽。石橋帶虹長。壯麗千間屋。丹青十分光。堪嗟占畢齋。壁上空留芳。恨我未衣。白首猶迷方。遠期尚未酬。惕若悲亡羊。對君三歎息。高林鬱蒼蒼。(李德弘, 『良齋先生文集』卷之二詩佛國寺.)

39) 屋上危岑矗。門前老樹重。寶梯折石。殘衲坐鳴鐘。戀闕情何限。懷鄉興未濃。朝來明鏡裏。短髮十分松。/一宿前朝寺。山河幾重。雷痕留古塔。霜氣逼清鐘。酒向杯心凸。香飄篆穗濃。興亡多少恨。都入毛松。(具思孟, 『八谷先生集』卷之一五言律詩次佛國寺韻二首)

40) 김형우 외, 『한국의 사찰 下』, 대한불교진흥원, 2006, p.222.

현종 1년(1660) 비로전 중건과 단청, 법고 조성, 소조석가모니불 좌상을 조성했고 현종 12년(1671) 조사전을 창건하고 현종 15년(1674) 문수전 중수, 문수·보현 양상 조성, 관음상 개금, 시왕전을 창건하였다. 숙종 2년(1676) 동행랑 중창과 좌·우 익랑을 조성했고, 이듬해 동행랑 중창하고 다음해 향로전 중수, 동별당 중창했다. 1682년 대웅전 우루로 개와를 했으며 다음 해는 서운당 중창, 장수암 중건했다.

숙종 12년(1686) 청운교, 백운교를 중수했고, 숙종 14년(1688)에는 화엄전 중건 및 수미범종루 중창과 관음전 개금이 이루어졌으며 숙종 15년(1689) 광목당이 초건되었다. 이듬해 좌경루 중건과 법고가 조성되었다. 숙종 21년(1695) 관음전이 중창되었다. 숙종 27년(1701) 관음전 개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광목당 중창, 지대동 설립되었고 다음해 관음전 후불탱조성, 패불조성, 부도전을 초창했다. 숙종 31년(1705) 대웅전 서변개주, 동행랑 중수, 숙종 34년(1708) 무설전 중건, 자하문, 범종각 단청, 심매법당을 중창했고 이듬해 현진당, 만월당이 중창되었다. 숙종 38년(1712) 시왕전을 단청했다.

숙종 40년(1714) 대웅전 우루로 개와했고 이듬해 우경루 중창, 청운교·백운교 중수, 비로·미타·관음 삼존상 개금과 미륵·갈라 양존상을 개금했고 다음해 시왕전불탱 조성, 성행당 이건, 광목당을 중창했다. 숙종 44년(1718) 명월요 중창, 관음전과 우경루를 단화했고 숙종 46년(1720) 극락전 단화, 화엄전 중창, 조실을 조성했다.

영조 1년(1725) 조사전 중창하고 영조 5년(1729) 시왕전, 향로전, 남루 중창, 대웅전과 제전개와, 3채 요사 석단 아래로 이건했다. 이듬해 대웅전 및 좌우익랑 단화, 대웅전 우루기와, 대웅전 중단삼장탱 조성. 다음해 대웅전 기와보수, 첨성각을 신축했다. 영조 12년(1736) 동행랑을 중창했고 이듬해 안양문을 중창했다. 영조 16년(1740) 비로전후불탱 조성. 다음해 광목당을 중건했다. 영조 25년(1749) 광목당 중건, 일광당 신설 중건. 이듬해 극락전을 중수했다.

영조 34년(1758) 적광전 중창. 이듬해 명부전 중창. 다음해 나한전 본래 기초로 이건했다. 영조 41년(1765) 대웅전을 중창했다. 영조 43년(1767) 대웅전을 단화했고 영조 45년(1769) 대웅전삼존, 관음전독존 개금 중수했고 가섭·아난존자 신화상 조성했고, 대웅전후불탱을 조성했다.

정조 3년(1779) 불국사 중창, 교대와 정각 일부 중창, 극락전 기단을 중수

하고 기단석에 새겼다. 정조 5년(1781) 자하문 중창, 범종각 중수. 정조 20년(1796) 일양산, 일로변, 관음포단, 나한전 탁의, 비로·극락전 포단을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했다. 순조 5년(1805) 비로전을 중수했다.

3.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는 크게 두 차례의 보수공사가 시행됐다.⁴¹⁾ 1918~1919년에 1차 보수, 1922~1925년 사이에 2차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1933년에 사찰 경내 정리와 도로 개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에는 남은 규모만을 따르던 중수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 같은 규모만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을 뿐 새로운 가람을 구지(舊址)에 복원하는 일은 없었다.⁴²⁾ 1915년 불국사 다보탑 수리를 했고, 1918년 수리공사를 위해 경내 실측도 작성, 1919년 1차 수리공사로 석탑, 석교, 석축,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을 중수하고, 1924년 대규모 개수공사, 전면 석교, 석담 복원, 법당을 중수했고 1925년 극락전 중수, 불국사 다보탑 해체 보수, 팔방금강좌를 정비했다. 1933년 도로 개수공사와 경내 정리를 했다. 이때 1905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었던 사리탑이 환수됐다.

일제강점기에 수선공사를 통해 일부 정비되었던 불국사는 광복 이후 1966년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치 도굴 시도로 인해 석탑이 일부 손상되어 석탑의 해체와 수리가 시행되었다. 1960년 안양문을 중건, 1966년 석가탑 해체복원, 옥개탑신 일부 파손 부 보수, 1970년부터 1973년 6월까지 대규모 수리 및 복원공사로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좌경루, 회랑을 복원하였고, 대웅전, 극락전, 범영루, 자하문, 안양문 단청수리. 청운교·백운교 돌난간 복원, 불이문 건립, 석가탑 상륜부 복원, 불국사 다보탑을 보수했다.

1974년 불국사 다보탑과 불국사 삼층석탑의 원형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조탑 건립이 추진되었고, 1975년 일주문과 천왕문을 건립했고, 1979년 나한전을 건립했으며 1980년 불국사 삼층석탑의 옥개석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2010년 불국사 다보탑 상륜부 난간을 수리했고, 2016년 불국사 삼층석탑을

41) 김규원 외, 「일제강점기 도상자료를 통한 불국사의 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권 176호, p.21.

42) 황수영, 「佛國寺의 創建과 그 沿革」,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경주시, 1976, p.36.

해체 보수했다. 2017년 지진(2016.9.12.) 발생으로 불국사 다보탑 난간을 보수, 2018년 11월 불국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지금까지 불국사의 연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불국사 연혁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1	(신라) 눌지왕		417-457		아도화상 불국사 창건 『불국사사적』
2	법흥왕 15	양무제 · 대통 2	528	무신	개산, 화엄 불국사, 화엄 범류사(영제부인) 『불국사고금창기』
3	진흥왕 35	진·대건 6	574	갑오	중흥, 비로·아미상 주조, 황룡사 장육불 주조(지소부인)
4	문무왕 10	당·고종· 함형 1	670	경오	문무왕 무설전 창건, 『화엄경』 강론
5	신문왕 1	고종· 개요 1	681	신사	신문왕 위 선대왕 대웅전 석가 등 5존상 낙성 (4/8)
6	경덕왕 1	현종·천보1	742	임오	불국사 창건「무구정광탑중수기」, 「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 탑의 조건
7	경덕왕 10	현종· 천보 10	751	신묘	김대성 중창, 차시창 석불사 『삼국유사』권5 「대성효이세부모」조
8	혜공왕 10	대종· 대력 9	774	갑인	12월 2일 김대성 졸, 국가 완성
9	헌강왕 8	희종· 중화 2	882	임인	상제, 국척, 대신 등이 위 헌강 대왕 화엄경 사
10	정강왕 1	희종· 광계 2	886	병오	왕비 김씨 선고 위해 석가여래상을 수놓은 번 바침
11	진성여왕 1	희종· 광계 3	887	정미	헌강, 정강 2왕 및 선고 망형 위해 중창
12	경명왕 6	후양· 용덕 2	922	임오	경명왕비, 전단향목 관음상 조성
13	(고려) 현종 15	송·인종 천성 2	1024	갑자	현종왕 전왕 목종 추모, 불국사 중영, 도승 30인, 사전 20결, 무구정광탑 중수
14	정종 2	송·경우 3	1036	병자	대지진 서석탑 복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계단, 석축 보수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15	정종 3	송·경우 4	1037	정축	지진으로 서협적 행랑, 하불문 복구 수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16	정종 4	송·보원 1	1038	무인	2차례 지진 서석탑 중수 해체 수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17	정종 12	송·경력 6	1046	병술	불국사 사적 편찬(초판)
18	명종 2	남송·효종 건도 8	1172	임진	비로전, 극락전 중수, 개와 (명종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인사)
19	충선왕 4	원·인종 황경 1	1312	임자	도량 중수
20	(조선) 세종 18	명·정통 1	1436	병진	대웅전, 관음전, 자하문 중수 (효령대군, 안평, 영응대군)
21	세종 30	정통 13	1448	무진	세종 "불국사 불법승" 인장 하사(3/18)
22	세조 1	경태 6	1455	을해	석가주존 및 좌·우 보처 개금, 단확(현덕 왕후와 아들 노산군)
23	성종 1	성화 6	1470	경인	관음전 중수
24	성종 21	홍치 3	1490	경술	대웅전 및 각 전 중수(월산대군), 명전 중수
25	연산군 1	홍치 8	1495	을묘	연산군 명 상궁 권씨 관음보살 도금
26	중종 9	정덕 9	1514	갑술	극락전벽화 중수
27	명종 19	가정 43	1564	갑자	대웅전 중수(문정왕후, 인성왕후)
28	선조 26 (임진왜란)	만력 21	1593	계사	5월 임란 병화 2천여 칸 피염(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석탑, 석교, 석축 제외) 고금창기 기록
29	선조 37	만력 32	1604	갑진	관음전 중창, 장수사 중건
30	광해군 4	만력 40	1612	임자	범종각(수미범종각), 좌·우 경루, 남행랑 중건
31	인조 4	천계 6	1626	병인	안양문 중건, 만월당(승당) 창건
32	인조 6	승정 1	1628	무진	문수전, 향로전, 동서 행랑 중건
33	인조 8	승정 3	1630	경오	지하문 중수, 양수암 중건
34	인조 25	청·순치 4	1647	정해	16나한전(16응진전) 창건 및 등상 건조
35	인조 26	순치 5	1648	무자	설법전(무설전) 중건, 현진당(승당) 창건
36	효종 4	순치 10	1653	계사	극락전 후불탱 조성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37	효종 10	순치 16	1659	기해	보전 중수(대웅전), 단확, 대웅전 중건 『한국민족대백화사전』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38	현종 1	순치 17	1660	경자	비로전 중건 단청, 대웅전 조조, 법고 조성, 소조석가모니불 좌상 조성
39	현종 12	강희 10	1671	신해	조사전 창건
40	현종 15	강희 13	1674	갑인	문수전 중수, 문수·보현 양상 조성, 관음상 개금, 시왕전 창건
41	숙종 2	강희 15	1676	병진	중행랑 중창 및 좌우 익랑
42	숙종 3	강희 16	1677	정사	동행랑 중창
43	숙종 4	강희 17	1678	무오	향로전 중수, 동별당 중창
44	숙종 7	강희 20	1681	신유	숙종대왕 인현왕후 비로자나후불탱, 불단 덮개, 옥패, 신발, 중단 삼장탱 등, 하사(왕자탄생 기원), 금로전 보관 「박종기행문」
45	숙종 8	강희 21	1682	임술	대웅전 우루 개와
46	숙종 9	강희 22	1683	계해	서운당 중창, 장수암 중건
47	숙종 12	강희 25	1686	병인	청운교 백운교 중수
48	숙종 14	강희 27	1688	무진	화엄전(비로전) 중건, 수미 범종루 중창, 관음전 개금
49	숙종 15	강희 28	1689	기사	광목당 초건
50	숙종 16	강희 29	1690	경오	좌경루 중건, 법고 조성
51	숙종 21	강희 34	1695	을해	관음전 중창
52	숙종 27	강희 40	1701	신사	관음전 개금
53	숙종 28	강희 41	1702	임오	광목당 중창, 지대동 설립
54	숙종 29	강희 42	1703	계미	석굴암 중창, 관음전 불탱 조성, 부도전 초창, 괘불 조성
55	숙종 31	강희 44	1705	을유	대웅전 서변 개주, 동행랑 중수
56	숙종 34	강희 47	1708	무자	계천의 고적판 개간 『불국사사적』, 무설전 중건, 자하문, 범종각 단청, 심매법당 중창
57	숙종 35	강희 48	1709	기축	현진당, 만월당 중창(승당)
58	숙종 38	강희 51	1712	임진	동철 대동해 주성, 중 115근, 시왕전 단청
59	숙종 40	강희 53	1714	갑오	대웅전 우루 개와
60	숙종 41	강희 54	1715	기미	우경루 중창, 청운교·백운교 중수, 삼존 개금(비로, 미타, 관음),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미륵, 갈라, 양보처존상 개금
61	숙종 42	강희 55	1716	병신	시왕전불탱 조성, 성행당 이건, 금구 주성, 광목당 중창
62	숙종 44	강희 57	1718	무술	505근 수철증 주성, 명월요 중창, 석굴암 중창, 관음전 단확, 우경루 단확
63	숙종 46	강희 59	1720	경자	조실 조성, 극락전 단확, 화엄전(비로전) 중창
64	영조 1	옹정 3	1725	을사	조사전 중창
65	영조 3	옹정 5	1727	정미	절 안에 정자 조성
66	영조 4	옹정 6	1728	무신	대종 주성, 3요사 이건, 경루 하축 단장
67	영조 5	옹정 7	1729	기유	시왕전, 향로전, 남루 중창, 대웅전과 제전 개와, 3채 요사 석단(경루)아래 이건(담장 쌓음)
68	영조 6	옹정 8	1730	경술	대웅전 및 좌우 익랑 단확, 대웅전 우루 기와, 대웅전 중단 삼장탱 조성
69	영조 7	옹정 9	1731	신해	대웅전 기와 보수, 첨성각 신축 (법당 동우에 건립)
70	영조 12	건륭 1	1736	병진	동행랑 중창
71	영조 13	건륭 2	1737	정사	안양문 중창
72	영조 16	건륭 5	1740	경신	비로전 후불탱 조성, 금고 건립, 활암동은 『불국사고금창기』 편찬
73	영조17	건륭 6	1741	신유	광목당 중건
74	영조 25	건륭 14	1749	기사	광목당 중건, 일광당 선실 중건
75	영조 26	건륭 15	1750	경오	극락전 중수
76	영조 34	건륭 23	1758	무인	적광전 중창(비로전)
77	영조 35	건륭 24	1759	기묘	명부전 중창(시왕전)
78	영조 36	건륭 25	1760	경진	나한전 본래 기초로 이건 (16응진전)
79	영조 41	건륭 30	1765	을유	대웅전 중창
80	영조 43	건륭 32	1767	정해	대웅전 단확, 박종의「불국사기행문」
81	영조 45	건륭 34	1769	기축	대웅전 3존, 관음전 독존 개금 중수, 가섭, 아난 존자 신화상 조성, 대웅전 후불탱 조성(보물), 제석천용회 완성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82	정조 3	건륭 44	1779	기해	불국사 중창, 교대 및 정각 일부 중창, 극락전 기단 중수, 기단석 새김「불국사복역공덕기」
83	정조 5	건륭 46	1781	신축	자하문 중창「1966년 상량문」, 범종각 중수
84	정조 20	가경 1	1796	병진	일양산, 인로변, 관음 포단, 나한전 탁의, 비로·극락전 포단을 주상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85	정조 22	가경 3	1798	무오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구품연지)
86	순조 5	가경 10	1805	을축	비로전 말로 중수
87	순조 22	도광 2	1822	임오	『불국사고금창기』 개판
88	고종 28	광서 17	1891	신묘	석굴(미타굴) 중수.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89	고종 39	대한제국 (광무 6)	1902	임인	불국사 다보탑 기단 4우에 돌사자 있음 『한국건축조사보고』
90	고종 42	대한제국 (광무 9)	1905	을사	비로전 앞 사리탑 일본인 불법 반출, 자하문 연결랑무(요사) 붕괴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91	순종 2	대한제국 (융희 3)	1909	기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1쌍 없어짐 『조선의 건축과 예술』
92	순종 3	대한제국 (융희 4)	1910	경술	무설전 도괴, 거의 쏜寺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비로전 붕괴, 『구품연지요람, 2008, p.144』
93	일제강점기	대정 5	1916	병진	조선고적도보 발행, 수선목록 및 사양서 공사 방법 작성
94	일제강점기	대정 6	1917	정사	수선목록(건조물) 실측 실시
95	일제강점기	대정 7	1918	무오	불국사 경내 실측도,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 국가기록원, 1918.
96	일제강점기	대정 8	1919	기미	1차 수선공사(1918~) 석탑, 석교, 석축,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
97	일제강점기	대정 11	1922	임술	대웅전 불전 기단부, 주변 돌담, 기초, 수토구 및 석 계단, 축 벽칠 등 사역 전체 정비 공사
98	일제강점기	대정 12	1923	계해	범영루 수리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99	일제강점기	대정 13	1924	갑자	대규모 개수공사(전면석교, 석담 복원, 법당 중수 등)
100	일제강점기	대정 14	1925	을축	2차 수선공사(1922~) 극락전 중수,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불국사 다보탑 해체보수(사리장엄구, 불상 2구 등 행방불명), 팔방금강좌 정비
101	일제강점기	소화 8	1933	계유	사리탑 귀환, 삼층석탑 실측 및 금강좌 탁본 실시, 도로 개수공사, 경내 정리
102	일제강점기	소화 10	1935	을해	사리탑 각 낙성석과 준공, 『불국사 삼층석탑수리보고서 I』
103	일제강점기	소화 11	1936	병자	사역 정비 보수사업, 석단, 석교, 회랑지 수리
104	일제강점기	소화 19	1944	갑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한마리 극락전 앞 보존.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105	대한민국		1960	경자	안양문 중건 『구품연지요람』 2008, P.215. 『불국사』 대원사 발행, 강릉 임영관 본뜸
106	대한민국		1966	병오	석가탑 해체 복원, 사리장엄구 발견, 2층 옥개석 3층 탑신부 일부 파손(일부 보수)
107	대한민국		1973	계축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좌경루, 회랑 복원. 대웅전, 극락전, 범영루, 지하문, 안양문 단청 수리. 청운·백운교 돌난간 복원, 불이문 건립, 석가탑 상륜부 복원, 불국사 다보탑 보수
108	대한민국		1975	을묘	일주문, 천왕문 건립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09	대한민국		1979	기미	나한전 건립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10	대한민국		1980	경신	불국사 삼층석탑 옥개석 보존처리(수리)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I』
111	대한민국		2010	신묘	불국사 다보탑 수리 (상륜부 난간)(2008~2010)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112	대한민국		2016	정유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해체 보수(2011~2016)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I』
113	대한민국		2017	정유	불국사 다보탑 수리 (2016 .9. 12.지진, 난간 보수)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14	대한민국		2018	무술	불국사 박물관 개관(11월)

III. 불국사 가람배치의 변화

신라불교는 종교적인 신앙과 아울러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을 기원하는 호국호가(護國護家)의 신앙에서 왕실, 귀족과 신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비호를 받고 그 속에서 사찰의 번창과 함께 승려의 지위도 높아졌다. 그런데 신라 왕경을 중심으로 불교가 차차 확대되어 통일신라 전후로부터 산간 불교로 진출하게 된 것도 자연의 이세(理勢)라 하겠다.⁴³⁾

9세기 이후에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은 선종의 유행이었다. 선종은 소의경전에 의하여 그 종파를 구분하는 교종과는 대조적인 입장에 섰다. 이러한 선종은 선덕여왕 때에 처음 전개한 이후 9세기 헌덕왕 대 도의(道義)⁴⁴⁾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이해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행하여 9산, 즉 9개의 파가 성립되었다.⁴⁵⁾

조선시대 불교를 보면, 태조는 정치적으로 억불숭유를 채용하였으나 종교적 신앙과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교를 배척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불사(佛事)와 반승(飯僧)⁴⁶⁾이 많고 규모가 큰 것은 전기와 다름이 없었으나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태조는 도첩제⁴⁷⁾를, 태종은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태종은 전국에 242개 사찰만을 남기고 그 외 사원은 훼손하였다. 성종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경국대전』에 강력한 억불정책을 넣어 불교를 배척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탄압 속에서 불교는 호국불교에서 특권층의 일가(一家)⁴⁹⁾불교를 이루면서 도시의 평지사찰에서 이와 인접한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선종이 융성하기까지 불교사상 전파와 경행(經行)⁵⁰⁾의 도량으로 삼았으며 산간으로 잠입하면서는 서민들의 토속신앙과 융합하여 조선의 억불정책

43)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45, p.691.

44) 남북국시대 최초로 중국의 남종선을 신라에 전한 승려로서 성은 왕씨(王氏).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며 도의는 법명이다. 북한군(北漢郡) 출생.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3.15.)

45)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9, p.127.

46) 승려를 공경하는 뜻에서 재식을 베푸는 행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3.15.)

47) 승려가 출가했을 때 국가가 허가증을 발급하여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48) 李基白, 앞의 책, p.232.

49) 한 집안(一家): 성(姓)과 본(本)이 같은 친척.

50) 선원에서 좌선 중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할 때 일정한 구역을 가볍게 걷는 수행을 지칭하는 불교 수행법.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3.15.)

에 따르는 퇴락 전까지 번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변천은 그대로 가람배치에 반영되어 평지사찰에서 구릉사찰로, 이는 다시 산지사찰로의 과정을 밟게 된다.⁵¹⁾

사찰건축의 배치유형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이르는 불사평면(佛寺平面) 및 배치론(配置論)에서는 평지와 산지로⁵²⁾ 나누어 탑 기준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일탑식, 이탑식, 자유식으로 나누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먼저 일탑식이 중국에서 들어와 성행하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평지 이탑식이 배출되고 신라중기 이후에는 산지 가람배치로 변한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완성한 선종가람의 형식을 계승하여 이것을 더욱 자유화 하였다.⁵³⁾ 통일신라 이후에 탑의 중요성이 희박해져 예경의 대상에서 사찰의 장엄물로 변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한 이탑식이 발생하고 선종이 유행하면서 사찰은 대부분 산지에 경영하게 되고 고려에 들어와서 엄격하였던 가람제도가 다양한 배치로 변하여 자유식이 등장한다. 결국 유형분류의 기준은 가람배치의 발전과정을 연속적 성질로 파악하여 과도적 중간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본다.⁵⁴⁾

첫째, 탑의 성질 따라 일탑식, 이탑식, 무탑식 나누고,
둘째, 입지 조건에 따라 평지형, 구릉형, 산지형으로,
셋째, 축선 성질에 따라 중심축형, 직교형, 자유형으로 나눈다.

신라의 평지사찰 가람배치는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중문-단탑-금당-강당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이다. 삼국통일 이후 입지가 구릉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구릉사찰은 중문-쌍탑-금당-단석지-강당 등의 전각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은 평지사찰과 동일하지만 전각과 탑이 많아지고 있다.⁵⁵⁾

불국사의 유형을 분류하면 평지가람에서 산지가람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중간형으로 구릉지 이탑형이며, 대웅전 영역의 배치는 평지사찰과 동일하게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자하문을 지나면 기존 1탑 형식에서 탑이 2개

51)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2006, pp.211~212.

52) 藤島玄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2, pp.100~102.

53) 鄭寅國, 앞의 책, p.136.

54) 鄭寅國, 위의 책, p.137.

55)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제49호, 2020, p.337.

로 늘어나고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배치되고 주변은 회랑으로 구획 짓고 있다. 서쪽 1단 아래 극락전 영역은 남-북을 중심축으로 안양문 지나 극락전으로 들어서는 또 다른 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두 개의 축선을 가진 가람이다. 한국의 주요 사찰 건축 배치 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⁵⁶⁾

경주 불국사는 신라의 동악인 토함산(吐含山)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불국사의 지형은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북고남저와 동측이 높고 서측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에 따라 석축을 가구식으로 조화롭게 쌓았으며, 사역은 크게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으로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의 2축선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가람배치와 당우를 볼 때, 하늘에서 연꽃이 떨어져 피어나는 형국으로⁵⁷⁾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할 수 있다. 산줄기는 동쪽에서 내려왔고, 건물은 남쪽을 향하면서 넓은 산야를 바라보고 있다.⁵⁸⁾ 토함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구릉지 가람으로 자연의 지세를 따라서 동·서로 길게 석축을 쌓아 넓은 중심구역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곳을 중심 삼아 가람을 조성하였다. 오늘날 불국사를 구성하는 전각을 임진왜란 이전 가람 규모와 비교했을 때, 중심구역만 겨우 남아있는 정도이지만 그나마 석조물들은 창건 당시의 모습을 지니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국사는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무설전,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범종각, 박물관, 충지당, 미술관, 종무소, 강원, 후원, 선원, 정혜료 등의 전각과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 사리탑,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같은 석조물이 조화롭게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불국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예불영역⁵⁹⁾과 수행영역⁶⁰⁾의 두 구역으로 나눈다. 사역 중앙에 있는 대웅전 일곽과 극락전 일곽 그리고 그 뒤 1단 높은 곳의 관음전(觀音殿)과 비로전(毘盧殿), 나한전(羅漢殿)에 이르기까지의 구역을 예불영역으로, 그리고 중심영역을 벗어난 북쪽 계곡 너머에 있는 수행공간 선

56) 鄭寅國, 앞의 책, p.215.

57)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慶州市, 1976, p.26 插圖1. (佛國寺 古圖, 吐含山佛國寺圖 ‘天花落地懸旗形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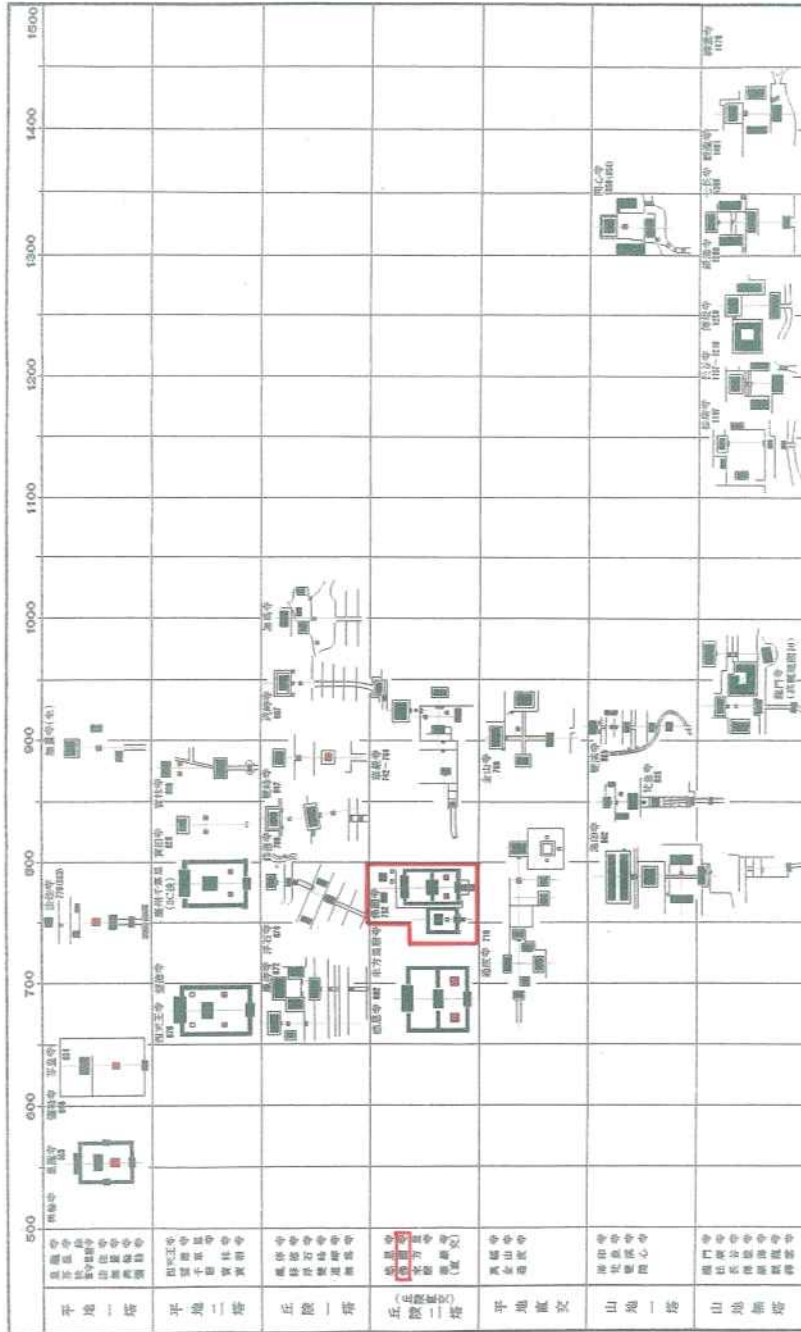
58)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插圖2. (佛國寺 古圖, 吐含山佛國寺圖 ‘甲卯龍落壬坐丙向’.)

59) 불전에서 의식이나 기도하는 공간을 의미.

60)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공간으로 강학영역을 포함한다.

<표 3> 한국 사찰 건축 배치 유형 도표 (출처: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85, p.215)

韓國寺刹建築配置類型圖表



원과 대웅전 옆 극락전을 지나 서쪽 끝자락에 있는 강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선원과 강원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선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는 가람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동원 사역에는 자하문, 대웅전, 무설전을 남북 축선에 배치하면서 회랑을 둘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대웅전의 동·서 측면에는 익랑이 놓여 회랑과 연결되고 남회랑의 동측 모서리에 좌경루가 있고, 서측 모서리에는 범영루가 배치되어 있다. 자하문 남측에는 청운교·백운교의 석계가 있어 대웅전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대웅전 서쪽에 한 단 낮게 별도로 구획한 서원은 남측으로부터 연화교·칠보교를 통하여 안양문을 지나면 중앙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다. 동원에 불국사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을 안치하였다면 서원에는 그와는 달리 당대 신앙인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하였다.

그리하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 그 북쪽에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배치된 관음전과 비로전으로 종합되는 전체 가람배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타의 대·소 가람은 이들 동·서의 두 구획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산재하였으며 그 일부는 동·북으로 오늘의 송림을 따라 산기슭에 배치되었다. 이같이 동·서 두 축의 가람을 제외한다면『불국사사적』에 보이는 수많은 법당과 요사(寮舍)들은 그 비중이 동·서의 본존을 따르지 못하는 불보살의 배치, 또는 승려의 기거를 위한 승방 등 부속 건물로 추정된다.

『불국사고금창기』에 전하는 가람의 규모와 장엄을 옮겨보면,⁶¹⁾

大雄殿 二十五間 階際四隅高八尺四寸 圍八十八把 各面置梯八步

東翼廡 三間

西翼廡 三間

東多寶塔 四面欄楯莊嚴

西釋迦塔 一名無影塔(中略)

八方金剛座臺

61)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272~274.

光明臺 一座
露柱 一座
奉爐台 一座
東長廊 二十間
西長廊 二十間
左經樓 三間
右經樓 三間(中略)
須彌梵鍾閣 三間(中略)
升天橋 一區
南行廊 十間
紫霞門 六間
青雲橋
白雲橋
極樂殿 十二間
東行廊 十八間
西行廊 十八間
前後行廊 合二十八間
光明臺 一座
奉爐臺 一座
安養門 六間
七寶橋
蓮花橋
九品蓮池
毘盧殿 十八間
光學浮圖 一座或云八相(祖)
師未孰是
奉爐臺 一座
觀音殿 十六間(中略)
東行廊 五間
西行廊 五間

光明臺 一座
南行廊 十間
海岸門 一間
洛伽橋
翠竹樓
綠楊閣
無說殿 三十二間
地藏殿 十二間
奉爐臺 一雙
東西廊廡 各五間
南明鏡堂 五間
杖錫樓 五間
鐵壅門 三間
六途門 三間
六道橋 (中略)
十王殿 四.五間
東 堂 四間
西 堂 四間
南 樓 四間
不二門 六間
天王門 六間
一柱門 三間
十六應真殿 四.五間
文殊殿 五間(中略)
光學藏講室 二十一間
東別堂 五間
西別堂 五間
祝聖樓 七間
光明臺 一座
征路門 三間

沐室 三間
觀庫 十間
凝香閣 三間
金剛門 六間
五百聖衆殿 三十二間
東西長廊 各十間
趣靜門 三間
香爐殿 五間
千佛殿 二十五間(中略)
一路門 三間
看星門 三間
山呼樓 七間
華藏樓
無碍樓
圓融樓
十玄門 五間
萬歲樓 二十二間
王子問 說禪堂
尋劍堂
東別堂
西別堂
清風寮
明月寮
左右養老堂
內客室
外客室
迎賓寮
送客室
東西溜堂
省行堂 五間 等 四十八房 煩不錄

위와 같은 많은 전각과 장엄물들이 창건 당시를 전한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아마도 임진왜란 이전의 장엄을 오늘에 전하여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⁶²⁾

구룡지 이탑형의 불국사를 『불국사고금창기』에 나타난 가람의 규모와 장엄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규모와 장엄을 통해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보면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까지 차지하는 방대한 사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불국사의 전성기에는 전각이 127동 2000여 칸이었다고 전하고 있으나⁶³⁾ 상세한 가람배치는 알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가람배치의 원형을 1490년을 선정하여 각종 사료와 답사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가람배치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창건 이래 변화 없이 이어지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선의 가람배치를 기초로 그 변화상을 조선시대부터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전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전각의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변하는 주전각⁶⁴⁾과 본고의 과제로 현장 답사와 사료를 통해 그 위치를 정하고 변화상을 그려낸 부전각⁶⁵⁾, 그리고 문루로 불리는 기타 전각⁶⁶⁾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가람배치도는 고금창기에 나타난 전체전각 79동 535칸 규모를 추정 가람배치도로 예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1. 1490년 가람배치

1490년 가람은 주요 전각 18개 동 중에 주전각은 5개 동이 있고 부전각은 8개 동 중에 시왕전과 응진전을 제외한 6개 동이 있다. 시왕전과 응진전은 임진왜란 이후에 초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전각은 5개 동이 있다. 조선 전기 불국사는 토함산 자락에 자리한 79동 535여 칸의 대가람이었다.⁶⁷⁾

사역의 전면에 인공연못인 구품연지(九品蓮池)가 있고⁶⁸⁾ 석교를 지나

6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30.

63)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 72.

64)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5동 전각.

65)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학장강실- 8동 전각.

66)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 5동 전각.

67)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72.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회랑, 문수전, 관음전, 비로전, 안양문, 우경루, 극락전, 향로전, 광학장강실, 지장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의 전각과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서석탑, 다보탑, 사리탑과 같은 석조물이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사역의 동원에는 대웅전을 기준으로 한 남-북 축선을 중심으로 자하문, 대웅전, 무설전이 있고 무설전 뒤 북쪽 1단 높은 곳의 동·서로 배치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에는 극락전을 기준으로 또 다른 남-북 축선이 안양문, 극락전으로 이어진다. 그 뒤 북쪽으로 향로전과 광학장강실이 있다.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에 자리 잡은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에 이르기까지 불국사는 광범위한 사역으로 구성되었다. 예불영역은⁶⁹⁾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 오백성중전, 천불전이 있다. 강학공간은⁷⁰⁾ 무설전과 광학장강실이 있고, 그 외에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불국사 사적기에 나오는 많은 전각과 요사들을 볼 때, 수행공간과 승려의 생활 공간이 사역 전체에 산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을 향하는 청운교·백운교는 석가모니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자하문에 연결되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의 동서에 쌍탑이 있다. 그리고 남-북 중심 축선을 따라 중앙에 금당(대웅전)을 자리 잡게 하였으며, 그 북쪽에는 강당(무설전)을 두어서 남쪽으로부터 차례로 문-탑-금당-강당의 순서를 따랐다. 이들 문루와 금당을 둘러서 강당 좌우까지 회랑을 돌렸는데, 특이한 것은 금당(대웅전) 좌우에도 회랑(익랑)이 연결되어 있다.

연화교·칠보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통하는 안양문에 연결되어 있다. 문루와 극락전을 둘러서 회랑이 연결되었고 회랑 너머 북쪽에는 향로전이 있다. 향로전 뒤에는 강학공간인 광학장강실이 있다. 고금창기 기록에 나타나 있는 응진전과 시왕전은 창건연대가 각각 1647년과 1674년으로 가람배치도에는 없다. 1490년의 가람배치를 경내 들어가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품연지(九品蓮池)는 대웅전의 입구인 청운교와 백운교 앞에 자리하고 있다. 타원형이며 크기는 동서로 39.5m, 남북으로 25.5m, 깊이가 약 2~3m 정도의 인공연못이다.⁷¹⁾ 수원(水源)은 토함산에서 내려오는 물

6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60~62.

69) 불전에서 의식이나 기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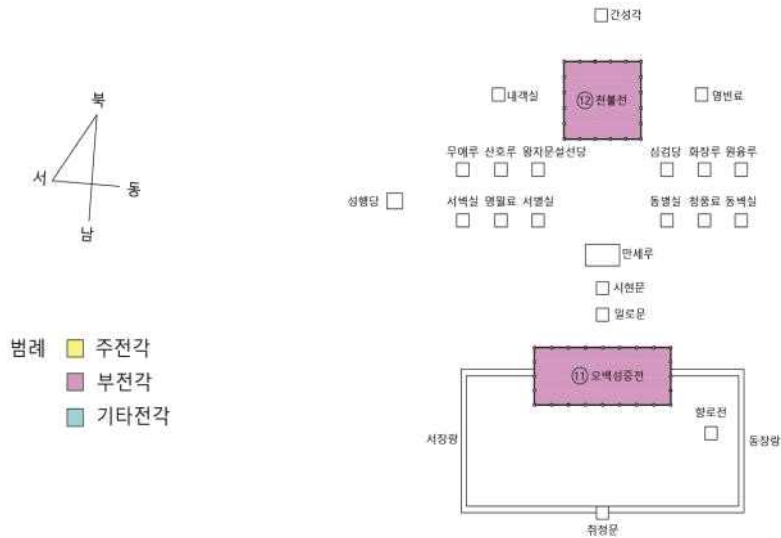
70) 경전공부나 설법을 듣는 학습공간을 의미한다.

불국사 기람의 규모와 장엄(고금창기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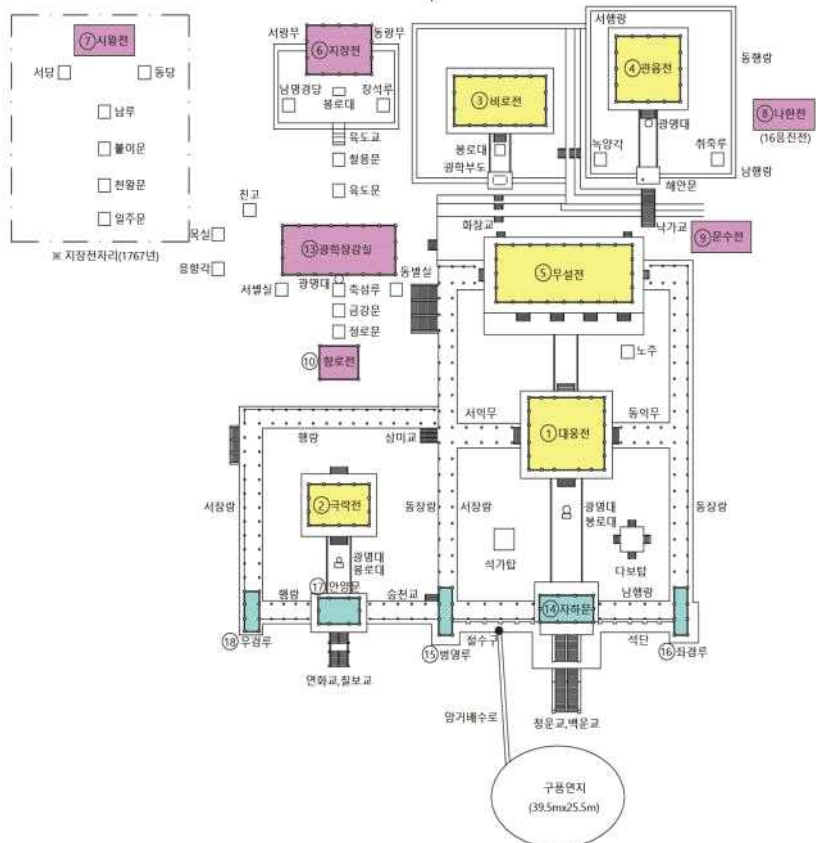
※ 불국사 면적 : 388,879㎡(117,842坪)

구분	전각의 명칭과 크기																	고금창기 현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통	칸수
大殿(12)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화엄전)	관음전	무량전(살바전)	지장전	사왕전(현부전)	16층진전(나팔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문학당					13	212
寶(1)	25	12	9	18	15	16	9	32	32	12	•	4.5	•	4.5	9	5	•	5	32
堂(8)	명정당	시왕	동당	서당	전불	간성각	•	•	•	•	5							8	18
閣(4)	명정당	관음전	•	•	•	•	•	•	•	•	•	•	•	•	•	•	•	3	6
室(10)	명정당	동불전	서불전	목심	전불	동불전	서불전	내계실	외계실	승객실	동계실	서계실	•					10	13
寮(3)	명정당	정동요	명월요	영빈요	•	•	•	•	•	•	•	•	•	•	•	•	•	3	•
廊(1)	명정당	진고	•	•	•	•	•	•	•	•	•	•	•	•	•	•	•	1	10
樓(11)	대웅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2	54
門(13)	대웅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
廊(16)	대웅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	•
塔(2)	대웅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	•
浮屠(1)	명정당	비로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	•
光明台(4)	대웅	극락	관음	문수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	•
奉違台(4)	대웅	극락	비로	지장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1좌	•	•
露柱(1)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대웅	•	•
橋(7)	대웅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1구	•	•
九品蓮池(1)	명정당	구룡연지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
합계																		79	535
																		18	212

〈표 4〉 불국사 기람의 규모와 장엄



※ 별도문리산(개국시대 표시)



<그림 1> 불국사 고금창기 전체전각 추정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이 관음전 앞을 지나 대웅전 앞으로 화강암으로 조성한 수로를 통해 범영루와 자하문 사이에 있는 절수구로 떨어져 암거 배수로를 지나 구품연지로 흘러 들어간다. 배수로와 관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수원인 연지의 북서쪽 샘의 수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연못의 수원이 되었을 수도 있다.⁷²⁾ 화엄불국사의 연화교·칠보교와 관련있는 구품연지에 대한 내용은『불국사고금창기』에 “九品蓮池”와 “嘉慶三年 戊午年 正祖3年(1798)에 蓮못의 蓮잎을 뒤집다”라는 기록이 있다.⁷³⁾

구품연지를 지나면 가구식 석축을 자연의 지세를 따라서 동·서로 길게 쌓아 대웅전을 비롯해 극락전, 회랑 등을 아우르는 전면 석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석축은 병렬된 2단의 석주에 크고 작은 돌을 함께 섞어 개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굽고 굳센 돌기둥과 돌대를 둘러 통일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석축의 입면은 각 구간별 지반 조건의 차이가 반영된 구조이며, 나아가 관찰자의 위치를 반영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서쪽 입면에서는 인접하여 이동하는 사람의 시점을 고려하여 석조틀을 바닥 경사의 변화에 맞추어 계획하였으며 남쪽 입면에서는 구품연지를 비롯한 넓은 마당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때 드러나는 전체적인 음영효과를 고려하여 돌출부의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⁷⁴⁾ 일정 간격마다 정교하게 다듬은 석조틀을 배치한 것은 구축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자 내진구조로서의 성능을 가지는 합리적 구축법으로 볼 수 있다.⁷⁵⁾ 석단의 두 모퉁이 위에는 경루(經樓)와 종루(鐘樓)를 만들었다. 대웅전 정면 석계의 석축은 동틀돌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았다. 그리고 양옆의 석축은 거대한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잘 가공된 가구식 기단을 올린 혼합식 기단으로⁷⁶⁾ 가구식 기단의 하부 장대석을 그랭이질해서 자연석 기단 위에 올렸다. 단일 건물 기단은 아니지만 대웅전과 극락전, 전면 회랑의 대석단이다.

청운교·백운교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자하문 앞에 설치된 2단의 대석제(大石梯)이다. 위가 청운교, 아래가 백운교이고 청운교는 16단, 백운교는 18단으

7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73)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61.

74)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147.

75) 송경하, 위의 책, p.148.

76)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 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p.62.

로 34계단이다.⁷⁷⁾ 가공 수법이 정교하고 규모가 웅대하다. 백운교를 오르면 계단참(階段站)⁷⁸⁾이 있어 서쪽으로 안양문으로 통하고 다시 청운교를 오르면 자하문을 통하여 대웅전을 대하게 된다. 다리 아래로는 모두 통로가 열려있고 통로 상부에 홍예(虹霓)를 틀어 마감하였다. 백운교 아래 통로는 특히 크다. 석제 양측과 중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양측에 난간이 있다.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수석을 위·아래로 세웠다. 청운교 위의 계단참, 좌·우와 백운교 위, 계단참, 좌·우에는 갑석(甲石)을 덮었는데, 자하문 추녀에서 눈썹 지붕 위로 떨어진 낙숫물은 사방으로 튀어 흩어지므로 땅바닥의 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석탑 옥개석(屋蓋石)과 전각의 반전(反轉)과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 석제(石梯) 좌·우 석축의 구조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석제는 8세기 중엽인 중창시기에 세워진 것이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명칭은 『불국사고금창기』에서 볼 수 있다.

자하문(紫霞門)은 대웅전 정면에 있는 진입문이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기단은 장대석 2층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운두와 주좌를 가진 원형 초석을 두고 있다. 정면 중앙에는 이 문으로 오르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다.

범영루(泛影樓)는 대웅전의 정면 우측에 있는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가 세워졌음으로 대웅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⁷⁹⁾ 초석은 주좌 없는 방형 형태이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수미산형 석주로서 다른 길이의 사각 장대석을 직교하여 7단을 쌓아 올려 만든 ‘+’형태의 석주로 되어 있다. 이를 일본 학자들은 범룡사 금당⁸⁰⁾의 운형첨차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⁸¹⁾ 범영루 누하주가 ‘+’형태의 운형첨차를 연속

77) 문화재청, 청운교·백운교, <http://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20.12.15.

78) 계단 등의 도중에 설치되는 수평면 부분을 말한다. 계단, 사다리, 잔교 등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도중에 계단참(층계참)을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휴식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출처: 최상복, 계단참, 『산업안전대사전』, 2004.)

79)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80) 일본 나라현에 있는 절(法隆寺: 호류지)로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81)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 도서출판 발언, 1995, p.280.

해서 쌓아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안상 문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내부는 범종을 두었다.

좌경루(左經樓)는 대웅전의 전면 좌측에 있는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올렸다. 대웅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좌경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⁸²⁾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팔각형으로 모각한 석주로써 기둥의 하부와 중간부에 연화문의 띠를 두른 형태를 하고 기둥 상부는 불국사 다보탑처럼 십자형 공포를 2단 올리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은 대웅전의 앞 쌍탑 중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⁸³⁾ 기단부는 단층으로 방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亞’자 모양이다. 각 모서리에 우주를 세우고 우주와 탕주 사이는 판석을 들여 세워서 면석을 구성하고 있다. 기단 4면에는 갑석을 갖춘 계단이 있다. 계단 입구 양쪽에는 엄지기둥을 세우고 엄지기둥에는 동자주와 소로를 모각하고 돌난대가 있다. 디딤돌은 기단 갑석까지 9단이며 소맷돌은 기단 면석부와 같이 탕주와 면석을 입석으로 마감하였다. 갑석 위에 1층 탑신은 별석으로 갑석의 심주 받침석 외곽으로 판석 4매를 ‘卍’자 형으로 결구하고 맞댄이음을 하였다. 갑석 위 네 모서리에는 석사자(石獅子)가 배치되어 있다.

탑신부는 5개의 석주로 구성되어 1층 탑신부 네 모서리에는 평면 ‘ㄱ’자형 우주를, 가운데는 방형 석주를 세웠다. 우주 위에는 각기 별석으로 된 2단 옥개 받침으로 하단은 ‘+’자이고 상단은 ‘ㄱ’자로 끝은 모두 원호로 굴려서 전체적으로 목조 건물의 첨차(檐遮)처럼 표현하였다. 가운데 방형 석주는 별석의 받침석 위에 세웠다. 받침석은 갑석과 같은 두께로 가운데를 각호각형(角弧角形) 3단으로 초석 주좌와 같이 도드라지게 다듬었다. 기둥 위에도 별석의 옥개 받침이 있는데, 아래 석주 받침과 똑같은 모양으로 뒤집어서 1층 옥개석을 받고 있다. 1층 옥개석은 방형으로 5매로 결구되어 있다. 가운데 넓은 판석

8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83) 석가탑출토 목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1038년.

을 놓고 그 외곽으로 장판석 4매를 돌려놓았다. 전각부에는 풍령(風鈴)등 장식을 달았던 구멍이 합각선 끝부분과 전각부 양쪽에 1개씩 모두 3개가 있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가 있다. 복발은 특이한 편구형(扁球形)으로 상부에 연화문을 조각하고 가운데 가로로 두 줄 돌대를 두르고 4등분하여 화문(花紋)을 조각하였다.

서석탑(석가탑)은 대웅전의 앞, 쌍탑 중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⁸⁴⁾ 탑 주위에는 장대석으로 연결하여 방형(方形)으로 구획된 팔방 연화좌(蓮華座)가 있다.

기단부는 이중 기단으로 상·하 층 기단은 모두 양쪽에 우주(隅柱)를 두고 가운데는 탕주(撐柱) 2주씩 두어 3구로 구분하였다. 하층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을 1매 석으로 다듬고 그 위에 갑석을 올려놓았다. 하층 기단 갑석은 네 모서리에 ‘ㄱ’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상면 가운데 호각형(弧角形) 받침과 가장자리로 물매는 뚜렷하다. 이음 위치는 탕주 위를 벗어나 있다. 갑석은 지대석과 비슷하게 내밀었다. 상층 기단 면석은 네 모서리에 ‘ㄱ’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구 수법은 면과 마구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ㄱ’자형 결구법이다. 이음은 맞댄 이음하고 은장으로 보강하였다. 상층 기단 갑석은 네 모서리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ㄱ’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단부(端部)에 부연과 가장자리로 얇은 물매가 있고, 모서리에 합각선과 솟음은 없다. 상면 가운데 각형(角形) 2단 탑신 받침이 있다.

탑신부는 각 면에 우주만 모각되어 있고 문비 등 다른 조각은 없다. 1층 탑신에 비해서 2층과 3층은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층 탑신 상면 중앙에 방형 사리공이 뚫려 있다. 탑신부의 특이점은 2층 탑신으로, 1층 옥개석 상면에 있는 각형 2단 탑신 받침이 2층 탑신 하부에 모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옥개석 상면에 있는 탑신 받침이 탑신 하부에 모각된 예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석가탑이 유일하다. 옥개석은 상면에 각형 2단 탑신 받침이 있고, 경사를 이루다가 단부에서 살짝 반전한다. 귀마루의 합각선은 뚜렷하고, 처마의 양곡은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서 약간 반전한다. 전각 양면, 처마 저면(底面)은 수평 직선이고, 물뚫기는 없고, 안 허리와 양곡은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부에서

84) 석가탑출토 목서지편, 위의 기록.

약간 반전한다. 옥개 받침은 각 층이 직각 5단이다. 전각부에 풍령(風鈴)등 장식을 달았던 구멍이 없는 것도 이 탑의 특징이다. 상륜부는 온전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은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전각이다. 유일하게 전각의 위치와 규모의 변화가 없는 불국사의 주전각이며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정면과 후면, 그리고 양측면의 중앙 위치 4곳에 7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2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10기는 고주로 전면 4기, 중앙 2기, 후면 4기로 되어 총 30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⁸⁵⁾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중앙칸⁸⁶⁾ 또한 전·후 퇴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주불로서 소조로 된 석가모니불 좌상을 모시고 좌·우 측에 보살 입상이 협시하고 그 옆에 존자를 배치한 소조 5존상을 봉안하고 있다.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장소로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건물이다. 이 건물도 위치와 규모의 변화가 없는 전각으로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이고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주좌와 운두가 있는 원형 초석을 놓았다. 불국사의 강학공간이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대웅전 서쪽 극락전 앞에 위치하며 안양문을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석제(石梯)로 아래가 10계단인 연화교와 위쪽이 8계단인 칠보교로 전체 18계단으로⁸⁷⁾ 구성되어 있으며 2단의 석제이다. 석제의 기단은 장대석으로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하여 그 위에 올렸다. 연화교는 디딤돌마다 연화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가공 수법이 정교하다. 다리 아래로는 통로가 열려있고 통로 상부에 홍예(虹霓)를 틀어 마감하였다. 석제 양측과 중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특히 연화교 중앙의 등항(답도)은 계단으로 된 것이

85) 건물의 도리칸(도리방향) 정면 좌·우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궁궐건축에서는 어칸이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정칸으로 정의한다. ; 김왕직, 앞의 책, p.89.

86) 건물의 보칸(보방향) 측면 전·후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칸이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중앙칸으로 구분하였다. ; 김왕직, 위의 책.

87) 문화재청, 연화교·칠보교, <http://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20.12.15.

특징이다. 양측에 난간이 있고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 수석을 위·아래로 세웠다. 이 석제는 8세기 중엽 중창 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화교·칠보교 역시 그 명칭은 『불국사고금창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우경루(右經樓)는 극락전의 전면 우측 끝에 위치하며 건축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극락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세워졌으므로 극락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우경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⁸⁸⁾ 우경루의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내부는 경전을 두고 있다.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규모는 12칸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고, 전면과 후면의 중앙 위치 2곳에 6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았다.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4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금동아미타불 좌상을 봉안하였다.

향로전은 대웅전 서쪽 극락전 뒤에 위치한다.⁸⁹⁾ 건물로 5칸 규모의 전각이며 불전을 관리하는 부전 승려가 기거한다.

광학장강실은 대웅전 서북쪽, 무설전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⁹⁰⁾ 21칸 규모의 건물로써 무설전과 함께 강학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16칸 규모의 전각이다. 기단은 가구식으로 갑석의 우부(隅部) ‘ㄱ’자형 귀틀석에는 석탑 기단 갑석 상면과 같은 수법으로 갑석 밖으로 경사지게 하는 우동(隅

8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89)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吐含山佛國寺圖, 淸 乾隆32年 丁亥(1767), 弊原 坦殿 惠貺, 現 소장처 일본동양문고.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검색일: 2020.11.11.)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插圖 2.

90)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p.52~55. ; 황수영, 『교양국사총서35』, 「불국사와 석굴암」, 1979, p.88.

棟)이 나타난다. 이 기단 위에 하방을 받치는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았다. 불단 상단 중앙에는 주불인 관세음보살을 봉안하였다.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18칸 규모의 전각이다. 기단은 가구식이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금동비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하였다.

사리탑은 대웅전 북쪽, 비로전 정면 앞쪽, 계단 아래에 위치하고⁹¹⁾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보호각에 모셔져 있다. 내부는 사리탑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사리탑(舍利塔)은 외형은 석등과 비슷하다. 팔각형의 하대석에는 큼직한 연꽃잎을 구성하고 장구 모양의 중대석에는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다. 원통형의 탑신 네 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어 불상 2구와 보살상 2구를 양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감실에 모셨다. 독특한 형태의 이 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장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⁹²⁾ 12칸의 전각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명부의 법정을 의미하며 불단은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좌우에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각 5명씩 모두 10명의 명부시왕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문수전은 대웅전의 동북쪽, 무설전 동북 방향 석축 아래에 위치하고⁹³⁾ 5칸 규모의 전각이다. 1740년에 편집된『불국사고금창기』에 “문수전에 안치한 비로석상과 좌우의 문수·보현 좌대인 사자, 코끼리 2구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⁹⁴⁾ <그림 2>는 문수전 터이다.

오백성중전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에 자리하고 있으며⁹⁵⁾ 32칸의 건

91) 鄭寅國, 앞의 책, p.180 ; 九品蓮池會, 『九品蓮池要覽』, 1938년 불국사 경내 배치도, 2017, p.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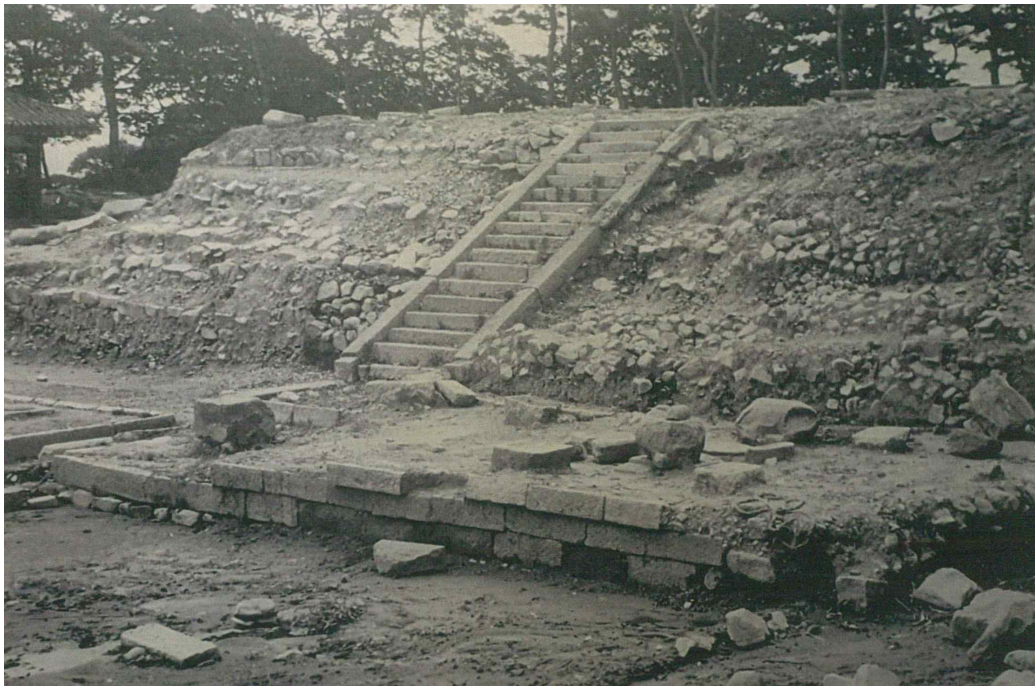
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해 1674년 창건된 명부전(시왕전) 위치로 봄. (朴琮, 『鑑洲集』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插圖2. ; 『佛國寺古今創記』,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廳 資料室, 1998, pp.26~27.)

93) 『佛國寺古今創記』, 위의 책, p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233, 插圖334, 圖版159. ;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 (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 임영애, 『불국사박물관 도록』,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2018, p.256. ;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94)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7.

95)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插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물로써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 아라한을 모신 전각이다.『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석불사(석굴암)의 석불을 조각하여 큰 돌을 다듬어 감개(龕蓋)를 만들려고 하는데 돌이 갑자기 세 토막으로 조각이 났다. 대성이 몹시 아쉬워 하다가 잠시 잠이 든 어느 날 밤에 천신이 내려와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이 일어나 급히 남쪽 령에 뛰어 올라가 향목을 태우고 천신에게 공양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향령이라고 한다. 장차 이곳에 오백천성보전을 지으려 하였으나 불행히도 대성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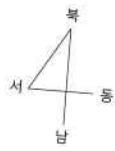


<그림 2> 문수전 터 (출처: 불국사 박물관 전시사진, 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천불전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 오백성증전의 뒤에 자리하고⁹⁷⁾ 있으며 25칸의 규모의 건물로써 불단은 부처님 일천 분을 모신 곳이라 하여 천불전이라 한다.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3>과 같다.

96)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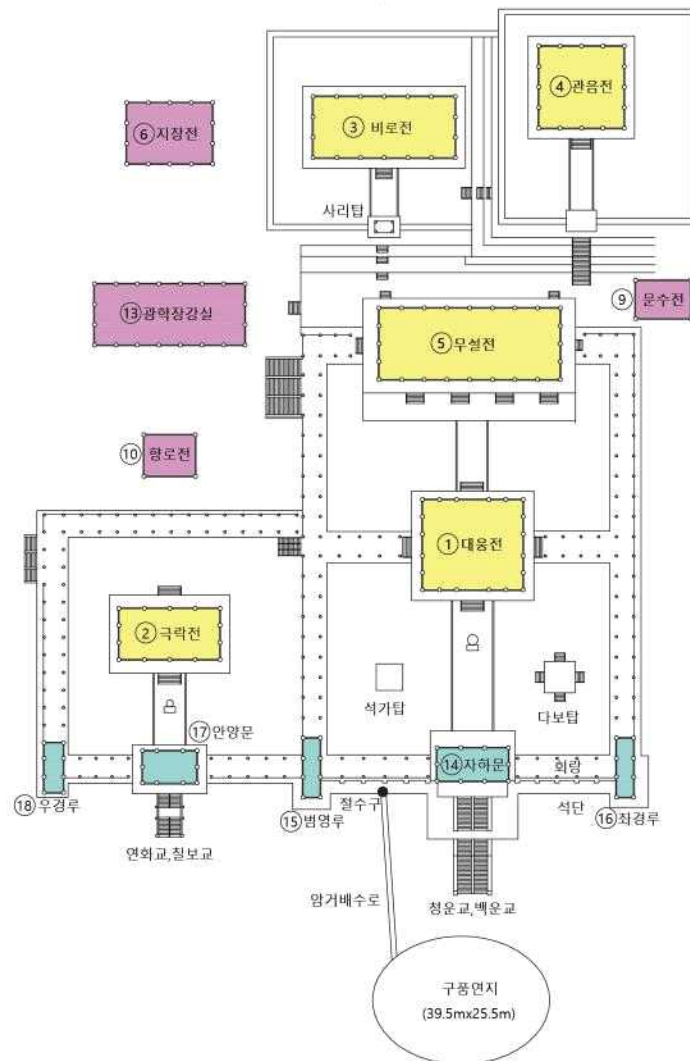
97)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插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범례

- 주전각
- 부전각
- 기타전각

※ 별도분리선(계곡너머 표시)



<그림 3>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2. 1767년 가람배치

1767년 가람은 임진왜란으로 전각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17세기 초부터 중수, 복원이 시작되어 18개 동의 주요 전각 중에 주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일부 축소 복원되었고 부전각은 8개 동 중에 향로전, 문수전이 복원되고 응진전, 시왕전은 새로 창건되었다. 기타 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모두 복원되었고 그 중 범영루만 축소 복원되었다. 조선 후기 가람은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상·전라도 사찰들이 대부분 큰 피해를 입는다.⁹⁸⁾ 불국사도 『불국사고금창기』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전의 127동 2000여 칸이었던⁹⁹⁾ 가람이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대웅전과 극락전, 자하문, 석조물과 금상만이 겨우 남아 중심 구역을 일부 유지하는 정도였다.¹⁰⁰⁾ 임진왜란 후, 17세기 초부터 중창되어 18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역의 전면에 구품연지가 있고 석교를 지나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회랑, 문수전, 응진전, 관음전, 비로전, 안양문, 우경루, 극락전, 향로전, 시왕전 등의 전각과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석가탑, 다보탑, 사리탑과 같은 석조물들이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사역 동원에 있는 대웅전을 기준으로 한 남-북 중심 축선으로 자하문, 대웅전, 무설전 그 뒤, 동쪽에 문수전, 그리고 1단 높은 곳의 동·서로 배치된 응진전, 관음전, 비로전, 시왕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역과 극락전을 기준한 서원의 중심 축선으로 안양문, 극락전과 그 뒤 향로전으로 이어지는 두 구역으로 나눈다. <그림 4>는 불국사 고도이다.

예불영역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응진전, 관음전, 비로전, 시왕전, 문수전으로 구성하였다. 강학공간으로는 무설전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중심 축선의 가람 배치는 조선전기와 변함이 없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몇몇 전각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고 임진왜란 후 18세기 후반까지 활발한 중창 불사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광학장강실, 지장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은 복원하지 못했으며,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범영루는 축소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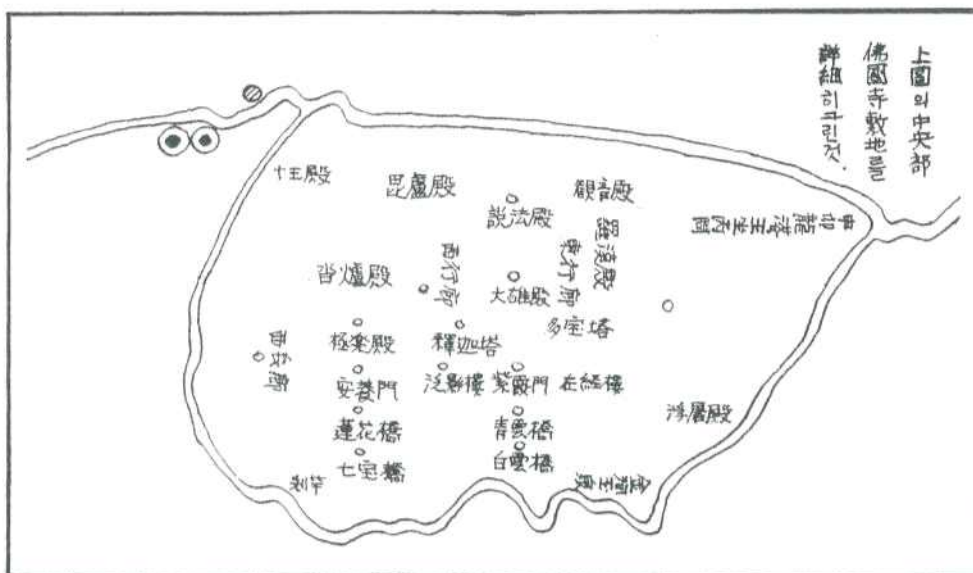
98) 오세덕, 「雲門寺의 建築」,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2017, p.38.

99)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100)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25.



挿圖 1. 佛國寺古圖(其 1)



挿圖 2. 佛國寺古圖(其 2)

<그림 4> 불국사 고도(출처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경주시, 1976, p.26)

시왕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¹⁰¹⁾ 1674년에 새로 건립되었고 전각 규모는 4.5칸의 건물로서 임진왜란 이전 지장전 자리에 축소 건립되었다. 유명계 심판관 시왕(十王)을 봉안한 전각으로 명부전이라고도 한다.

응진전은 대웅전의 북동쪽, 관음전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으며¹⁰²⁾ 1647년 새로 건립되었고 전각의 규모는 4.5칸의 건물로서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전이라고도 한다.

<그림 5>는 1767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이다.

3. 1918년 가람배치

1918년 가람은 18개 동의 주요 전각 중에 주전각은 2개 동만 위치 변화 없이 있고 부전각은 8개 동 모두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구한말 사찰의 관리 부재로 붕괴되었거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하지 못했다. 기타 전각은 3개 동만 위치 변화 없이 남아있다. 대웅전 북쪽으로 1단 위의 영역과 계곡 너머까지 아우르던 사역이 사세가 기울어서인지 19세기 초부터 쇠락길로 접어들었다.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등의 크고 작은 전각들이 붕괴되고 사리탑이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되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도난 등 사찰이 거의 폐사 지경에 이르렀다.

1918년 사역은 전면의 청운교·백운교를 지나 자하문, 대웅전에 이르는 영역과 또 연화교·칠보교를 지나 안양문(통용문), 극락전(본당)에 이르는 영역, 범영루와 두 전각의 당(堂)과 주지실, 응접실만 남아있다. <그림 6>

19세기 들어서면서 좌경루, 우경루, 회랑,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문수전, 응진전, 시왕전, 향로전 등 많은 전각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어 도괴되었다. 석가탑, 다보탑,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같은 석조물만 가람을 지키고 있다. 사역 중앙에 있는 자하문과 다보탑, 석가탑, 대웅전과 그 우측 옆의 당은 대웅전의 부전 승려¹⁰³⁾의 생활 공간인 요사¹⁰⁴⁾로 보이고 대웅전 서쪽 영역

101) 朴琮, 『鑑洲集』 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挿圖2.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02) 朴琮, 앞의 글.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挿圖 2.

103) 예불, 불공 등의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

104) 승려가 거처하는 공간.

은 연화교·칠보교를 지나 안양문, 극락전 그리고 극락전 좌측에는 당이 붙어 있다. 이는 극락전의 부전 승려가 생활하는 요사로 보여진다. 극락전 전면,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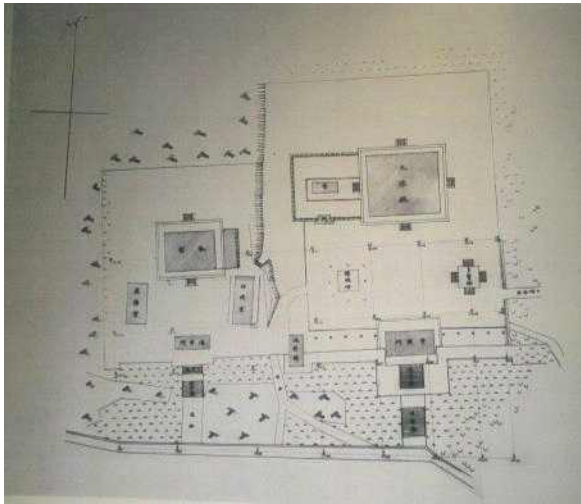


<그림 6> 극락전 앞 주지실, 응접실(1925년)(출처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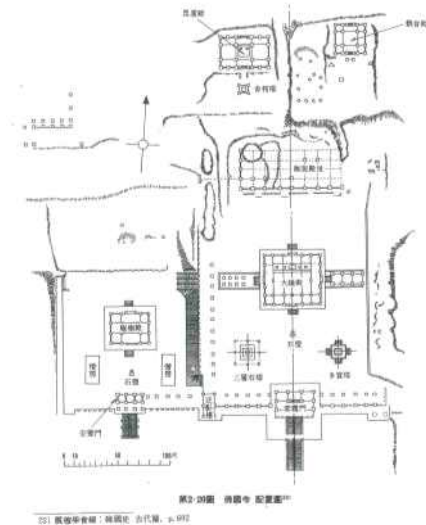
측에는 불국사 주지가 사용하는 생활 공간인 주지실과 극락전 전면 우측에는 응접실이 사찰의 응대 공간으로 있다. 이들 두 건물은 정면에서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주요 불전 주위에 가람배치 형식과 무관하게 붙어있는 당과 승방들은 구한말 사세 약화에 따른 사찰 경제의 궁핍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예불과 수행·강학영역은 대웅전과 극락전에서 함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 두 전각이 가람의 전부이다. 불국사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100여 년간의 쇠락의 길로 들어 각 전각들은 도괴로 거의 공사(空寺)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조선고적도보 발행 및 수선목록을 작성하고 불국사의 경내 실측도를 작성해 두 차례 걸친 수선공사를 진행했다. <그림 7>은 불국사 수선을 위한 경내 실측도이고, <그림 8>은 일제강점기의 진단학회 한

국사 고대편에 수록된 1938년 불국사 배치도이다. 경내 실측도를 바탕으로 그려낸 19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7> 불국사 경내 실측도(1918년)(출처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 국가기록원,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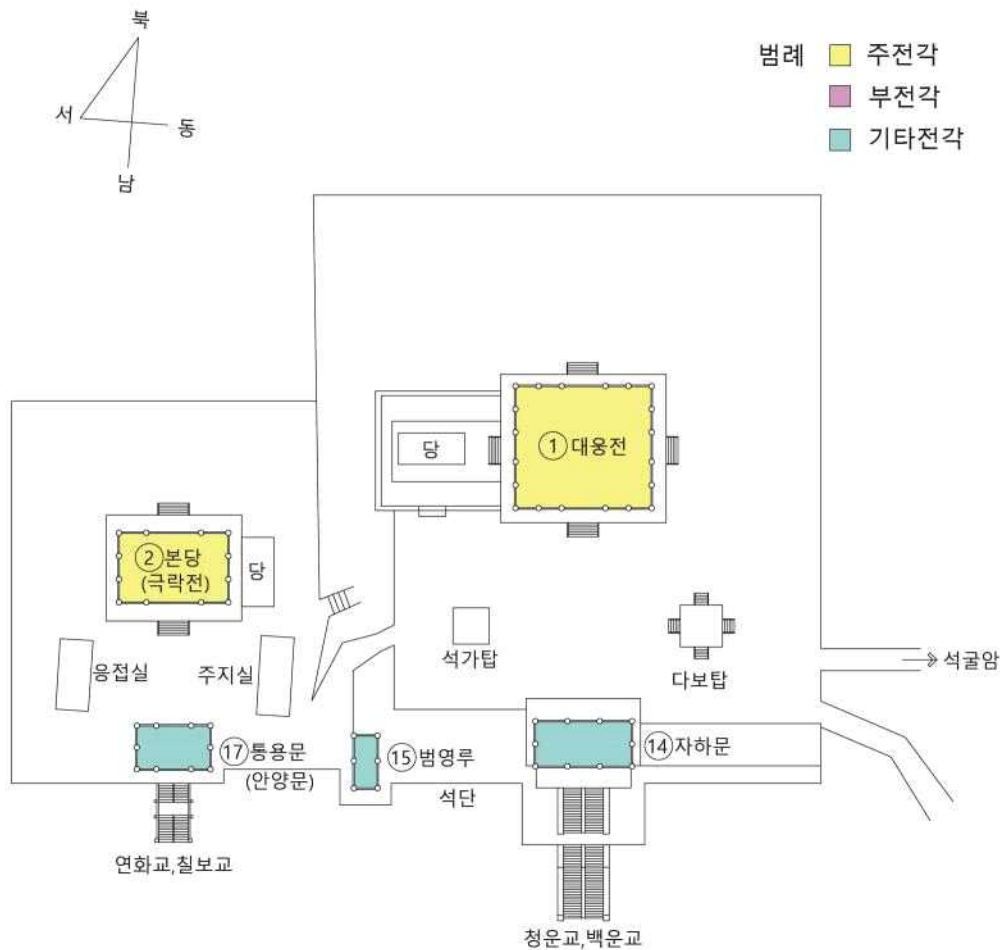


<그림 8> 불국사 배치도(1938년)(출처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45, p.692.)

4. 2018년 가람배치

2018년 가람은 1973년 대규모의 중수, 복원되어 주요 전각 18개 동 중에 주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일부 전각이 축소 복원되었고 부전각은 8개 동 중에 7개 동이 복원되지 못하고 나한전만 증축 이진 되었다. 기타 전각 5개 동은 좌경루를 제외한 4개 동이 위치 변화 없이 복원되었다. 현재 (2018) 가람배치는 크게 예불영역과 수행영역의 두 구역으로 나눈다. 사역 중앙에 있는 대웅전 일곽과 극락전 일곽 그리고 그 뒤 1단 높은 곳의 관음전과 비로전, 나한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역을 예불영역으로, 그리고 중심 영역을 벗어난 북쪽 계곡 너머에 있는 수행영역인 선원과 대웅전 옆 극락전 지나 서쪽 끝에 있는 강학영역인 강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림 10>

예불영역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등이 있어



<그림 9> 19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사부대중들이 편하게 예불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비해 수행영역과 강학영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극락전 북쪽에는 범화전 터가 있으며 그 뒤 북쪽에 1단 높은 곳에는 나한전(웅진전)이 있다. 1767년 관음전 동쪽에 자리하고 있던 나한전을 비로전 옆 서쪽으로 이전 건립하였다. 현재의 불국사 가람배치를 남-북 축선으로 경내 들어가는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일주문이다.



<그림 10> 전제 사역(출처-두피디아, 검색일: 2021.05.15.)

일주문은 1975년 신축되었고, 불국사 경내가 시작됨을 알리는 위치에 세운 문으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대웅전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정면 1칸의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그림 11>

기단은 1단의 나지막하고 평탄한 인조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직경이 굵은 부재를 사용하여 자연목의 결을 살린 두리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이 기둥 중간을 관통하는 방형 부재를 끼워 넣어 이를 기준으로 양쪽을 경사지게 부재를 세워 전후로 작용하는 지붕 무게를 지탱하도록 보조하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창방과 평방은 ‘井’자형으로 짜서 평방 위에 포작을 올렸다. 전·후 주간포 4기와 귀공포 4기, 총 8기를 올려 화려하게 장엄하였는데, 공포는 외 2출목, 내 2출목으로 첨차는 교두형 첨차이다.

가구(架構)는 3량가이다. 보는 대보가 있고 도리는 중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지붕 측면에는 풍판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문 중앙에 ‘佛國寺’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천왕문은 1975년에 중건된 것으로 대웅전의 정면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

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인 사천왕상을 모시기 위한 문이다. 건축 양식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그림 12>



<그림 11> 일주문(연구자 촬영)



<그림 12> 천왕문(연구자 촬영)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2층으로 된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한 방형 초석 상부로 배흘림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6기, 주간포 12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2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처마는 흘처마를 하고 있다.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天王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가구식 석축은 대웅전과 극락전, 전면 회랑의 대석축으로 통일 신라시대 8세기 중엽에 축성되었다. 2011년 유적건조물로 보물 1745호로 지정되었으며 거대한 자연석의 돌을 쌓고 그 위에 잘 가공한 가구식 기단을 올린 혼합식 기단으로 이루어진 석축이다. <그림 13>

불국사의 석축은 크게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웅전 영역은 1층과 2층의 이중구조이며 1층은 대형 자연석을 하단에 놓고 그 상부에 저석과 우주, 탕주, 갑석, 면석, 켜기돌(동틀돌)¹⁰⁵⁾이 결합된 가구식 석축을

올리고 있다. 자연석과 가구식 석축의 연결은 그랭이질로 자연스럽다. 대웅전 영역의 석축은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있지만 하층 상단의 가공석 석축은 우주·탱주 배열 간격과 상층 석축의 사각형 기둥 배열 간격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상층과 하층 기단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극락전 영역의 석축은 대웅전 영역과 다르게 1층 구조이지만 실제로 기단의 중간에 인방재를 가로질러 2층으로 구현하고 있다.¹⁰⁶⁾

청운교·백운교는 1962년 국보 제23호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으로 통하는 자하문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14>



<그림 13> 가구식 석축(연구자 촬영)



<그림 14> 청운교·백운교(연구자 촬영)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독창적인 건축기법과 의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창적인 건축기법은 신라의 일반적이 사찰 기단이 지대석+면석+감석의 결합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반면 불국사 기단은 몸체의 3중 켜기돌(감석) 구조로 인해 면석의 이탈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亞’자형 귀틀 감석 구조는 신라 여타의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 구조 기법으로 주목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의장까지도 완벽하게 고려하여 조성하고 있다.¹⁰⁷⁾ 석제 양측과 중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양측에 난간이 있었으나 기둥만 남아 있던 것을 1973년 복원 때 원형을 고증하여 계단이 시작되는 부

105) 켜기돌: 석정(石釘), 감석(龕石), 동틀돌.

106)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장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第93輯, 2020, p.153.

107)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新羅史學會, 2020, pp.333~334.

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범수석을 위, 아래로 세워 난간을 복원하였다.

자하문은 대웅전 정면에 위치하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현재 건물은 정조 5년(1781)에 중창한 것을 1973년에 중수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2층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가진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6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6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1고주 5랑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어 모두 굴도리이다. 도리 3칸 전체를 건물의 문으로 설치하였고, 정칸과 좌·우 협칸은 2짝 판문을 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紫霞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범영루는 대웅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복원공사 때 중건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가 세워졌으므로 대웅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¹⁰⁸⁾ 이 기단 위에 주좌 없는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8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수미산형 석주로서 길이가 다른 사각 장대석을 서로 직교하여 여러 층을 쌓아 올려 만든 ‘+’형태의 석주로 되어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3출목, 외 3출목이며 사방으로 주심포 4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

10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법고를 두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泛影樓’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좌경루는 대웅전의 정면 좌측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복원공사 때 중건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세워진 석주에 올려져 대웅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¹⁰⁹⁾ 이 기단 위에 주좌 없는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8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8각 연화 석주로서 팔각형의 기둥에 하부와 중간부에 연화문의 띠를 두른 형태를 하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3출목, 외 3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4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목어와 운판을 두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은 1962년 국보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의 전면 쌍탑 중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¹¹⁰⁾ 기단부의 갑석 위 네 모서리에는 석사자(石獅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서면에 한 마리만 남아있다. <그림 15>

109)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10)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 앞의 기록.

불국사 삼층석탑은 1962년 국보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의 전면 쌍탑 중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¹¹¹⁾ 탑의 양식은 상륜까지 남아 있는 완전한 모양의 석탑이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복원공사와는 별도로 1971년 결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지금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구성은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로 되어있다. <그림 16>



<<그림 15> 불국사 다보탑(연구자 촬영)



<그림 16> 불국사 삼층석탑(연구자 촬영)

대웅전은 2011년 보물 제1744호로 지정되었으며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고, 정면과 후면, 그리고 양측면의 중앙 위치 4곳에 7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2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10기는 고주로 전면 4기, 중앙 2기, 후면 4기로 되어 총 30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¹¹²⁾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중앙칸¹¹³⁾ 또한 전·후 퇴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

111)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 위의 기록.

112) 건물의 도리칸(도리방향) 전면 좌·우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궁궐 건축에서는 여칸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정칸으로 정의한다. ; 김왕직, 앞의 책, p.89.

113) 건물의 보칸(보방향) 측면 전·후면 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칸이라고 하지만

(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부에 짜들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뿔목을 내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4출목, 외 3출목으로 내출목이 외출목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16기, 주간포 2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46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간 간격이 넓은 정칸에는 협칸보다 2포을 더 두어 정칸 전·후는 3기의 주간포로 되어 있고, 중앙칸은 전·후 퇴칸보다 1포를 더 두어 좌·우 중앙칸은 2기의 주간포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架構)는 2고주 9랑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 충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면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측면 평주 공포대 상부와 대보 사이에 좌·우로 사자와 용, 코끼리와 용 모양을 한 4개의 충랑을 보방향으로 걸치고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고 있으며 중보 위에 다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과 후면 좌·우 퇴칸 그리고 측면 좌·우 중앙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궁판꽃살문, 전면 좌·우 협칸과 좌·우 퇴칸은 2짝 궁판빗살문, 후면 정칸은 4짝 궁판만살문, 좌·우 퇴칸은 2짝 만살문, 측면 좌·우 중앙칸은 3짝 궁판세살문으로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겹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소조로 된 석가모니불 좌상을 모시고 좌·우측에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그 옆에 존자를 배치한 소조 5존상을 봉안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처마는 연목에 부연을 얹은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大雄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錦)단청을 하고 있다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장소로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정면 4개소와 후면 3개소, 측면 중앙 좌·우 2개소에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가 있는 방형 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본고에서는 중앙칸으로 구분하였다. ; 김왕직, 위의 책.

배흘림 원주(외진주) 24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14기는 고주로 전면 7기, 후면 7기로 되어 총 38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20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2고주 9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가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화반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치고 중보는 중앙에 파련대공으로 중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도리,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퇴칸 좌측에서 4번째 칸, 그리고 측면 좌·우, 전·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전면은 8칸 모두 4짝 2단 궁판빗살문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면 퇴칸 좌에서 4번째 칸에 4짝 2단 궁판빗살문을 설치하였고, 측면 좌·우, 전·후 퇴칸에는 3짝 2단 궁판빗살문으로 설치했고 전면 문 위에는 전체적으로 광창을 두어 채광을 고려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겹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내부 서쪽 중앙에 태국에서 온 불상을 모셨고 후벽에는 영산회상탱을 배치하고 내부 동쪽 중앙에는 김교각 스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겹쳐마를 하고 있다.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無說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1962년 국보 제22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 서쪽 극락전 앞에 위치하며 안양문을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석제(石梯)이다. 양측에 난간이 있었으나 기둥만 남아있던 것을 1973년 복원 때 원형을 고증(考證)하여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수석을 위, 아래로 세워 난간을 복원하였다. <그림 17>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현재 건물은 1960년 중건되어 1973년 단청 중수된 건물로서 형식은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을 본떠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기단을 사용하였다. 정면 중앙에는 이 문으로 오르는 연화교·칠보교를 18계단으로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0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는 복화반형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고 있다.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문은 도리 중앙 칸 전체에 설치하였다. 정칸과 좌·우 협칸은 2짝 판문을 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安養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자리 잡아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중심 불전에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모신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고, 전면과 후면 중앙 위치에 6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전면 2기, 후면 2기로 되어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부에 짜들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뿔목을 내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내출목과 외출목이 동일하며 사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8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칸 간격이 넓은 중앙 정칸에는 협칸보다 2포를 더 두어 정칸 전·후는 3기의 주간포로 되어 구성되었다. 가구(架構)는 2고주 7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 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측면 평주 공포대 상부와 대보 사이에 충량을 보방향으로 걸치고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있으며 중보 위에 다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

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3짝 궁판빗살문을, 정칸 사이 창방 받침 두 기둥 양옆으로 2짝 궁판빗살문 두었다. 후면은 정칸 중간에 있는 창방 받침기둥을 사이에 두고 1짝 궁판세살문을 양쪽에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겹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국보 26호로 지정된 금동 아미타불좌상을 봉안하고 좌·우측에 협시는 없다. 좌측 천장 벽에는 반야용선도가 그려져 있고 반대편 우측에는 아미타삼존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들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極樂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좌측 자리하고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사모 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았다. 특히 기단 갑석의 우부(隅部) ‘ㄱ’자형 귀틀석에는 석탑 기단 갑석 상면에서와 같은 수법으로 갑석 밖으로 경사가 지게 하는 우동(隅棟)이 나타난다. 전면 중앙 1곳에 4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하방을 받치는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전면 2기, 중앙 2기로 되어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으며, 좌·우 중앙칸이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부에 짜 돌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뿔목을 내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20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32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칸(柱間) 간격이 넓은 정칸과 중앙칸은 협칸보다 2포를 더 두어 3기의 주간포로 구성되었다. 가구(架構)는 2고주 6량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었고 대보는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종보에서 찰주형 기둥이 사모지붕의 절병통에 연결되어 지붕꼭대기를 받치고 있

다. 도리는 중도리와 중하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과 좌·우, 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2개의 보조주(補助柱)를 세워 3분하여 중간은 2짝 궁판연화꽃살문을, 양옆은 1짝 궁판꽃살문을 설치하고 좌·우 협칸은 하방위에 머름을 설치하고 그 위에 2짝 궁판꽃살문을 설치하였다. 측면 좌·우, 전 퇴칸은 1짝 궁판꽃살문을 설치하였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관세음보살입상을 봉안하고 후면은 천수천안탱을 배치했다. 천장(天障)은 중도리와 중하도리 사이는 빗천장을, 고주칸은 솟을 우물천장으로 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지붕은 추녀마루가 사방에서 모이는 모임지붕에 절병통을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렸다. 정면 중앙에 ‘觀音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우측에 자리하고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주심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전면 중앙 위치 1곳에 4단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가 있는 방형 초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17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고 특이한 것은 후면 정칸 중앙에 기둥 1개를 추가하여 간격이 큰 정칸의 창방을 받쳐 보강하고 있다.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전면 2기, 후면 2기로 되어 총 21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중앙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헛첨차를 이용해 ‘+’로 교차해서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12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6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가구(架構)는 2고주 9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대보, 중보 상부에는 각각 포동자주를 세워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화반형 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 그리고 좌·우, 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궁판만살문을, 좌·우 제 1협칸과 퇴칸은 2짝 궁판만살

문을, 후면 정간은 중앙에 보조주(補助柱) 양측에 좌·우 1짝 궁판만살문을 두었고 좌·우 전 퇴칸에는 1짝 궁판만살문을 두었다.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겹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국보 27호로 지정된 금동비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하고 좌·우 측에 협시는 없다. 그리고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를 하고 지붕은 치미와 귀면기와로 장식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毘盧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사리탑은 1963년 보물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佛國寺古今創記』에는 광학부도로 기록되어 있다. 대웅전 북쪽, 비로전 서쪽에 위치하고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사모 지붕 전각에 모셔졌다.<그림 18>



<그림 17> 연화교·칠보교(연구자 촬영)



<그림 18> 사리탑(연구자 촬영)

건물의 기단은 낮은 장대석 1층 기단 위에 운두를 가진 원형 초석 놓고 초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4기를 우주로 세워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익공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익공을 이용해 ‘+’자로 교차해서 상부에 주두를 받고 주두 상부에 주심도리가 상부에 짜 돌려져 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창방 뺄목을 하고 도리는 주심도리이다. 건물의 벽은 4면 모두 홍살로 문 없이 홍살 벽으로 마감하였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들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

고 지붕은 사모 지붕으로 기와를 올리고 추녀마루가 모이는 곳에 절병통을 얹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내부는 사리탑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사리탑의 외형은 석등과 비슷하다. 팔각형의 하대석에는 큼직한 연꽃잎을 구성하고 장구 모양의 중대석에는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다. 원통형의 탑신 네 면에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龕室)을 만들어 양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만들었다. 독특한 형태의 이 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1905년 일본으로 불법반출 되었다가 옥개석이 깨진 채 수난을 당한 흔적을 안고 1933년 환수되어 이곳에 세웠다.

나한전은 대웅전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제자인 십육나한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은 아라한의 약칭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정면 중앙에 4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배흘림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8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2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2단 궁판빗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3짝 2단 궁판빗살문으로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겹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중앙 상단에 석조 석가모니불좌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측에 협시보살좌상을 배치하고 좌·우로 석조 십육나한상을 모시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처마는 연목에 부연을 얹은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羅漢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범종각은 대웅전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중창 시 건립한 것으로 건물 양식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

다. <그림 19>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탕주와 우주를 갖추



<그림 19> 범종각(연구자 촬영)



<그림 20> 불국사 박물관(연구자 촬영)

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전면 중앙 위치 1곳에 장대석 디딤돌로 5단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높은 운두를 가진 원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양 중앙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이용해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8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0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2고주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종각 내부는 범종을 두고 있다. 범종은 천판(天板)에는 한 마리의 용으로鈕(鈕)를 두고 그 옆에 음통(音筒)이 마련되어 있으며 종신(鐘身) 상부에는 상대(上帶)를 돌리고 그 아래 상대와 같은 대(帶)로 사방위에 네 개의 정방형의 연곽(蓮廓)을 마련하고 그 안에 연뢰(蓮蕾)를 두었으며 종신 허리 부분에는 비천인상 4개를 돌을 문양으로 배치하였고 그 사이 두 곳에 연꽃문양의 당좌(撞座)를 표현하였으며 종구(鐘口)에는 상대처럼 하대를 두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고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梵鍾閣’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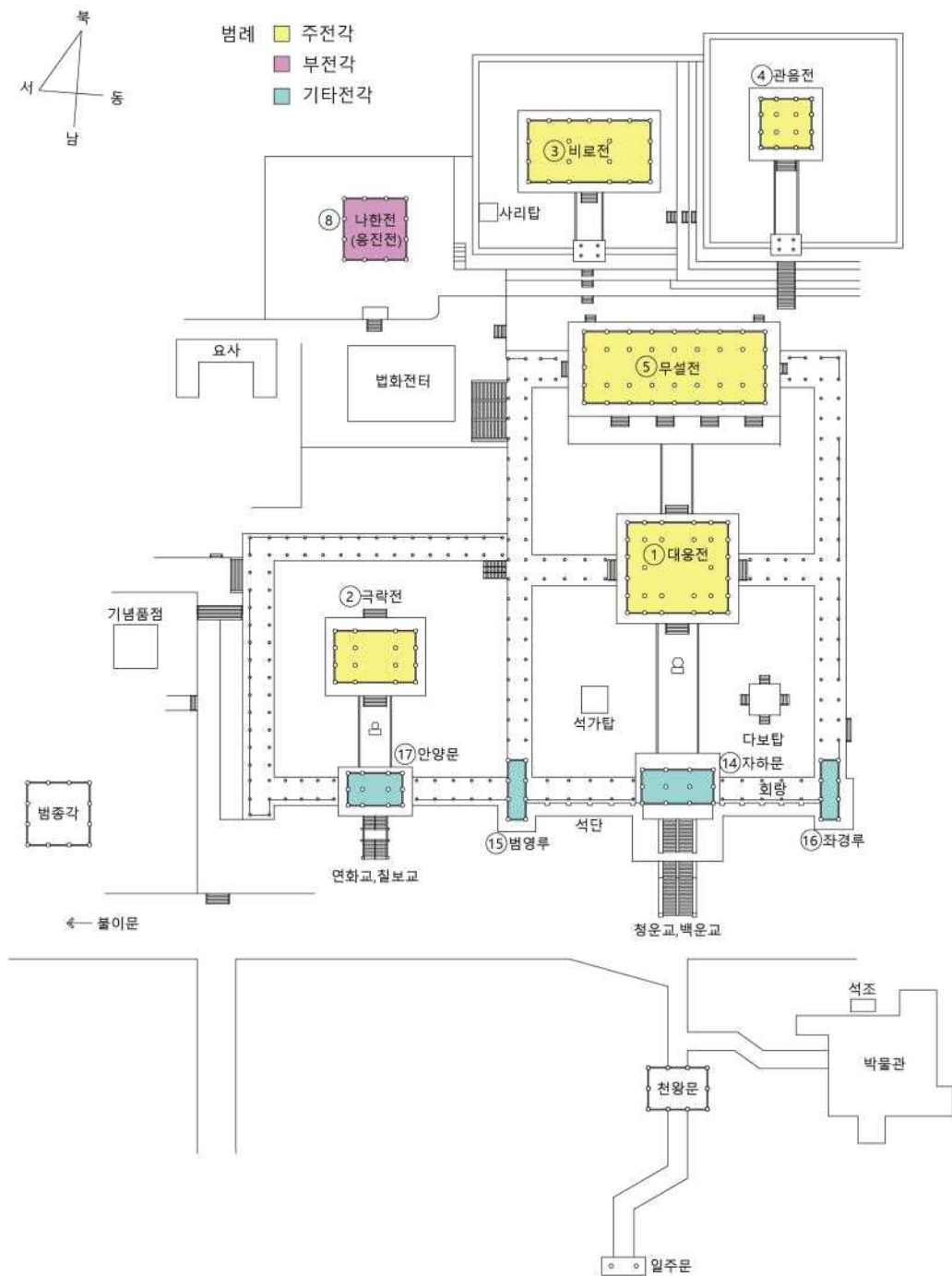
박물관은 2018년에 개관한 건물로서 대웅전의 전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0> 건물은 여러 동이 있으나 크게 보면 4동의 전시동으로 구성되어 내부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건축의 양식은 우진각지붕을 하고 있으며, 포의 형식은 민도리식으로 첨차나 익공 등의 공포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출목도 없는 결구법이다. 기둥머리에 보와 도리가 직교하여 직접 결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처마는 홑처마를 하고 지붕은 용마루와 추녀마루를 갖춘 우진각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또 야외 전시장을 만들어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중한 성보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국보와 보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건물 입구 정면에 ‘불국사 박물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가칠단청을 하고 있다.

20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21>과 같다.

지금까지 가람배치 변화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가람이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490년에는 조선 개국 초,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 되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게 된다. 여기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해 조선을 건국했고 고려의 기득권층과 연결되어 있던 불교는 ‘고려-불교’와 ‘조선-성리학’의 구조 속에서 불교는 한순간 개혁과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¹¹⁴⁾ 그나마 태조와 정종이 불교에 호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태종은 종파를 통합하고 사찰을 대거 철폐한다. 뒤를 이은 세종 또한 집권 초기에는 종파를 줄인 데 이어 신도들까지 사찰 출입을 금지했으나 집권 중기를 넘어가면서 불교에 우호적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대군들이 불사 후원자가 되어 불전 중수, 세종의 “불국사 불법승” 인장 하사, 세조의 석가주존 및 좌우보처 개금, 단확 등을 하였지만, 성종은 『경국대전』에 불교 억압 내용을 담아 나라를 운영하고 연산군, 중종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탄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불국사는 월산대군의 대웅전과 각 전 중수, 연산군 명으로 관음보살 도금, 그 뒤 중종의 두 번째 정비인 문정왕후는 불국사 대웅전 중수하고 연산군과 중종 때 폐지된 승과를 다시 살려 불교 중흥을 꾀하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불교

114) 자현,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2018, p.513.



<그림 21> 20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는 유학자들에 의해 다시 탄압의 역사 속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불국사는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역불의 탄압 속에서도 왕실의 후원으로 꾸준한 불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가람을 유지할 수 있었다.

1767년을 불국사를 보면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승군의 임진왜란 참전으로 승려를 적으로 인식하고 무차별적인 사찰 파괴가 이루어진다. 불국사도 고금창기에 기록에 의하면 ‘좌병사의 정예(精銳)한 궁검(弓劍)을 비밀리 지장전의 벽 사이에 옮겨 감추었다가 왜노(倭奴) 수십 명이 절에 와 불상과 동량(棟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다투어 감상하다가 병총(兵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사실 꽃 속에는 독충이 있는 법이니라” 라며 여덟 사람을 밟아 죽이고 백 개의 방을 불살라 버렸다’ 고 고금창기는 기록하고 있다.¹¹⁵⁾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불국사는 17~18세기 말까지 약 200년간 중수,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던 조선후기의 불국사는 영·정조 시대의 화려한 복원을 뒤로하고 벼랑 끝에 몰린다. 조선중기를 거치며 봉당(朋黨)정치와 외세의 야욕과 개항의 요구가 거세던 19세기 들어 국가가 한 집안에 의해 사유화되는 세도정치가 시작되었으며, 동학농민 운동,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주변 국가들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조선 안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도 주체적인 개입 한번 못하는 등 당시 조선은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국가의 통치 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양반의 가혹한 수탈까지 더해지면서 구한말의 조선은 국가적인 최소한의 기능마저도 멈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합병이 되고 국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런 혼란의 시대적 상황을 불국사도 피할 수가 없었다. 사세가 기울어 전각들이 도괴되고 다보탑 돌사자, 사리탑이 일본인에 의해 불법 무단 반출 등, 불국사 창건 이래 가장 쇠락한 시기가 될 수 밖에 없었다.

1918년 일제 강점기의 불국사는 공사(空寺)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하여 한국 불교를 일본에 복속시키려 했으며 병합하려는 획책도 시도 되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의 영향을 견어내고 다시금 과거의 청정한 전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각자들의 시대를 읽는 치열한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¹¹⁶⁾ 한국의 현재 불교는 1954년부터 1962년에 이

115)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25.

116) 자현, 앞의 책, pp.554~556.

르는 장장 8년 간의 뼈를 깎는 정화 운동으로 새롭게 재건된 불교가 현재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람배치 변화에 대하여 대웅전과 극락전 두 중심 축선을 기초로 주변 전각 위치 변화에 대하여 문헌과 분석자료를 추적해 보면,

1490년 가람배치는 주전각 5동, 부전각 6동, 기타 전각 5동으로, 주전각과 기타 전각은 위치 변화가 없다.

부전각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지장전은 불사 기록 없이 그 전각의 명칭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1674년 창건된 시왕전(명부전)과 같은 성격의 전각으로 보고 동일 위치에 배치하였다.¹¹⁷⁾

문수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발굴 내용과 사진을 확인하였고,¹¹⁸⁾ 『불국사고금창기』와 『불국사 박물관 개관 도록』 「통일 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 조각」의 논고¹¹⁹⁾에서 주장하는 위치로 정하였다.

향로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불국사 고도¹²⁰⁾와 「고금역대기 경주 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¹²¹⁾ <그림 22>를 참고 하였다.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불국사 고도와 「고금역대기 경주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에 기록된 옛터를 기준으로 하였고, 광학장강실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¹²²⁾와 황수영의 『불국사와 석굴암』¹²³⁾을 근거로 하여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를 확정하였다.

1767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 5동은 제 위치에 중수, 복원되었다. 부전각은 창건 2동, 복원 2동으로 4동이 배치되어 있다.

시왕전¹²⁴⁾은 박종의 「동경유록」과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고금역대기

117)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插圖 2.

11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33, 插圖334, 圖版159. ;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 ([그림 2] 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7.

119) 임영애, 「불국사 박물관 개관 도록」,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2018, p.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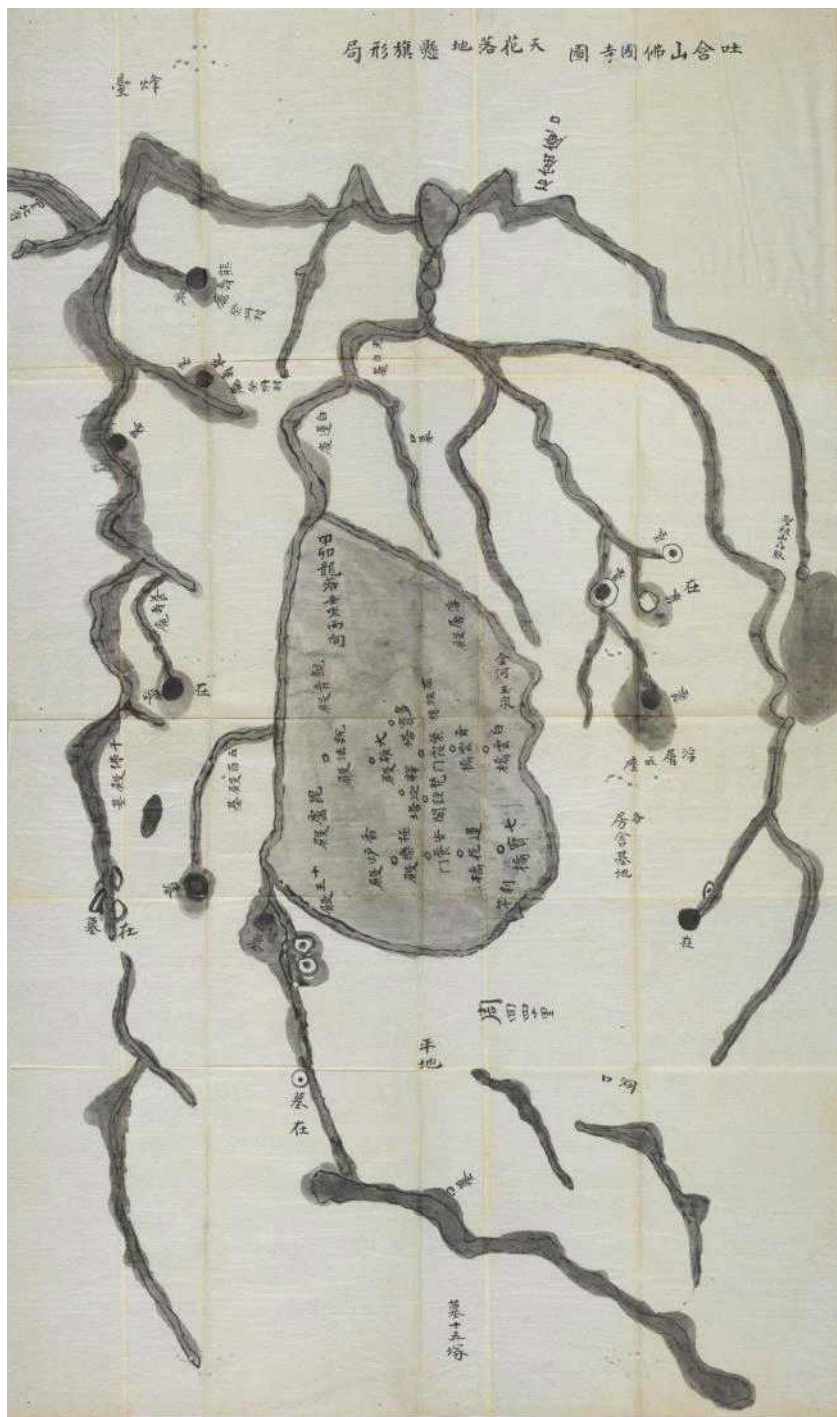
120)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121)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2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52~55.

123) 황수영, 『교양국사총서35』, 「불국사와 석굴암」, 1979, p.88.

124) 朴琮, 『鐫洲集』 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그림 22> 「고금역대기」 토함산 불국사도 (1767)(출처: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검색일: 2020.11.11.),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吐含山佛國寺圖, 淸乾隆32年 丁亥(1767), 弊原 坦殿 惠貺, 現 소장처 일본동양문고.

경주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 『불국사고금창기』를 근거로 하였다.

웅진전¹²⁵⁾은 박종의 「동경유록」과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문수전과 향로전은 1490년 상태로 복원되었다. 광학장강실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고 전각의 옛터만 남았다. 기타 전각은 모두 제자리에 복원되었고 범영루만 축소 건립되었다.

1918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은 대웅전과 극락전만 남아있고 부전각은 모두 붕괴된 상태이다. 두 전각 옆에는 각각 당이 있고 극락전 전면 좌·우에는 주지실과 응접실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기타 전각으로는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 있고 좌경루와 우경루는 붕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¹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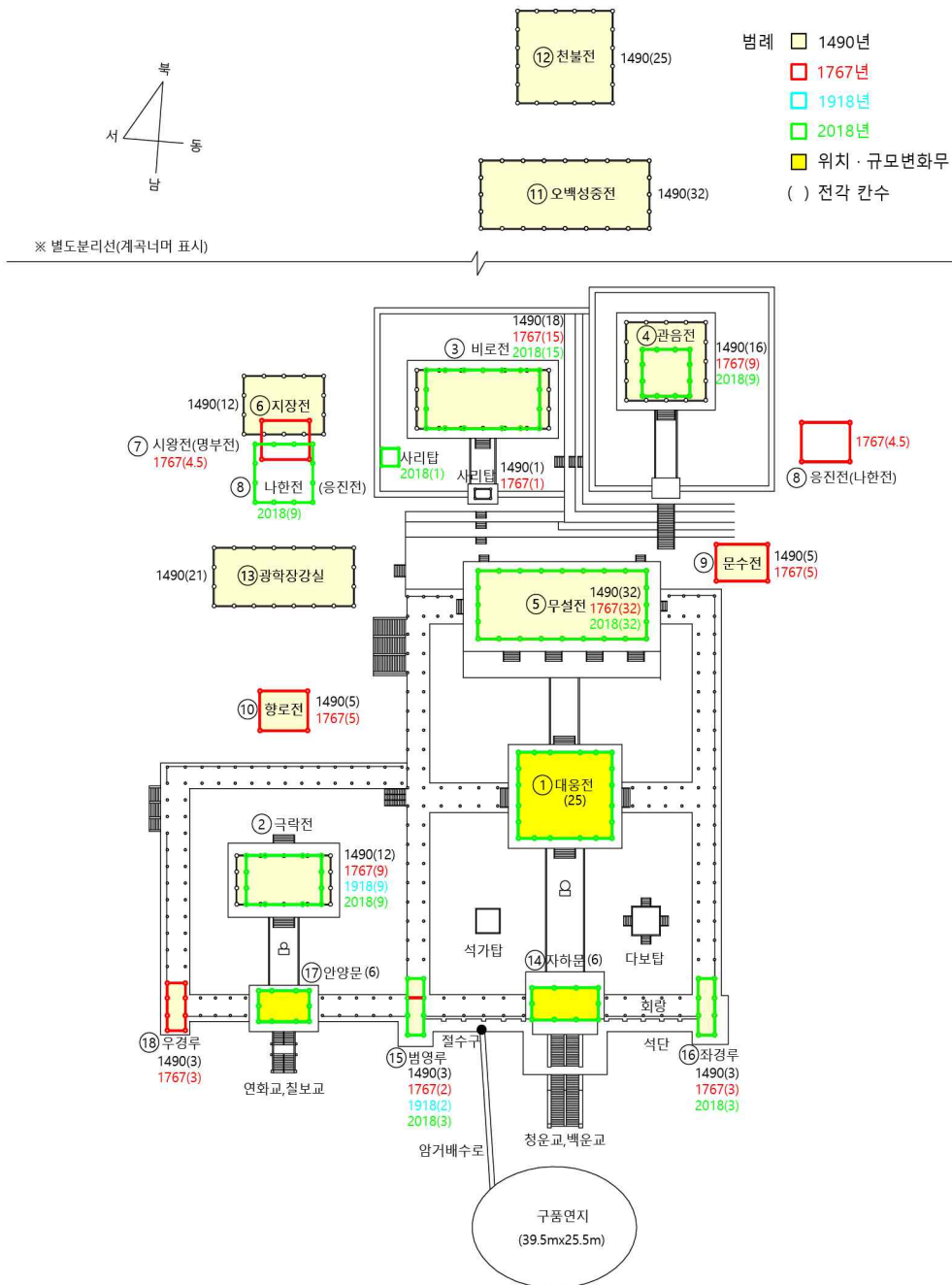
2018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은 1767년 상태로 모두 복원되었고, 부전각은 복원되지 못하고 나한전(웅진전)만 관음전 동쪽에서 비로전 서쪽으로 증축이건하였다. 기타 전각은 자하문, 좌경루, 안양문은 중수, 복원되었고 범영루는 1490년 상태로 복원되었다. 우경루는 미복원 상태이다. 그 외 일주문, 천왕문, 불국사 박물관, 범종각 등이 새로 건립되었다.

지금까지 가람배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1490년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시기별 가람배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그림 23>과 같다.

挿圖2.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25) 朴琮, 앞의 글.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26) 불국사 경내 실측도,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 국가기록원, 1918.



<그림 23> 불국사 시기별 가람배치 변화(1490년 기준)(연구자 작성)

IV. 전각별 변화

불국사의 전각의 변화상을 3부분으로 나누어 그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금창기에 나타난 18개 주요 전각을 주전각, 부전각, 기타전각(문루)으로 나누어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주전각을 살펴보면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으로 이들 전각은 위치의 변화 없이 전각의 규모 변화만 있는 전각으로 구분하였다.

부전각은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학장강실로 구분하여 본고의 과제로 현장답사와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기타 전각(문루)은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로 구분하여 변화를 보고, 18개 주요 전각을 창건에서 중창, 중수, 이건, 건물 유·무, 건물 소실 등의 불사를 살펴보았다.

불국사 전각의 변화를 먼저 연도별 불사 현황으로 보면, 창건 기 신라와 고려시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 전·후기와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재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의 사료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나마 전해오는 것은 창건과는 먼 시점의 기록들이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 다. 고려시대 기록으로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정도가 그 중 창건과 가장 근접한 기록이지만 자료가 소략(疏略)하여 상세한 불사는 알 수 없다. 전체 적으로 보면 창건에서 현재까지 16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신라부터 고려시대 까지 4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이는 창건 이래 약 650년의 기간으로 목조 건물의 평균 중수 주기¹²⁷⁾를 100년으로 보더라도 6회 이상의 중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10차례 걸친 많은 중창이 이루어진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후기를 구분하여 보면 조선전기에는 세종과 성종의 강력한 역불정책에도 당대 2차례의 중창이 있었고, 조선후기에는 숙종과 영·정조시대의 활발한 중수, 복원으로 8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불국사는 임진왜란으로 사역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지만 임진왜란 후 17세기 초 이른 시기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18세기 말까지 꾸준히 불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1796년 중창을 마지막으로 19세기 들어서면서 불국사는

127) 조보연, 『사찰순례』, 도서출판 한숲, 2019, p.213.

구한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불사가 없는 침체기에 들었다. 전각들은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석제와 석축 등 석조물들은 호트리지고 가람의 장엄물은 도난과 불법 반출 등으로 창건 이래 가장 쇠락한 모습을 하고 있다. 1918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불국사 수선을 위해 경내 실측도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1차례 중창이 있었으나 주전각의 수리와 기타 전각 일부, 그 외 장엄물의 정비, 수선이 주를 이루고 새로운 옛터에 복원하는 일은 없었다. 1970년대에 와서 정부의 주도로 대규모의 복원공사로 오늘날 가람을 형성하였다. 전체적인 중창을 요약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불국사 중창 요약(조선시대~현재)

시기	불사	내용	중창 연도(12회)
15세기	○	세종, 성종	1436/ 1490
16세기	×	선조(임진왜란)	없음
17세기	○	광해군, 현종, 숙종	1612/ 1660/ 1674/ 1688
18세기	○	영조, 정조	1715/ 1729/ 1779/ 1796
19세기	×	구한말(조선말기~대한제국)	없음
20세기	○	일제강점기, 광복 후	1925/ 1973
<범례> ○ : 불사 다수 × : 거의 없음		<가람배치도 - 기준 연도> ■ 임란 전 - 1490 ■ 임란 후 - 1767 ■ 일제 강점기 - 1918 ■ 현재 - 2018	<불국사 중창 주기> ■ 신라 935-742=193÷1회=193년 ■ 고려 1392-918=474÷3회=158년 ■ 조선 1897-1392=505÷10회=50년 ■ 근대 1973-1897=76÷2회=38년 ■ 창건 1973-742=1231÷16회=77년

이를 보면 15세기 조선전기는 왕실의 후원으로 다수의 불사와 2차례 중창이 있었고 16세기부터 임진왜란까지는 불사가 거의 없으며 조선후기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는 8차례 중창으로 조선시대 불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세기 구한말에 들어와서 불사 없이 약 100년 넘는 기간을 공사(空寺) 수준으로 방치된다. 20세기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근대에 와서 1차례씩 중창이 이루어졌다. 중창 주기를 보면 신라시대 193년, 고려시대 158년, 조선시대 50년, 근대 와서 38년으로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는 각 시기별 중

창과 관련된 자료 부재도 있지만 불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대가 내려오면서 기복이나 발원으로 인한 중수, 중창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에 와서는 불국사를 포함한 사찰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로 중수, 중창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을 연도별 불사로 정리하면 <표 6> (1),(2),(3)과 같다.

<표 6> 에서 중창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본다.

- 주전각 2개 이상 중수.
- 부전각과 기타 전각은 3개 이상 전각의 중수.
- 10년 이내로 인접하여 중복되어 있는 불사는 동일 시점의 중창으로 간주하고 중창 연도는 완료 시점으로 보았다.

<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1)

순번		구분		연도																																				이전																													
				417	528	574	670	681	742	751	886	887	922	1024	1036	1038	1172	1312	1436	1455	1470	1490	1495	1514	1564	1593	1604	1612	1626	1628	1630	1647	1648	1653	1659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1)																																						충진		충창		충진 중수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장전		☆	☆				★	☆																																																												
1	대웅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극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비로전(해랑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관음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무량전(삼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지장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시왕전(범부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6층전(나한전)																																																																				
9	문수전																																																																				
10	항로전																																																																				
11	오백성중전																																																																				
12	전불전																																																																				
13	광화강강실																																																																				
14	조사전																																																																				
15	부도전																																																																				
16	만월당(송당)																																																																				
17	현진당(송당)																																																																				
18	서운당																																																																				
19	광목당																																																																				
20	성행당																																																																				
21	명월포																																																																				
22	범영루						★	☆	☆																																																												
23	좌경루						★	☆	☆																																																												
24	우경루						★	☆	☆																																																												
25	자하문						★	☆	☆																																																												
26	안양문						★	☆	☆																																																												
27	다보탑						★	☆	☆																																																												
28	돌사자						★	☆	☆																																																												
29	석가탑						★	☆	☆																																																												
30	사리탑						★	☆	☆																																																												
31	청운교 배운교						★	☆	☆																																																												
32	연화교 첩보교						★	☆	☆																																																												
33	구름연지						★	☆	☆																																																												
34	일주문 진왕문						★	☆	☆																																																												
35	불국사박물관																																																																				

<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2)

물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2)

<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3)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3)

순번	구분	년도	연도																												이전 고종27년, 서건 중창유사							
			1760	1765	1767	1769	1779	1781	1796	1805	1902	1903	1904	1905	1909	1910	1915	1918	1919	1922	1923	1924	1925	1933	1935	1936	1944	1960	1966	1973	1975	1979	1980	2010	2016	2017	2018	
0	장진																																					
1	대웅전		●	◆	◆	◆	◆													◆	◆	◆	◆															○
2	극락전			○		◆	◆	◆																														○
3	비로전(배영전)			○						◆					○	/																						○
4	관음전			○	○	◆																																○
5	무열전(생법전)			○						○					○	/																						○
6	지장전																																					
7	시왕전(영부전)																																					
8	16층전(나한전)	▲							◆																													
9	문수전				○																																	
10	향로전			○																																		
11	오백성중전																																					
12	천불전																																					
13	광학장강실																																					
14	조사전			○																																		
15	부도전			○																																		
16	만월당(송당)			○																																		
17	현진당(송당)			○																																		
18	서운당			○																																		
19	광목당			○																																		
20	성행당			○																																		
21	명월루			○				◆																														
22	좌경루			○								○	/								◆	◆																○
23	우경루			○																																		○
24	자하루			○										◆																								○
25	안양문			○																																		○
26	다보탑			○																																		○
27	동사자			○																																		○
28	석가탑			○																																		○
29	사리탑			○																																		○
30	정운교, 배운교			○																																		○
31	연화교, 월포교			○																																		○
32	구룡연지			○																																		○
33	임주문, 천왕문			○																																		○
34	불국사박물관																																					★
35																																						★

1. 주전각의 변화

1) 대웅전(5칸×5칸)

대웅전은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조선전기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전각으로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규모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전각이다. 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전각으로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고 그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렸다.

대웅전의 창건을 보면『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기록에는 742년으로 되어있고, 대웅전의 시기별 불사 현황을 살펴보면 진성여왕 원년(887)에 현강·정강왕 및 망형을 위해 중창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고려 충선왕 4년(1312) 도량을 중수했다.

조선 세종 18년(1436) 중수, 세조 원년(1455) 석가주존과 좌우보처 개금, 전각 단확,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명종 19년(1564) 문정왕후·인성왕후의 중수, 효종 10년(1659) 중수 및 단확, 현종 원년(1660) 석가모니불좌상 조성과 대웅전 조조, 숙종 8년(1682) 우루로 인해 개와, 숙종 40년(1714) 우루로 인해 개와, 숙종 41년(1715) 미륵·갈라 양보처존상 개금,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6년(1730) 우루기와, 단확, 중단삼장탱 조성, 영조 7년(1731) 기와 보수, 영조 41년(1765) 중창, 영조 43년(1767) 단확, 영조 45년(1769) 삼존개금 중수, 가섭·아난 신화상 조성, 후불탱 조성, 정조 3년(1779) 일부 중수, 일제강점기(1922) 불전 기단부 및 계단, 측벽 칠 등 정비, 일제강점기(1925) 대규모 개수공사, 근대(1973) 단청 수리 등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했다. <그림 24>

2) 극락전(12칸→9칸)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규모는 조선전기는 12칸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9칸으로 축소되어



<그림 24> 대웅전(연구자 촬영)

중건,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불전의 중앙에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렸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신라 진흥왕 35년(574)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아미타불상 주조와 진성왕 원년(887) 헌강·정강왕 2왕 및 선고 망형을 위한 2차례 중창을 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현종과 전왕 목종 추모로 중영, 명종 2년(1172) 명종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참배 후 중수 및 개와, 충선왕 4년(1312) 중수,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중종 9년(1514) 극락전벽화 중수, 효종 4년(1653) 후불탱 조성, 숙종 41년(1715) 아미타불 개금, 숙종 46년(1720) 단확,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26년(1750) 중수, 정조 3년(1779) 극락전 기단 중수, 기단석 새김, 정조 20년(1796) 극락전 포단을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일제강점기(1925) 수선공사, 극락전 중수, 근대(1973) 단청 수리 등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했다. <그림 25>



<그림 25> 국락전(연구자 촬영)

3) 비로전(18칸→15칸)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우측에 자리하고 전각의 규모는 조선전기에는 18칸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15칸으로 축소·복원되었다가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중심 불전에는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신라 진흥왕 35년(574)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비로자나불상 주조와 진성여왕 원년(887) 헌강·정강왕 및 망형을 위한 2차례의 중창을 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명종 2년(1172) 왕의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참배 후 중수 및 개와, 고려 충선왕 4년(1312) 도량을 중수한다.

성종 21년 (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 현종 원년(1660) 중건 및 단청, 숙종 7년(1681) 인현왕후 왕자탄생 기

원 비로자나후불탱, 불단덮개, 옥패, 신발 중단삼장탱 등을 하사, 숙종 14년(1688) 중건, 숙종 41년(1715) 비로자나불 개금, 숙종 46년(1720) 화엄전 중창,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16년(1740) 비로전후불탱 조성, 영조 34년(1758) 적광전 중창, 정조 3년(1779) 중창, 정조 20년(1796) 비로전 포단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순조 5년(1805) 비로전 말로 중수, 고종 42년(1905) 비로전 앞 사리탑 일본인 불법 반출, 순종 3년(1910) 비로전 붕괴, 일제강점기(1933) 비로전 앞 사리탑 귀환, 근대(1973)에 와서 비로전을 새로 복원했다. <그림 26>



<그림 26> 비로전(연구자 촬영)

4) 관음전(16칸→9칸)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자리하고 전각의 규모는 조선전기 16칸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9칸으로 축소되었다가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중심 불전에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였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신라 경명왕 6년(922) 경명왕비가 전단향목으로 관음상 조성,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충선왕 4년(1312) 중수, 조선 세종 18년(1436) 중

수, 성종 원년(1470) 중수,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연산군 원년(1495) 연산군 명으로 상궁권씨 관세음보살 도금,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관음전 소실, 선조 37년(1604) 중창, 현종 15년(1674) 관음상 개금, 숙종 14년(1688) 관음전 개금, 숙종 21년(1695) 중창, 숙종 27년(1701) 관음전 개금, 숙종 29년(1703) 관음전 불탱조성, 숙종 41년(1715) 관세음보살 개금, 숙종 44년(1718) 관음전 단확,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45년(1769) 관음전독존 개금 중수, 정조 20년(1796) 관음전 포단을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근대(1973)에 와서 관음전을 새로 복원했다. <그림 27>



<그림 27> 관음전(연구자 촬영)

5) 무설전(8칸×4칸)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전기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전각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건되어 유지되었으나 관리 부재로 1910년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강학공간이다. <그림 28>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한다. 고려 충선왕 4년(1312) 도량을 중수한다.



<그림 28> 무설전(연구자 촬영)

조선 성종 21년 (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 인조 26년(1648) 설법전 중건, 숙종 34년(1708) 무설전 중건, 영조 5년(1729) 개와, 순종 3년(1910) 무설전 도괴, 근대(1973)에 와서 무설전을 새로 복원했다. 주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주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대웅전	5×5	5×5	5×5	5×5	변화 무
2	극락전	12	3×3	3×3	3×3	축 소
3	비로전(화엄전)	18	15	붕괴	5×3	축 소
4	관음전	16	3×3	붕괴	3×3	축 소
5	무설전(설법전)	32	8×4	붕괴	8×4	변화 무

2. 부전각의 변화

1) 지장전(12칸)

지장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¹²⁸⁾ 조선전기 12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불단은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봉안하는 전각이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충선왕 4년(1312) 중수, 조선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지장전 소실되고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2) 시왕전(4.5칸)

시왕전은 명부전이라고도 하며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¹²⁹⁾ 4.5칸의 규모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된 전각으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본존으로 지장보

128) 朴琮, 앞의 기록.

129)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살과 명부시왕을 봉안한다. 지장보살 좌·우에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그 좌·우에 각 5명씩 모두 10명의 명부시왕을 봉안하는 전각으로 명부전이라고도 한다.

전각의 창건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 현종 15년(1674) 시왕전 창건, 숙종 38년(1712) 시왕전 단청, 숙종 42년(1716) 시왕전불탱 조성,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35년(1759) 명부전 중창, 영조 43년(1767)까지 시왕전이 존재 확인되고 있으나¹³⁰⁾ 이후 사라지고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3) 나한전(3×3칸)

응진전은 대웅전의 북동쪽, 관음전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으며¹³¹⁾ 건물은 4.5칸의 규모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된 전각으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복원되지 못하다가 1979년 대웅전의 서북쪽에 새로 9칸으로 증축 이건하였다.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전이라고도 한다.

전각의 창건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 인조 25년(1647) 창건 및 등상건조, 영조 36년(1760) 나한전 본래 기초(대웅전 북동쪽)로 이건, 정조 20년(1796) 나한전 탁의를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이후 구한말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1979년 대웅전의 서북쪽에 새로 건립했다. <그림 29>

4) 문수전(5칸)

문수전은 대웅전의 동북쪽, 무설전 좌측, 관음전 석축 아래에 위치하고¹³²⁾ 5칸 규모의 전각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중건된 전각으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복원하지 못했다. 1740년에 개간된 『불국사고금창기』에 “문수전에 안치한 비로 석상과 좌·우의 문수·보현 좌대인 사자, 코끼리 2구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³³⁾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문수전 소실되고,

130)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插圖2.

131)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3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圖版 159. ; 임영애, 앞의 책, p.256.

133)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그림 29> 나한전(연구자 촬영)

조선 인조 6년(1628) 중건, 현종 15년(1674) 중수, 문수보현양상 조성, 영조 43년(1767)까지 문수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복원되지 않고 있다.

5) 향로전(5칸)

향로전은 대웅전 서쪽 극락전 북쪽에 위치한¹³⁴⁾ 건물로서 5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중건된 전각으로 향을 공양하는 승려가 기거하는 요사이다. 향로전 역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복원하지 못했다.

134)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插圖2.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6년(1628) 중건, 숙종 4년(1678) 중수, 영조 5년(1729) 중창, 영조 43년(1767)까지 향로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복원되지 않고 있다.

6) 오백성중전(32칸)

오백성중전은 대웅전의 북쪽 관음전 뒤, 계곡 너머에 자리하고 있으며 32칸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전각 터만 1767년까지 남아 있었다.¹³⁵⁾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나한을 모신 전각이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종 21년(1490)에는 전각이 존재 하였으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았다.

7) 천불전(25칸)

천불전(千佛殿)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에 오백성중전의 뒤에 자리하고 있으며 25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전각 터만 1767년까지 남아 있었다.¹³⁶⁾ 불단은 부처님 천 분을 모신 곳이라 하여 천불전이라 한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한 전각의 변화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성종 21년(1490)까지는 전각이 존재하였고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았다.

8) 광학장강실(21칸)

광학장강실은 대웅전 서북쪽, 무설전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¹³⁷⁾ 21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무설전과 함께 강학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한 전각의 변화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성종 21년(1490)에는 전각이 존재 하였고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135)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插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위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36)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위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37) 황수영, 앞의 책, p.88.

복원되지 않았다. 부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부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지장전	12	소실	.	.	미복원
2	시왕전(명부전)	건물 무	4.5	붕괴	.	미복원
3	응진전(나한전)	건물 무	4.5	붕괴	9	증 가
4	문수전	5	5	붕괴	.	미복원
5	향로전	5	5	붕괴	.	미복원
6	오백성중전	32	소실	.	.	미복원
7	천불전	25	소실	.	.	미복원
8	광학장강실	21	소실	.	.	미복원

3. 기타 전각의 변화

1) 자하문(3칸×2칸)

자하문은 대웅전 정면에 위치하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조선전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을 거쳐 일제강점기, 현재까지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1436년, 1630년의 2차례 중수하고 1708년 단청, 현재 건물은 정조 5년(1781)에 중창한 것을 1973년에 중수한 건물이다. <그림 30>

2) 범영루(1칸×2칸)

범영루는 대웅전의 정면 우측에 위치하며 수미범종각이라고도 불렀다. 조



<그림 30> 자하문(연구자 촬영)

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축소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70년대 초 복원되면서 정면 1, 측면 3칸 규모로 옛 모습을 되찾은 전각이다. 조선시대 내부에는 범종을 두었지만 지금은 범고를 두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1612년 중건, 1688년 중창, 1708년 단청, 1728년, 1781년 2차례 중수, 1919년, 1923년 2차례 수리, 현재는 정면 1칸, 측면 3칸으로 1973년 중수한 건물이다. <그림 31>

3) 좌경루(1칸×3칸)

좌경루는 대웅전의 전면 좌측에 위치하며 조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다.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조선시대 내부에는 경전을 두었지만 지금은 목어와 운판을 두고 있다.



<그림 31> 범영루(연구자 촬영)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2년, 1690년 2차례 중건, 1728년 하축 단장, 현재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3칸으로 1973년 중창한 건물이다. <그림 32>

4) 안양문(3칸×2칸)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조선전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같은 규모로 복원되었다.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된 것을 다시 1960년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을 본떠 같은 규모로 새로 건립하였고 1970년대 초에 중수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6년 중



<그림 32> 좌경루(연구자 촬영)

건, 1737년 중창, 1919년 수리, 1960년 중건, 현재 건물은 1973년 중수한 건물이다. <그림 33>

5) 우경루(1칸×3칸)

우경루는 극락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하며 조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전각으로 조선시대 내부에는 경전을 두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2년 중건, 1715년 중창, 1718년 단확, 1728년 하축 단장 하였으나 붕괴되고 현재는 미복원된 상태이다. 기타 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지금까지 시기별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그림 33> 안양문(연구자 촬영)

<표 9> 기타 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자하문	3×2	3×2	3×2	3×2	변화 무
2	범영루	1×3	1×2	1×2	1×3	축소 - 복원
3	좌경루	1×3	1×3	붕괴	1×3	변화 무
4	안양문	3×2	3×2	3×2	3×2	변화 무
5	우경루	1×3	1×3	붕괴	.	미복원

<표 10> 불국사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

순번	전각명		시기별 칸수 변화				변화 내용
			1490	1767	1918	2018	
1	주전각	대웅전	25	25	25	25	변화 무
2		극락전(본당)	12	9	9	9	축소
3		비로전(화엄전)	18	15	붕괴	15	축소
4		관음전	16	9	붕괴	9	축소
5		무설전(설법전)	32	32	붕괴	32	변화 무
6	부전각	지장전	12	소실	-	-	미복원
7		시왕전(명부전)	건물 무	4.5	붕괴	-	미복원
8		나한전(응진전)	건물 무	4.5	붕괴	9	증가
9		문수전	5	5	붕괴	-	미복원
10		향로전	5	5	붕괴	-	미복원
11		오백성중전	32	소실	-	-	미복원
12		천불전	25	소실	-	-	미복원
13		광학장강실	21	소실	-	-	미복원
14	기타전각	자하문	6	6	6	6	변화 무
15		범영루(수미범종각)	3	2	2	3	축소-복원
16		좌경루(동경루)	3	3	붕괴	3	변화 무
17		안양문(통용문)	6	6	6	6	변화 무
18		우경루(서경루)	3	3	붕괴	-	미복원
합계			224	129	48	117	축소

V. 맺음말

지금까지 불국사의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불국사는 신라의 동악인 토함산 서쪽 기슭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으로 나누어진다. 동원은 청운교·백운교-자하문-불국사 다보탑·불국사 삼층석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대웅전 영역과 서원은 연화교·칠보교-안양문-극락전으로 이어지는 극락전 영역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는 2축선이다. 이 중심 축선은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전은 동원에 불국사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을 안치하였다면 서원에는 그와 달리 당대 신앙인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하였다. 그 북쪽에는 1단 높은 동·서로 관음전과 비로전을 배치하였다.

불국사 1490년 조선전기 가람배치는 경내 들어서면 구품연지를 전면에 두고 대석단 양옆으로 2개의 석교가 있다. 동원 영역은 청운교·백운교를 지나 자하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좌경루와 범영루가 있다. 자하문 앞 동·서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고 그 뒤 동원의 중심 영역에는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의 북쪽에는 무설전이 있다. 서원 영역은 연화교·칠보교를 오르면 안양문이다. 문 서쪽에는 우경루가 있고 서원의 중심 영역에는 극락전이 있다. 그 북쪽으로 향로전이 있고 뒤에는 강학공간인 광학장강실이 있다. 무설전 북쪽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있고 비로전 앞에는 사리탑이 있다. 무설전 동북쪽에는 문수전이 있다. 그리고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 남-북으로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이 배치되어 있다.

1767년 조선후기 가람배치는 임진왜란으로 가람 대부분이 소실되고 17세기부터 중수, 중창이 이어졌다. 주전각과 기타 전각은 임진왜란 전의 가람과 동일하나 범영루, 극락전, 관음전, 비로전은 전각의 규모가 축소 복원되었다. 비로전 서쪽, 지장전이 있던 자리에는 시왕전이 축소 건립되었고, 관음전 동쪽 옆에는 새로 응진전이 건립되었다. 광학장강실, 오백성중전, 천불전은 복원되지 못했다.

1918년 일제강점기 가람배치는 구한말 100여 년간 쇠락의 길로 들어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고 폐허 지경의 대웅전과 극락전 두 전각만 남아 가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영역은 무너진 석단 위로 청운교·백운교가 있고 자

하문 서쪽에는 범영루가 있다. 사역 중앙 동·서로 다보탑과 석가탑, 그 뒤에는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 우측 옆에는 담장으로 구획한 부전 승려의 생활 공간 당(堂)이 있다. 서원 영역은 연화교·칠보교를 오르면 통용문(안양문)이 있고 좌·우로 주지실과 손님을 응대하던 응접실이 있다. 중심 영역에는 본당(극락전)이 있고 본당 좌측에는 대웅전과 같이 승려의 생활 공간인 당이 있다.

2018년 현재의 가람배치는 1970년대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의 수리와 복원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과 기타 전각(문루)은 대부분 18세기 후반 가람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전각과 우경루, 구품연지는 복원되지 못했다. 가람배치는 사찰 초입부터 새로 건립된 일주문과 천왕문이 있고 좌측으로 불국사 박물관이 있다. 경내로 들어서면 대부분의 전각은 18세기의 가람배치와 동일하나 다른 점은 극락전 북쪽으로 범화전 터가 있고 그 서쪽 옆에는 요사가 있다. 관음전 동쪽 옆에 있던 나한전이 비로전 서쪽 옆으로 증축 이전되었다. 비로전 앞에 있던 사리탑은 비로전 서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극락전 서쪽에 새로 건립된 범종각이 있다.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에 있어서 IV장에서 언급한 주전각 5동과 기타 전각(문루) 5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와 장엄의 변화만 있다. 부전각 8동은 본 연구의 과제로 현장 답사와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가람배치의 변화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도면화하였다.

불국사 전각 변화에 대해서 고금창기에 나타난 주요 전각 규모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불국사 가람과 비교하여 보면 조선전기 1490년에는 16동 224칸 규모였고,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이후 중창, 복원되면서 조선후기 1767년에는 14동 129칸으로 복원되었다. 19세기 접어들면서 사세가 기울어 100여 년간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고 폐허 상태로 일제강점기 1918년에는 5동 48칸의 전각만 겨우 남아 가람의 명목을 이어갔다. 1970년대 초 대규모 수리와 복원을 통해 오늘날 10동 117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224칸(1490)→129칸(1767)→48칸(1918)→117칸(2018)으로 조선전기 224칸과 현재 117칸과 비교하면 약 2배 축소된 것이며 이는 조선전기 대가람의 규모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국사는 조선전기 억불정책에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가 확장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중창, 복원이 되었지만 임진왜란 전 가람 규모에 미치지지는 못했다. 구한말의 혼란기를 거치며 사역이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1970년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 수리, 복원하여 오늘날 가람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불국사의 현장답사와 사료를 통해 본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를 통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전·후기 변화 모습과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찰이 대부분 그러하듯 불국사 역시 초창기와 통일 신라시대 가람배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경내 남아있는 유물과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전각의 변화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실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1. 史料

-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史蹟』
『三國遺事』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佛國寺復役功德記」
『占畢齋集』
『梅月堂集』
『艮齋先生文集』
『八谷先生集』
『鑑洲集』
『佛國寺誌』, 亞細亞文化社, 1983.

2. 單行本

-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 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 도서출판 발언, 1995.
中觀海眼, 조용호역, 『화엄불국사事蹟』, 국학자료원, 1997.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I 자료집』, 문화재청, 2007.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009.
『佛國寺古今創記』, 文化公報部, 1988.
김상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한국의 사찰 下』, 대한불교진흥원, 2006.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2006.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2.
황수영, 『교양국사총서35』, 「불국사와 석굴암」, 1979.

九品蓮池會, 『九品蓮池要覽』, 대양기획, 2017.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의 사찰 下』, 대한불교진흥원, 2006.
 姜友邦,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조보연, 『사찰순례』, 도서출판 한숲, 2019.
 자현, 『불교사100장면』, 불광출판사, 2018.
 자현,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불광출판사, 2012.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45.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9.
 최상복, 『産業安全大辭典』, 2004.

3. 論文 및 學術誌

염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설동선, 「佛國寺 多寶塔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5.
 이정, 「佛國寺 外部空間의 比例體系 分析」,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남용희, 「佛國寺의 坐向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한지윤,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的 要素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김수현, 「佛國寺 多寶塔 造成의 佛敎思想的 意義」,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강선희, 「佛國寺 大雄殿 復元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임재완, 「慶州 佛國寺 多寶塔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김버들, 「佛敎經典과 曼荼羅에 나타난 多寶塔의 造營特性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최강국, 「佛國寺 金銅毗盧遮那佛坐像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학위논문, 2015.
- 김소라, 「불국사 대웅전의 조선후기 불상·불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안중모,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종석,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경북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강근,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 論文集-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第十八輯, 1997.
- 홍광표,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 論文集-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第十八輯, 1997.
- 박학길 외,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和 空間의 象徵的 特性」, 『석당논총』제28집, 석당학술원, 1999.
- 염중섭,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고찰」, 「불교학 연구」, 제25호, 2010.
- 오세덕, 「新羅 石槽 展開와 佛國寺 石槽(石花)의 意味」, 『문화사학』 53호, 문화사학회, 2020.
- 추상훈, 「佛國寺 九品蓮池의 影池의 特징과 煙霧效果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강우방,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제66호, 2001.
- 김남윤, 「불국사의 창건과 그 위상」,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 論文集-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第十八輯, 1997.
- 임영애, 「통일기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불국사 박물관 도록』, 2018.
- 김규원 외, 「일제강점기 도상자료를 통한 불국사의 경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권 176호.

-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방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第九十三輯 別刷本』, 「東國大學校 佛敎文化 研究院, 2020.
-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新羅史學會, 2020.
- 문명대, 「佛國寺 金銅如來坐像 二軀와 그 造像識文의 研究」, 『美術資料』제19호, 1976.
- 김상현,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韓國古代宗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사, 1989.
- 오경후, 「17세기 불국사고금창기와 호남의 사찰사적지」, 『신라문화』19집, 2001.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 황수영, 「佛國寺의 創建과 그 沿革」,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경주시, 1976.

4. 報告書·其他 資料

-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6.
-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경주시, 2011.
- 강병희, 「기록을 통해 본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 『불국사 삼층석탑 및 다보탑 3D 스캔 결과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석탑 보수정비사업단, 2007.
- 남동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자료」, 美術資料 제88호, 국립중앙박물관, 2016.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吐含山佛國寺圖, 淸 乾隆 32年 丁亥(1767), 弊原坦殿 惠貺, 現 소장처 일본동양문고.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5. 웹사이트

문화재청, <http://www.cha.go.kr/main.html>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10100000000.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두피디아, (항공사진), <https://www.doopedia.co.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kor/main.do>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

KiSS학술논문검색, <https://kiss.kstudy.com/index.asp>

<부록>

i) 『불국사고금창기』

(출처: 『佛國寺誌 外』,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3.)

佛國寺古今創記

武帝
第一創

長 度

慶尚道江左大都護府慶州東嶺吐舍山大華

嚴宗佛國寺古今歷代諸賢繼創記

梁大通二年戊申新羅法興王二十七年始基

法興大王母迎帝夫人妃已母夫人出家為尼名法流行持律令故

或稱華嚴佛國寺或稱華嚴法流寺新羅味鄒王二十年癸

未勾驪阿度受育暢之法而來始基中廢伽藍曰興輔永興

皇詔奉皇靈歟四天臺嚴寺等七處皆先佛伽藍之墟法水已

流之地自此佛法大行於世時迎帝夫人勅創佛國寺

出鷄林本記 阿度

沙門本記且載羅史僧錄中初創

自大通中至
大建甲子年

第二創

陳宣帝大建六年甲子新羅真興王六年重興

真興王為母只召夫人創寺度僧鑄皇龍寺銅像丈六五萬七千

五斤銀金百二兩夫人曰剃髮為尼自号法雲子勅自晉來僧章

難陀重興輪寺又鑄毘盧彌陀二伽奉安佛國寺出東國僧傳

唐高宗咸亨元年庚午新羅文武王十年創無說殿講華嚴

文武王請經論為住講義湘與弟子悟真表訓等十大德相

與講論而別勅表訓住佛國寺訓常往來天宮出崔侯本傳及曉師行狀

唐明皇天寶十年辛卯新羅景德王十年重創

新羅孝成王間有開士名曰漸閑欲設六輪會於興輪寺勸化主福安

自咸亨庚午至
先天甲子年
第七年
第四創

自大同癸亥至
咸亨庚午百三
十八年
第三創

身自十斤三度
無相
獨力非功曾
沈王狀之乃
十六國五百
國十小國八
聚落靡不周
皆鑄不成後
歷一十三百
創新羅真興
王鑄之於何

項之項子也
名大城
大城備書

熊
為

家安施布平正開呪願曰檀越好布施天神常護持施一得
 萬陪安樂壽命長大城聞之跳踉而入謂其母曰予聽聞僧誦偈
 云施一得萬倍念我之無宿緣今茲困匱矣今又不施來世益艱
 施我備田於法會以畜後報何如母曰善乃施田於潤未幾城物
 故是日夜國宰金文亮家有天唱云牟梁里今浮雲村是也大城兒今
 托汝家家人震驚使檢牟梁里城果亡其日與唱同時有娘
 生兒左手握不發七日乃潤有金簡字彫大城二字又以名之此見母
 於第中兼養之既壯好遊獵一日登吐含山捕一熊宿山下村夢熊
 哀為鬼訟曰汝何殺我我還咬汝城怖懷請容赦鬼曰熊為我

像成相好單備
 分安各寺釋如
 二菩薩三尊像
 初安東等寺移
 安皇龍寺矣
 丘天清監像
 施施二像
 寺中云
 出三國遺記

長

景德王朝

創佛寺乎城墻之口諾既覺汗流被蓆禁原野為創熊壽寺
壽寺於其地曰以情有所感悲願增焉乃為現生二親重葺佛國寺
豎塔構檣為前世爺孃創石佛寺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且酬育養之勞一以身孝二世父母古亦罕聞善施之驗
可不信乎將彫石佛也欲鍊一大石為龕蓋石忽三裂憤恚而殺
夜中天神來降畢造而還城方枕起走跋南嶺焚香木以供天
神故名其地為香嶺將營五百十聖寶殿不幸惠恭王大曆
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平國家乃畢成之請瑜伽大德名大賢自歸青
丘沙門景德降魔住此寺結之其佛國寺雲梯寶塔彫鏤石木之
封為國師

切東都諸刹未有加也其時廣額其數曰

大雄殿

二五間階除四隅高八尺四寸
圓八十八把各面置梯八步

東翼廡

三

西翼廡

三

東多寶

塔

四面欄
楠莊嚴

西釋迦塔

一名無影塔
諺傳創寺時匠工自唐來人有一妹名阿斯
女要訪輒到通來則大叩未完不可以隨身許的明且坤方十里

許自有天然之澤餘彼則無可見笑
斯女依從往見則果鑑而無塔影故名

八方金剛座

明

座

明

座

座

明

奉爐臺

座

東長廊

明

西長廊

明

左經樓

明

右經樓

各以石柱雕造芙蓉堅撐憑虛架構則百仞高樓翼如也

明

須彌

梵鐘閣

明

亦以石雕湏弥山形八角頂等樓上可坐百八衆下可建

五丈竿

明

升天橋

明

南行廊

明

紫霞門

明

青雲榜

明

白雲橋

極樂殿

明

東長廊

明

西長廊

明

前後行廊

明

合

明

光明臺一座

奉爐臺一安養門六七寶橋以蓮華檜以九品蓮池

毘盧殿八光學浮圖一座或云八祖師未知孰是奉爐臺一

觀音殿六以梅檀香木雕造聖相舍淨財落成寫其聖感與衆生寺真像

馬異東行廊五西行廊五光明臺一南行廊十海岸門一

洛迦橋翠竹樓綠楊閣北有無設殿三二間

地藏殿十二奉爐臺一東西廊各五南明鏡堂五

杖錫樓五鐵壅門三六途門三六道橋天人鬼阿傍地六橋各區

十王殿四東堂四西堂四南樓四不二門六天王門六一柱門

十六應真殿四天殊殿五象王獅子二具野火撲落不知何人所造也

樓堂

光學藏諸室

二一兩所安釋迦繡像一頭及左辟伽康大王畫相乃景文朝善畫尼圖海之所筆北寺受公主女也以畫繡稱世第一

東別室

五間西別室

祝聖樓

七間

光明臺

座一正路門

三觀庫

十間凝香閣

三金剛門六間

五百聖眾殿

二二間東西長廊

各十間

趣靜門

三香爐殿

千佛殿

二二間古傳云景德王時釋良志神妙絕比又善筆札

聖唐寺

文六尊三天王像并殿塔之瓦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

王佛三尊佛國寺一千聖相左右金剛神等皆所

觀也

一路門

三看星閣

三山呼樓

華藏樓

無碍樓

圓融樓

十有門

五萬歲樓

二王子閣

說禪堂

尋鈿堂

客

東別室 西別室 清風寮 明月寮 左右養老堂 內客
 室外客室 迎賓寮 送客室 東西溜室 省行堂五等四十
 八房 煩不錄 長壽寺 熊壽寺 兩壽寺 各安聖像 極致修磨
 表訓 神琳浮圖 蓮池 金河 玉泉 石槽 五座 刹竿出三國僧錄
遺事及雜傳
 山脉 鼻祖 白頭 蜿蜒 而來 全州 南錫 達嶺 還轉 東面 迤瀝 而陟 止
 聖祖山 一股 南去 為鳳 栖山 一股 北來 為吐 舍山 高峙 萬仞 自庚 允入 酉坐
 軍形 也寺 之三 里許 有兩 村左 村坊 名進 峴即 取就 進之 義原 腰劉 立一 大
 石 狀如 鑿鼓 以票 進止 海鼓 之義 右村 坊名 退山 亦取 席退 之義 擬頭 豎建
 一高 塔形 如旗 竿以 票退 止軍 兵之 義茲 山亦 補七 寶東 山山 中有 金銀 琉璃
 瑪瑙 者瑋 玻璃 真珠 而自 潤故 七處 等庵 隨實 名焉 又有 山下 曼成 寺大 城所 創
 大雄 殿所 安聖 像釋 迦主 尊左 右彌 勒竭 竭羅 迦葉 阿難 五軀 像

在寺北塔南

自天室寺外至
光啓丁未一百二
十八年
第五創

腹藏記云開曜元年辛巳月廿落成

神文王為光大王命工泥塑
請表訓常任禮懺焉云

唐僖宗光啓元年丁未新羅真聖王元年重創

真聖女王即位之初年與諸伯同同共發心追奉尊靈獻康寧康兩大

王及先考亡兄施穀於佛國寺修薦席請圓測和尚轉講華嚴經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

真興王
所鑄佛

文殊普賢像讚

并序崔致遠撰

聞如是摩訶香水海世界十二刹佛號遍光照乃諸金仙中巨測其或

力歟者佛國寺光學藏

媛妃權氏落米為尼
法舞秀圓亦名光學

講室左壁畫像者贈太

傳獻康大王

景文王元子贈太傳名曰政
唐乾符乙未王在位十二年

脩媛權氏法舞秀圓追奉尊靈

玄福之所有為也惟王是神仙中人媛乃菩薩化身萬劫所修千

年相遇而君也降後銀闕來治金城方驚清墮於鷄林遽促還期才
驚當媛也念三無私之德佩四不厭之歲既仰失所天謂真故無日削
除可鑑之身澄瑩不溜之心舜任彫顏萱忘植背以為命或謫
先朝露無有著此心處於是求虎頭妙手寫螺髻碎容菩薩墮既
左端右巖伽藍能東照西曜昔二花為供婉叶良因今千葉是勸懸
陳深願願君有德早苗焰於西極願已有緣終補處於東邊則月面
光中宛同奔月身雲影下永罷行雲有來為桂苑行人去作桑
丘使者致遠承命颺言而贊之

佛讚曰○

凡是有相皆是虛妄就虛妄中功德無量
認蓮花尼作蓮華藏
託有為緣寫無碍像寶雲開月香海停浪好掛仙帆穩浮慈航太
傳先王童真和尚嚮化辰下早敗荒閑疑蓬壺外席化臺上願言
回向萬劫供養

二菩薩讚

有一生菩薩體二真菩薩畫像踰彫塑主慕聖王甚飢渴
進競瞻仰辟觀能解脫誰謂以色見慈心不可棄願輪途
宣遙慧攝海寧同若別桑墟外必居蓮座末功成近偉歟
此事予著刺筆歸收衆目彩獲勝詞記

光啓丁未正月人日桂苑行人崔致遠撰

出東祖碑文

大華嚴宗佛國寺阿彌陀佛像

真興王贊并序所鑄佛讚

昔姚塢上人有心倦無恨以質所天之說匡岑大士有作思彼濟集
心西境之譚是皆優入法門預脩敏路有備無患興象共之耄故
是寺桑門將緇蘭於剡山願名曾於廬阜妙畜神表廣誘物情
乃於譚舍西墉敬寫無量壽像既成功於畫聖爰請紀於腐儒
於是炳心香合瓜甲而作告曰佛之德本也經在加有支道林游
揚之語僧之願在加有劉遺民陶歸之詞開卷而悉可燭焉惟愧
黑頭虫且非雜色鳥強嘗演暢祇說慈威今所恥效冥蟬者

實仰止故檀越金丞相大城達刺東岳之麓惟日所曠高山先見
遂使依栖者薰脩日益汲引日深果晞矐於東林覬攀龍於西
土騰言福地乃作頌云

東海東山有佳寺華嚴佛國為名字主人宗袞親修置
標顯四諸有深義萃嚴寓目瞻蓮藏佛國馳心係安養欲
使魔山平盡嶂終令苦海無驚浪可愛茫芻所說施能導
檀越奉心期東居西想寫形儀觀身落景柏嶠岷各於其
國興福州阿彌如來亦奇異金言未必辨方位究竟指心令
有地安生安兮空對空浮世修行在慎終既能安堵而晬容誰

謂面牆無感通景行支公與遠公存沒皆居佛國中

同年月日紫金魚袋崔致遠撰

東祖碑文

王妃金氏

金天城三世孫女也

為考繡釋迦如來像幡讀并序

聞夫法舫飛空迥出迷津之外慈軒駕說高碑燬室之中究之則莫暗歟門道之則實資冥域而況生標令望歿託勝目

動有所成往無不利故全州大都督金公

蘇判公顯憲大城子

少日天幸裔大

常令孫褰帷而按俗多能早分銅虎側席而求賢是切仰戴

金貂豈意未濟卽川先推良木夫人德芳蘭蕙禮潔蘋

繁遽失所天如歿于地掩灰心而誓節剝雲髻而改容乃捨

淨財以成追福唐僖宗中和六年丙午五月十日敕補釋迦牟尼
佛像幡一頭奉為蘇判莊嚴告畢斯乃三歸勵志五彩成童
染其裁翦之餘綴以回針之妙霞舒瑞質雲列靈仙高掛虛
空實彰功德仰助生天之樂聊申洩水之悲讚曰

巍然聖相繁甬神功福閭冥路光浮梵宮虹翫海日鳳
舞風天杏之年夜飄之珎石空絲羅結恨組繡呈工覺寧
天上精誠感通

中和六年丙午相月日桑丘使者崔致遠樵
羅朝上宰國戚大臣等奉為猷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夫以經為社者乃聚人以善緣報主以至誠之會也唐曆壬寅相
月五日憲康大王宮車晏駕台庭重德宗室懿親相與追奉真
祐成華嚴徑若干部齊詣京城東佛國寺圓測和尚講壇將陳妙
願乃著斯文且夫生滅定期聖賢同貫君子則能知所息哲人
則亦歎其萎逝逝水而云歸百身難贖竊窮泉而莫寤千
載增悲未超迷妄之塵皆陷感傷之域然則既失養神於身
此莫先敎命於梵雄能於九十刹那精心向善必使三千世界惠
力分慈況迎手寫金言口傳寶偈則祐滋亨路不踰一瞬之
間志達紺園永在四流之表仰資妙果共託覺林伏惟

先王冠己為君視民如子百揆從乾乾之慮四聰悅謬謬之
言煥乎能曜文章儼爾又安辭令聞康壯於魯道廣振
儒風治蕪穢於釋門再光佛日遂使塵消九野波息四溟
方當永戢干戈能蘇萬彙宜料空遺弓劍處密八音

聖上

大定

當辟嘉猷嗣膺寶位啟闕餘慈難抑哀情

以為報恩莫如結道緣追福莫如興法會遂教別大德賢俊
諸華嚴經及降譚座乃上言曰竊見大和中文有僧均諒等
奉為宣懿王后誘緇素之徒結春秋之社各賣經卷共集仁
祠薦芳祐以無窮傳妙音而不絕雖名言莫及而信願增深

縱陵遷而谷袁永蘭芬而桂馥今欲遵依均諒故事勸誘
群臣寫經敢言鍊石補天惟願撮塵裨岳法能無碍志必有
成仰觀聖慈俯從迷請上以弘懷興詠銜悲於鴻鴈行中幽贊
求慈注意於後祝座上既覽所奏嘉而許之仍擇侍書中
窮筆妙者命鴈華嚴經世間淨眼品第一特宣天旨八會
至其會日則降玉人捧經就席則彼楚王莫之潔志為誓
似滯小乘蕭帝行之降尊就卑全輕大寶宣若玩離花之
妙偈資令夢之勝目友于之至義愈彰王者之尊威自峻
遂得衆情風靡善願雲興若萬木之遇春陽如百川之飲巨瀆

粵有上宰舒菽韓金公林南國戚重巨蘇判順憲金一輩或
兼金瑞彩或盤石貴宗高標廊廟之珍深蘊棟樑之器瞻茂
陵而隕睫指梵域以傾心永慕天慈同追海會遂寫義熙
本經復有國統及僧錄等寫貞元新經北宮長公主聞之乃捨
淨財為標帶暨軸之旨義矣哉天倫義重已垂主會之榮月
娣恩深又備莊經之具至於鸞鸞清貫龍象高流響響應
影從隳肝瀝膽功侔於血墨皮紙價邁於香厨寶函未浹
一旬共成十廢則足以見我先大王修善化推厚恩而入人
腹中之深也如是衆願僉諧年約兩會集於佛國寺光學

歲轉讀於百編真詮伏願先王月耀金姿雲承玉趾縱
賞於喜園春色娛懷於靈宙梵音設使西空芥城東陲蓬
島妙緣無墜師天上之尊靈良會不虧傳日邊之盛事
冥空聖衆昭達斯誠

中和二年桂苑行人崔致遠出東國僧史碑

王妃金氏奉為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

蓋聞信佛法僧戒者非捨財寶之難無精誠以洗瑕滌穢之
患善父母兄弟者非養口腹之難無全行以慎終追遠之患
然則以精誠濯煩垢者莫若杜六八之邪門以至行奉真祐

者莫若植三歸之固祗苟如是則其功也不疾而速其願也無
為而成福不唐捐言非誇飾仰止思親之供宜伸潔已之誠
弟子娣姝夙藉善機得生華胄而乃弱齡含恤微喘偷
生不能綯緹縈之義蹤空自傷女類之深抱自幻及長雖存若
止豈料劉太保之諸孫兩朝中選王司空之遺禮同姓無嫌而
始叶有行旋乖偕光五日之佳期日遠三星之峻列星分為雲為雨
之言真成浮夢陟岵陟岡之悲難寫哀情舞天叩地不聞日往
月來而增痛遂乃毀容剔髮瀕冒浣腸忍樹良司虔遵妙教
今奉為先考失聲及亡兄追福共捨稻穀三千石於京城

自光啓丁未至
天聖甲子一百三
十八年

東山光學寢陵佛國寺表訓瑜伽圓測三聖講疏非敢誘
求名菩薩非敢踈無學比丘惟希濟之徒共念梵之怨或
購於擔簦負笈粗勝於施路檀門遂捨香旛仰資學教所
願寶梯架險慧棧浮深動有所依往無不利則必先考親瞻
眸相栖身於十刹雲中亡兄永奉慈顏邁迹於九重天上作三賢
之眷屬銷萬劫之冤讐然後別用莊嚴廣申誓願天竺之所履
燾日車之所照臨奏動翔飛焦焚墊溺咸拋愛網速證真詮

中和丁未年暢月富城太守崔致遠撰

出東國
僧史碑

宋仁宗天聖二年甲子高麗顯宗十五年重營

顯宗追慕穆宗信事佛濟而遣大角千金世赫等召三重大德

方紹神府等結壇佛國淨界設齋度僧三十人納田二千結出東祖碑

清泰三年丙申統合三韓 六年己亥始行高麗國號慶州新界滅後邑碑

徐羅天福五年改為安東都護府邑碑慶州司都督府顯德元年甲寅白王施寺九層塔左右金堂丈六佛天火燒止統和十年甲午安東大都護改為東京留守

官二十二年甲辰皇龍寺九層塔丈六佛成二十六年慶州改樂浪郡壽昌元年己亥皇龍寺霹靂火燒止戊戌十月十一日皇龍寺已蒙古人等亦付燒止慶州大寺尚書

南宋孝宗乾道八年壬辰高麗明宗二年毘盧殿極樂殿重創

大師觀王秀瀾等麗朝禪林中拔萃者明宗欽重德行之獲高

欲封為王師遣中樞知秦事兵部侍郎王範之先之宣諭上裁囑

詰以三迂師執謙山而疊讓宸請弥確不獲而已既之上幸東京

第...卷
天聖甲子至
乾道庚一百五
六年

自乾道庚午
至慶元一百六
十二年
第八創

宣廟創華嚴社佛國寺因覽光學藏譜室東壁獻康大
王像子敬禮肅恭畢詔師等住之而仍葺毘盧極樂等殿出鄉傳

元仁宗皇慶元年壬子高麗忠宣王四年重修道場

高麗瑜伽教師圓公諱海圓俗姓趙氏咸平人生而端莊天安
慈祥舉止異凡年甫一紀投佛國寺浮雪和尚薙髮學其法
儕輩莫敢望甲午春登進佛科大德己巳安西王聞高麗僧戒行
甚高遣使招致之公應其命入覲仍從安西王于朔方杜俗不事
耕種以畜牧為生食肉飲汁而衣其皮公居其間耳官暑寧
忍飢絕不茹葷持戒律益堅王愈重之本國之王尤加尊禮疏

自皇慶寺至
正統丙辰一百三
十年
第九創

請遷住東都城東佛國寺錫彌慧鑑圓明遍照無碍國一大

師封重大匡祐世若榮耀宗門冠於一時煩不錄出釋苑
謂林碑李穀所撰

皇慶元年壬子慶州尚書改為慶州府尹

洪武二年丁卯請中朝改服也從華制十五年帝七月十六日我太祖康殿
大王即位於松京壽昌宮

二十七年甲戌改高麗國號朝鮮

明英宗正統元年丙辰朝鮮世宗王十八年重創

重造大德義弘重修大雄殿觀音殿紫霞門

大巧德主 孝寧大君 安平大君 永膺大君

奉禮郎崔自朗 鎮海縣監崔自淵

蓋凡化主信俊別座海常

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八日世宗大王特賜佛國寺佛法僧

三寶帛信

景泰六年己亥中德大禪師惠能通泰改金祥迦主尊

左方補家祥畫及丹履副化士戒淨惠空行根六然

義悟大功德主

顯德大妃 曾山君

明洪治三年庚戌朝鮮成宗王壬午年重創

重大師義玄重修大雄殿及各殿

自正統丙辰至
洪治庚戌六年
第十創

大功德主

月山大君 慶州府尹防禦節制使尹瑛

京中有先前官朴季宗 判官張日新 蓋凡化士了聖

弘治八年乙卯二月十日

燕山王勅尚宮權氏平內史徐逸行等東京佛國寺

觀音菩薩塗金綰三匹香楮一千束焚修落成焉

翌年正德丙寅荒亂無度朴元宗柳順汀咸希顏等啓
慈順王大妃齊之奉 中宗大王即位

明世宗嘉靖四十三年甲子朝鮮明宗五十九年重創

大德達文重修大雄殿 大功德主

自洪治庚戌至
嘉靖甲子壬午
共十一創

仁明大王大妃 恭懿大妃 尚宮金氏 侍女雪華

慶州府尹嘉義大夫李仲樑 判官李淑仁 蘇克禎

蓋瓦化士智彥學倫

成化六年庚寅大德了明重修觀音殿

正德九年甲戌大德月清重修極樂殿辟畫檀信士禹泰鳳

金光允

已上出大雄殿上樑文記

自至乾浸矣而東流舉震朝翕然而西學或律虎風騰或
義就雲躍莫不仍以廣之改以新也屋小大三千餘間僧
老壯數萬已上日二時設僧差雲供閑香積界夜三分補聖

壬辰

歸雷音振普光堂髻髻半珠陀羅網主伴交參依倚焉芥瓊
瑤飛洪纖並羅鑑德者之明鏡嚴心者之寶篋利無利於情
區度不度於生品噫其在誰昔全盛之時輪奐甯廡之狀胡
刷鈎角之妙至於花明玉砌葉暗香欄潤咽瓊溜松飄白雪自
峽星檣騰金孕碧雲去雲來千態萬狀載笑載言迎之
送之無央數活畫中作用雖有江搃庾信之手段未可逆觀以
盡記也惜乎

大明萬曆二十一年我

宣祖大王二十六年癸巳五月日倭寇陸梁民物虔劉之際左兵

自嘉靖甲子至
順治乙亥年
崇禎二創

使精銳弓鈎移秘于本寺地藏殿隙間矣倭奴數十輩觀感像
設棟樑之義而競奔標觀及覩兵銳驚駭曰實花心有量也
八人燔殺百室燬然哀非秦宮而遽被悍羽之災何幸此際
逆科屢華大師通亂長壽寺矣領率門徒奔救大焰大雄殿極
梁殿崇霞門外二千餘間盡付暴焚其金像玉砌石檣宝塔燄
燄以脫禍累朝綸旨及千樣萬色珍玩寶物沒入於禁收之曰
可慨也已吁天運循環至泰無常前賢後哲緇之承之恢復仁
祠資嚴像設過卒年後

清主順治十六年己亥朝鮮孝宗王十年重創

判事天心重修寶殿仍以丹墀

大功德主 慶州府尹嚴鼎者 判官申成一

引勸化士克思法鑑 副化主定亨 幸淳 靈眼

學能清日 雪元 蓋瓦化主普濟性俊別座義俊出上

十七年庚子德祐重建毘盧殿仍以丹青化主道天印祐性

同年八月一湖自辦雕造大雄殿戶闔四面莊子又造法鼓

順治五年戊子大德海淨重建說法殿又創真堂

順治十年癸巳雪梅極樂殿後佛幃造成 施主比丘智孟

萬曆三十二年甲辰大德海清重創觀音殿長壽寺

早年大師海眼重建梵鍾閣左經樓右經樓南行廊

天啓六年丙寅山人清彥重建安養門又創滿月堂

八年戊辰大德聖休重建東西行廊文殊殿香炉殿

崇禎元年庚午首座茶湖重修紫霞門重建兩壽庵

五年甲戌優婆塞優婆尼海月庵金觀音像

順治四年丁亥一悟達十六羅漢殿又造等像

十年癸巳雪梅造上聲及三殿位牌三壇位牌

清康熙十三年甲寅首座察信重修文殊殿仍造文殊普賢

兩尊像改金觀音像

四曆甲午年戊午
崇禎初創及廢殿
元主
崇禎改大皇帝
小君孝全
崇禎一五年丙午
十二引

己巳四月十二日
出宮
甲戌四月二十四日
還宮

同年甲寅自涸創建十王殿 等像化主察信

順治十二年己未化主性俊始創伯陽康熙丙寅年自涸重創

康熙十五年丙辰重創中行廊化主太真懶旭克心又創左

十六年丁巳重創東行廊化主大師建擇 副化主性悟

十七年戊午重修香炉殿化主察信同年義俊重

十年辛亥化主雪聰始建祖師殿

二十年辛酉月松堂大師巾祐奉

肅宗大王仁顯王后閔氏勅命造毘盧後佛須一軸特 賜大端卓

衣一領金酌一玉佩二雙七毛鞭一隻革鞋一雙釋氏源流

一件諸佛菩薩歌曲經一件中壇三藏幀一軸

尚宮尹氏侍女李氏所
金氏款玉

二十一年壬戌大雄殿兩漏蓋尾化主登信釋宗草全冲益

二十七年戊辰重創須彌梵鍾樓 偶以失火房自寺中合力重建

二十九年庚午通改惠林造法鼓

二十七年戊辰觀音像改金化主資機

二十九年庚午重建左經樓化主釋仁釋明性坦智屹廣惠

二十五年丙寅重修青雲檣白雲檣化主敬訥雪彥裕淨秋任

早年壬午兩漏瓦自備化主資照法帛雲珠卓洽斗湖

卓清哲心惠寶法還

甲七年戊子丹墀紫霞門梵鍾閣化主祖莫

同年戊子修莊無說殿化主卓行卓林璉訓惠根日雲

別座善清

甲四年乙酉重修東行廊大雄殿西過改柱寺內執事雲珠

甲二年癸未中輦下輦造成化主居士淨明

同年癸未掛佛造成化主居士天然

璉王藏橫造成

甲四年乙亥重創觀音殿化主明哲崇伯覽岑勝允

賀湖靈修斗仁勝資蓋瓦化主守孟思運

甲二年癸未觀音後佛順化主居士天然

甲一年壬辰十王殿丹青自備化主壬子癸丑甲寅乙卯等生

戒臨懷忍善清道性善書善取宥卓善存

辛四年乙未大律師國恒改金毘盧彌陀觀音三尊像

別座懷忍

同年己未首座卓敬水月等改金彌勒竭羅兩補處尊像

辛五年丙申居士法還十王後佛憤造成別座再遠

辛四年乙未右經樓重初化主斗天國俗

辛三年甲午兩漏尾化主蒙王致性呂行宝中就學致鑑

淨洽

辛七年戊戌觀音殿丹腹化主善清順擇

辛九年庚子極樂殿丹腹化主善書再遠

辛七年戊戌右經樓丹腹自願化主守寬

壬午年壬辰鑄成銅鐵大東海重一百十五斤 典座惠崇

壬午年戊戌鑄成水鐵甌重五百五斤 典座斐王

壬午年乙未重修青雲檣白雲檣化主戒聰克選

壬午年癸亥重創瑞雲堂化主思益尚彦
康熙辛丑重修
化主克選

壬午年丙申省行堂移建寺內

甲午年己丑重創真堂滿月堂

壬午年戊戌重創明月寮

壬午年鑄成禁口化主就寬善益

壬午年戊戌通改懷忍自備鍾函疏臺燭臺燈籠

清雍正元年癸卯鑄成禁口雲版重一百卅化主大師輝洽

六年戊申鑄成大鍾重八百十三斤化主大師輝洽

施主兼別座
通政清益

三年己巳重創祖師殿

五年丁未各邑威儀虛蓋香亭子造成寺內助緣懷忍

七年己酉十五殿香炉殿南樓重創化主真聰別上神淵

八年庚戌大雄殿雨漏瓦化主大海克杞省性時贊

慈海妙彥別座克連

七年己酉大雄殿及諸殿蓋瓦自備化主楚文得善

翼年義根

卷之八
十一

清雍正八年庚戌通改釋懷忍自財八百餘金為

父通改禹仁築為母鄭氏大雄殿丹牖中壇三藏幀造
成左右翼廊丹青副化主體英別座怨文

同年庚戌大雄殿左右補窗彌勒竭羅兩尊像塗大化主

瑚峰大師宝天照藏大根別座清益

九年辛亥瞻星閣新建于法堂東隅寺內

施主韓世元
典座聿札

同年大雄殿蓋瓦化主聿札施主千萬壽

清乾隆元年丙辰重創安養門化主居士淨行清信

二年丁巳重創安養門化主居士淨行清信

卷之八
十二

五年庚申毘盧殿後佛幘造成化主居士月華又造

陽傘造進

乾隆五年庚辰羅漢殿移建于本基化主釋達天通改鄭慶碩

癸未三月長燈存本價及地衣法席

京中留先衙官朴承宗初九日意此新造說立化主特殿賢弘

乾隆五年三月初旬慶州府尹洪相國耕體送禮房鄉所鄭光壽公禮序

孫弟特等子佛國寺

肅宗大王仁顯王后閔氏宣賜金爵玉佩華鞋神藝妙經冊八卷等物奉審後俱經續

紅袂鎖金奉安于佛閣使凡人不得用見之意令付任僧用金官上

明熹宗天啓三年癸亥朝鮮仁祖元年重建黃龍寺

選科大德曇華奉朝命使日本還入隱宿山本寺歟為倭賊
所燒蕩然煨燼慨然重初古傳新羅善德女主唐貞觀
七年癸巳召匠鑄藥師像安置寺名曰黃蓮寺後昭聖王時有
五年之旱草禾枯槁而獨此山別是陽春沆澍增潤草木志
霽故山名隱宿寺号改龍云云

清順治七年庚寅首座一真重修

康熙辛巳僧殘寺圯合屬佛國寺改名深寂庵

康熙甲午年壬午重創深寂化主崇屹思欠

辛酉年乙未偶然失火又重創化主國淨

光緒六年四月二十八日

南寧九年四月二十八日

嘉慶元年四月二十八日

甲七年戊子深密法堂重創化主贊莫

雍正八年庚戌重建深密庵化主法常

明萬曆甲子年中德大禪覺華重建長壽庵

康熙二十二年癸亥元堤釋照重建熊壽庵

順治九年壬辰智孟重建兩壽庵康熙元年丁未海明重創
雍正七年己酉就淡重創

順治十七年庚子高雲創青蓮庵雍正三年乙巳重創
化主淨軒雷潤

康熙五十九年庚子通政懷忍出財成祖室偏日
指月

康熙二十三年甲子靈智創白雲庵一名五十年壬辰重創
白蓮化主廣明

康熙四十二年癸未水月創浮屠殿瀟波堂文學大師浮屠一座
朗康堂建樺大師浮屠一座

康熙三十八年己巳
初創光目堂
大師文學
西一千九百一十四

辛七年戊戌大師道儀重創浮屠社又丹青

康熙三十三年甲戌戒天創天鈿庵在東岳東麓

三十二年癸酉大師法眼創雲鈿庵在東岳東麓

甲四年壬午呂淨創光目堂五十五年丙申重創化主水月乾隆六年辛酉重建化主先益君廟敬奉太芳

二十七年戊辰義俊重建華嚴殿五十九年庚子重創

四十二年癸未從悅重創石塔庵又等窟五十七年戊戌重創化主太謙

順治十年癸巳大德智元建普德窟中窟上窟林坊等四

庵並在鷄迷嶺墨丁山西麓

康熙三十四年乙亥性修移林坊庵改建下方改名青蓮庵中年殲

乾隆五年庚申始得募款復立故改名南嶽庵

康熙四十七年戊子新建信道庵在言戊戌年移建今湖谷里

平八年己亥元建新建雲水庵在暗谷東北谷雍正七年己酉移建上方

日照庵在見佛山杜庵在北軍里白月庵在雨岡水南谷

康熙四十年壬午紙大同設立首倡思運

甲七年戊子古蹟校開刊自備斗華懷忍

乾隆庚申二月日金設建立三百餘金首倡義根

庚申五月泮陽大庵門人活庵東隱書于青社

蓮床云西云

二二

文宗云西云

雍正七年己酉道僧太仁自湖南來寓是寺慨其摸西域之佛

國染淨混沌聖凡失序汚穢真淨道場移建三處衆寮於

經樓之下以累千餘財自當化入又築圍牆

乾隆十五年庚午極樂殿重修化主悟還廓熙武淑良工三海道演

都監武存別上慕遠

乾隆十四年己巳以大仁首座之知識重建光目堂禪室化主李太益尹

輔殷等良工李奉日道演都監嘉善清別上朗淳

三十三年戊寅寂光殿重修化主甲午甲契首頭樺鑑都監前僧統

太明別上仁伯良工日安

乾隆三十四年

乾隆三十四年

乙酉第三十三

創也

乾隆三十四年

二十四年己卯冥府殿重砌化士崔南崙金汝太權奉鍾李衆膳

鄭瑞郁鄭德富良工

都監順寄別上勝潤

三十年己酉大雄殿重砌天龍寺老德米遠以半千金而首倡都監

戒鑑別上和惠良工湖南僧快演圓信右堅大仁等十八人嶺南僧

戒澄始敏等十餘人化主本寺大德二國都摠攝西岳堂道泰副化

士大德梵行平心如一玄悟達惠奉觀恕弘等十餘人

乾隆三十二年丁亥大雄殿丹牕

四月始役
六月畢役

首化士大魚山普覺登階贊弘

化士宗師浩然宗師萬洲大師卒日魚山如市首座敏是等十五人

自納化士通政斗日性宅斗閑海淑通政大演准坦和淑始演始敏等
都畫負夏閩副畫致淨普觀寺性教源若鵬等五十三人

都監前僧統閔悟

別座通政大夫雷善

乾隆三十四年己丑五月十三日大雄殿三尊觀音殿獨尊改金重修如
樂阿難新畫成大雄殿後佛幘帝釋天龍會成造大化主凌虛堂
宇定大禪師塗金良王湖南尚淨畫幘良工本寺有成等三
三人改金大施主通政米遠觀音像改金施主石峯堂任活大師獨當
後佛幘大施主嘉善夫學真

當

都監曲大師閏悅別上弘覺登階曲大師贊弘

嘉慶元年丙辰正月陽筆引路幡現音圃團羅漢殿卓衣見廬殿

圃團上三殿下時下奉安于北來竹首座玉和時僧徒駐寄寮事舉書有

二奔戌午十月日京畿道城內南部倭館洞屋清信

士蹟正自備大雄觀喜端卓衣一領羅漢王佛三尊

十六圃團觀音殿王燈一座負十朴福得

嘉慶元年戊午蓮返故池塘

嘉慶拾年乙丑毘廬殿末置重修首習疑菴堂郎典印化主

初創大功德主青丘國師金大城齋日

入齋日每年陰十二月初二日

ii) 「동경유록」(출처: 朴琮, 불국사 정수스님 譯, 『鑑洲集』卷之十五, 1767)

당주집(鑑洲集) 권지십오(卷之十五)

박종(朴琮)의 동경유록(東京遊錄)

佛國寺

余到東都卽聞寺有新羅古跡可觀而奉侍長者日承講誨無隙可偷而出復月之念四日偶有蔚山之行蓋左闕〈李公觀祥〉於余素厚而病中要見甚勤故也初發時不知寺在何東南行三十里逢納知寺距路左不遠輒生歸路歷遊之計翌日晚後辭主闕環宿東村酒店顧來時以再明環歸告期於丈席令必行一站而後明可以觀佛國而趁期到衙故強拂主闕之晚而發焉二十七日早發行十里有羅代古陵卦陵而不知爲何王所藏環之以石如屏屏外又環以石柱前有床石左右羊虎交文武之石太半頽落於荒林之中矣又行十里爲幸之洞口入未幾樹木稀疎古基荒涼有廢寺樣山名吐舍下馬紫霞門前有大石階制甚奇壯大抵階爲二層橫長十五尺而下層十八級以三大斜石〈長二十二尺廣二尺〉分置於階之中與左右左右石之上下皆直石柱柱有圓孔斜石之上亦有小柱孔必設斜扛以爲石欄者而欄則無之階級十八橫長皆四尺一寸左右斜長石之下各以一石障之着地處如句後面立處如股當斜石處如弦級盡處鋪石如橋〈南北濶可六尺東西如階之橫長〉其下則空之而作虹霓以通入往來稱白雲橋至此而階之左右各數間皆石築高與白雲橋之上面齊便成平地設上層階於此其制一如下層階之樣而三行斜石之長視下層稍減〈長十五尺四寸〉階級十五而級盡處鋪石如橋〈南北濶可五尺〉其下作虹霓開如下層而稱青雲橋左右斜石有柱有欄痕亦如之橋盡處爲紫霞門〈六間〉門之西十許步有須彌鍾閣〈二間〉每柱下以大石每二片作十字石又刻其四端如梁稅之狀僧須彌山形如此者九層通高九尺以此爲礎安柱於其上望之奇巧樓上有梅月退漁詩板樓西有安養門制如紫霞門而稍殺下層階十二級中及左右石與階級同而差高每級有彫刻僧稱蓮花階上層階則七級亦有雕鏤僧稱七寶階三行石如紫霞門而長七尺三寸廣一尺二寸紫霞門之東十步許有東慶樓安養門之西十步

許有西慶樓石柱石築亦奇妙紫霞門之內大雄殿之庭庭之東西有塔在東者曰多寶塔下層四面各十三尺七寸四面當中設階十級下層之上有五柱在四隅者高四尺九寸在中者高五尺七寸廣一尺通計十二層矣在西者曰無影塔四面尺數與上同而無四階第二層四面十尺第三層四面八尺四五六層漸殺七層上有圓石稱蓮花峯大雄殿設金佛釋迦在中彌勒阿難左迦葉竭那右焉殿二十五間階高八尺四寸而樣與他階不同上鋪廣石其下豎石有間架如山陵屏石之制四面當中設階殿之後有無說殿東西八間南北四間前面設四階樣如大雄殿之階此殿則新羅時義相法師與其徒神林表訓講華嚴處故寺名稱大華嚴宗佛國寺云無說殿之後有極樂園通二殿左應真殿右有冥府殿大雄無說兩殿之左右有長廊皆羅時所作俱殘頽漫漶而惟大雄殿重修屬耳丹青金碧極其輝煌前所未見長廊之外有三彌橋華藏橋六道橋崩毀不全制度僅存而其奇巧則甚矣僧曰仁顯聖母於辛亥賜卓衣金爵玉佩毛鞭華鞋釋氏源流四冊諸佛歌曲四冊藏在金爐殿而以門鎖在府未得奉覽亦未知御賜之果的然也按寺記寺之倉在新羅法興王二十七年〈梁大統二年法興王母迎帝夫人出家爲尼名法流迎帝佛國寺惑華嚴法流寺味鄒王二十年癸未巧阿度法師自句驪來勅皇龍寺七伽藍云〉眞興王二十六年〈陳宣帝太建六年甲午〉重勑勑無說殿義相講法在文武王十年〈唐高宗咸亨元年庚午〉其後景德王十年〈唐明皇天寶十年辛卯〉眞聖王元年〈唐禧宗光啓元年丁未〉高麗顯宗十五年〈宋仁宗天聖二年甲子〉明宗二年〈宋孝宗乾道八年壬辰〉忠順王元年〈元仁宗皇慶元年壬子〉我朝世宗朝成宗朝明宗朝皆重修云今距法興王二十七年爲一千二百四十年寺之興廢未知幾閱塵劫而石物樓殿之十亡而一存者猶如是奇麗則新羅初勑之盛概可想矣僧言影池在十里外寺之全體皆入暎於池中故名而但大雄殿庭之西塔獨不暎故名以無影塔云按寺記有神僧初勑是寺而其妹欲觀之以爲大事未成不可褻以女玩吾當是寺影於其池余須往見果如其言至今寺影於池中火僧房日傾環洗襟堂

불 국 사 편

당주집 십오권

박종의 동경유록

또한 십리를 가니 행지동이라는 동네 어귀에 들어섰다.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들이 옛 터에 드물게 자라고 있었다. 황량한 폐사지 같은 곳에 산의 이름은 토함이라고 하며, 우리는 자하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으며, 커다란 석축계단이 있었다. 매우 장대하게 제작되었으며, 계단은 2층으로 이루어 졌다. 가로 길이는 15척이며 아래층은 열여덟 계단이다.

세 개의 큰 돌(길이 22척, 가로 2척)로서 비스듬하게 세워서(斜石) 계단 중앙에 나누어 설치하여 계단의 좌우를 세우게 하였다. 좌측과 우측 석축의 상하에 모두 곧은 돌기둥을 세웠다. 돌기둥에 모두 둥근 구멍이 있었으며, 비스듬하게 있는 석축(斜石)에도 둥글고 작은 구멍이 있었다.

추측컨대 작은 구멍에 반드시 비스듬하게 받침을 설치한 석조 난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계단에 난간을 찾아 볼 수 없다.

열여덟 계단의 가로 길이는 모두 4척1촌이며, 좌측과 우측의 긴 사석(斜石)의 아래에 각각 하나의 돌로서 막아서 땅에 지탱하게 한 것이 마치 句처럼 생겼으며, 뒤쪽에 세워진 부분은 마치 넓적다리(股)처럼 생겼으며, 비스듬한 석축(斜石)은 마치 활시위(弦)처럼 생겼다.

계단의 맨 끝 부분에 돌을 깔아서 마치 다리(위와 아래의 넓이는 6척이며, 좌우의 길이는 계단의 길이와 동일하다.)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 아래는 비워두어서 무지개의 모양으로 만들어 출입왕래를 하게 하였다. 백운교는 여기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계단의 좌, 우측으로 각각 몇 칸(間)의 석축이 있다. 모든 석축의 높이는 백운교의 상면(上面)부의 높이와 동일하여 지평선을 이루고 있다.

백운교 위쪽의 계단도 이 곳에서부터 설치하고 있다. 그 제작 방법은 아래쪽 백운교의 계단모양과 동일하다. 세 줄로 이루어진 斜石의 길이는 아래층보다 조금 짧다.(길이 15척4촌)

열다섯 계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 돌을 깔아서 마치 다리(위, 아래의 넓이는 가히 5척에 가깝다.)와 같다. 계단 아래에 무지개(虹霓)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열어두니 마치 아래층과 같아서 청운교라고 말한다. 청운교

의 좌, 우측의 斜石에도 기둥과 난간의 흔적이 있으며, 계단의 맨 위쪽이 자하문(6間)이다.

자하문에서 서쪽으로 열 걸음(十步) 쯤에 수미종각(須彌鐘閣 2間)이 있다. 모든 石柱아래에는 큰 돌로서 모두 두 조각으로 열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졌으며, 또한 돌의 네 끝 부위에 대들보와 같은 모양으로 조각을 하였다. 스님은 수미산의 형상이 이와 같다고 하였으며, 九층의 총체적인 높이는 九尺이다.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위에 종각의 기둥을 세웠다. 바라보면 매우 기이하고 정교롭게 만들어졌으며, 누각 위에는 매월당 김시습의 退漁詩 현판이 있다.

누각의 서쪽에는 안양문이 있다. 제작방법은 자하문하고 비슷하나 조금 간소하게 만들어졌다. 아래층의 계단은 열두 계단이며, 중앙과 좌, 우측의 돌은 층계와 비슷하나 조금은 높다.

매 계단 마다 조각이 있었는데 스님은 연화계단이라고 하였다. 위층 계단은 일곱 계단으로 또한 새긴 조각이 있었으며 스님은 이것을 칠보교라고 하였다. 세 줄의 斜石은 자하문과 동일하며 길이는 七척三촌이며, 넓이는 一척二촌이다. 그리고 자하문에서 동쪽으로 열걸음(十步) 쯤에 東慶樓가 있고, 안양문에서 서쪽으로 열 걸음쯤에 西慶樓가 있으며 석주와 석축 또한 기묘하게 제작 되었다.

자하문 안 쪽은 대웅전의 마당이며, 마당의 동편과 서편에 탑이 있다. 동편에 위치한 것은 다보탑이라고 하며, 아래 층 네 면은 각 13척 7촌이다. 네 면의 정 중앙에 열 개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아래층 위에 다섯 기둥을 세웠으며, 네 귀퉁이의 석주 높이는 4척9촌이고 중앙의 석주 높이는 5척7촌이 이며, 넓이는 1척이다. 총체적으로 12층탑이라고 생각된다.

대웅전 마당 서편에 위치한 것은 무영탑이라고 하며, 탑의 네 면의 크기는 위의 다보탑과 같으나 四面에 열 개의 계단은 없다. 탑의 제 이층의 사면은 十척이고, 제 삼층의 사면은 八척이다. 4, 5층은 점차로 작아지고 7층 위로는 둥근 돌로 이루어져서 연화봉(蓮花峰)이라고 한다.

대웅전에는 금불인 서가모니불상이 중앙에 위치하고 미륵보살과 아난존자상은 좌측에 위치하며, 가섭존자와 제화갈라(竭那)상은 우측에 위치한다. 대웅전은 25칸이고 계단의 높이는 8척4촌인데, 제작 양식은 다른 계단의 모양과 같지 아니하였다. 위에는 넓은 돌은 깔고 그 아래에 돌을 세워 칸살을 만들어서 마치 山陵과 같이 돌들을 감싸도록 만들었다. 대웅전 四面의 중앙 부위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다. 크기는 동서로 8칸이고 남북으로 4칸이다. 앞면에 네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양식은 대웅전의 계단과 같다. 이 무설전

은 신라시대에 의상법사와 그 문도인 신림, 표훈 등이 화엄경을 강의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사찰의 이름을 대화엄종 불국사라고 칭호하였다.

무설전 뒤에 극락전과 원통전 두 전각이 있으며, 좌측에는 웅진전이 있고 우측에는 명부전이 있다.

그리고 대웅전과 무설전 두 전각의 좌, 우측에 긴 회랑이 있으며, 신라시대에 만들어 졌는데 모두 무너지고 흐트러졌다. 오직 대웅전만이 중수를 하고 이어서 단청을 하여 황금푸른빛이 지극히 찬란하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긴 회랑 이외에 또 삼미교(三彌橋), 화장교(華藏橋), 육도교(六道橋) 등이 있었으나 모두 무너져 온전치 못 하였다. 그러나 자취만이 겨우 보존되어 그 제작은 매우 기이하고 정교하였음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인현성모(仁賢王后)께서 신해년에 승복(卓衣), 金爵, 玉佩, 毛鞭, 華鞋, 釋氏源流 4冊, 諸佛歌曲 4책 등을 하사하여 금로전(金盧殿)에 保藏하여 있었으나 문의 열쇠가 官府에 있어서 관람할 수가 없었다. 또한 御賜하신 물품이 그대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佛國寺 殿閣과 伽藍配置 變化에 關한 研究

신 재 수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指導教授 오 세 덕

(국문 초록)

본고는 불국사 전각과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 불국사,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람배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1490년 조선전기 가람배치는 사역 전면에 인공연못 구품연지를 두고 대석단 동·서 양옆에 2개의 석교가 있다. 동원 영역은 남-북을 주축선으로 청운교·백운교, 자하문, 좌·우로 좌경루, 범영루, 그리고 동·서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그 북쪽에 무설전이 있다. 서원 영역은 남-북을 축선으로 연화교·칠보교, 안양문, 서쪽은 우경루가 있고 중앙에는 극락전이 있다. 북쪽으로는 향로전과 광학장강실이 있다. 동원의 무설전 북쪽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있다.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에는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1767년 조선후기 가람배치는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가람이 소실되고 17세기부터 중수와 중창이 이어졌다. 전체적인 가람배치 형태는 조선전기와 동일하나 범영루, 극락전, 관음전, 비로전은 규모가 축소 복원되었다. 비로전 서쪽 지장전이 있던 자리에는 시왕전이 축소 건립되고 관음전 동쪽 옆에는 새로 응진전이 건립되었다. 광학장강실, 오백성중전, 천불전은 복원되지 못했다.

셋째, 1918년 일제강점기의 가람배치는 구한말 혼란 속에 쇠락한 사역 전면에는 흐트러진 석조물과 석교,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이 있다.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고 대웅전과

극락전만 겨우 남아있다. 두 전각 옆으로 승려의 생활 공간으로 보이는 당(堂)이 있다. 극락전 전면 좌·우에는 주지실과 응접실이 있다.

넷째, 2018년 가람배치는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비교하면 중심 영역만 중수,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와 비교할 때는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좌경루가 새로 복원되었고 범영루는 조선전기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고금창기』를 기준으로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490년에는 16동 224칸 규모였고,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이후 중창, 복원되면서 1767년에는 14동 129칸으로 복원되었다. 19세기 접어들면서 사세가 기울어 전각은 거의 붕괴되고 1918년에는 5동 48칸의 전각만 겨우 남았다. 1970년대 초 대규모 수리와 복원을 통해 오늘날 10동 117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224칸→129칸→48칸→117칸으로 조선전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약 2배 축소된 것이며 이는 조선전기 대가람의 규모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전기 불국사는 역불정책에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를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중창, 복원되었지만 임진왜란 전 가람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구한말의 혼란기를 거치며 사역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관리 부재 상태로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었다. 1970년대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 수리, 복원하여 현재의 가람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 전·후기 가람배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찰이 대부분 그러하듯 불국사 역시 초창기와 통일 신라시대 가람배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경내 남아있는 유물과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전각의 변화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실에 의의를 둔다.

주제어: 불국사, 불국사 가람배치, 불국사 전각, 조선후기 불국사, 고금창기, 가람배치 변화, 복원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Sin Jae-soo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deok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es of the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 layouts at Bulguksa during the period from the former and latter part of Joseon through the Japanese rule to modern tim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of Bulguksa.

As for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in 1490 and found that before temple area, there was a manmade pond, Gupumyeonji, with two stone bridges in the east and west of Daeseokdan. In the eastern area, there were Cheongwoon and Baekwoon Bridges and Jaha Gate along the main north-south axis, Jwagyeongru and Beomyeongru on the right and left side, and Dabo and Seokga Pagodas in the east and west. Daewoongjeon stood at the center with Museoljeon to its north. In the western area, there were the

Yeonhwa and Chilbo Bridges and Anyang Gate along the north-south axis with Woogyeonru in the west and Geukrakjeon in the center. There were Hyangrojeon and Gwanghakjanggangsils in the north, and Gwaneumjeon, Birojeon, and Jijangjeon along the east-west axis in the section higher by a platform north of Museoljeon. Obaekseongjungjeon and Cheonbuljeon were arranged over the valley north of Gwaneumjeon.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in 1767 and found that most parts of the Buddhist temple were burned down during Imjinwaeran with repair and reconstruction continuing since the 17th century. The overall Buddhist temple layout was similar to that of the former part of Joseon, but Beomyeonru, Geukrakjeon, Gwaneumjeon, and Birojeon were reduced in size after restoration. Siwangjeon was also constructed at a smaller size at the site of Jijangjeon west of Birojeon. Eungjinjeon was built anew next to Gwaneumjeon in the east, and Gwanghakjanggangsils, Obaekseongjungjeon, and Cheonbuljeon were not restored.

Moreover,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during the Japanese rule in 1918 and found stone structures, stone bridges, Jaha Gate, Beomyeonru, and Anyang Gate in disorder before the deteriorated temple area in the middle of confusion at the end of Joseon. Most of the buildings collapsed, and only Daewoongjeon and Geukrakjeon managed to survive. There was Dang, a living space for Buddhist monks, next to these two buildings, and a room for chief Buddhist monk and a reception room on the right and left side before Geukrakjeon.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in 2018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Joseon and found that only the central section was repaired and restored. When compared with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the Japanese rule, it had Museoljeon, Gwaneumjeon, Birojeon, Nahanjeon, and Jwagyeongru restored anew, and Beomyeongru was restored to the state of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 study then investigated changes to the major buildings of Bulguksa in size based on *Bulguksa Gogeumchanggi* and found there were 16 buildings and 224 rooms in 1490 and that most buildings were burned down during Imjinwaeran. The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resulted in 14 buildings and 129 rooms in 1767. Entering the 19th century, the situation deteriorated with most buildings collapsing. By 1918, only 5 buildings and 48 rooms managed to survive. There was a large-scale repair and restoration project in the early 1970s, and this resulted in the current 10 buildings and 117 rooms.

In summary, the rooms of Bulguksa underwent changes of 224→129→48→117 with the current number reduced approximately twofold from the number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 results point to many size differences from the huge Buddhist temple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se changes to the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were related to the situations of the times based on their correlations with them.

In the former part of Joseon, Bulguksa maintained its situation thanks to royal support despite the policy of suppressing Buddhism. After Imjinwaeran, however, most buildings were burned down. There were massive repair and restoration efforts made for many yea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but

they never restored the size of the Buddhist temple to what it was before the war. The temple area of Bulguksa shrank quickly during confusing times at the end of Joseon. During the Japanese rule, most buildings collapsed due to the absence of maintenance.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led repair and resto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on a large scale, and Bulguksa has been maintained since that proje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process of Bulguksa in the Buddhist temple layout by period. Like most Buddhist temples in the nation, Bulguksa has no materials to estimate its original layout, which means that there is no certainty of knowing its original shape. This study, however, offered a chance to estimate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Joseon,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Keywords: Bulguksa,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buildings of Bulguksa, Bulguksa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Gogaeumchanggi,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restoration